

요한 복음

요한의 기록한 대로 쓴 거서라

一 1. 태초에 말씀이 잇스니 말씀이 하는 것과 또 처 계시매 말씀은 곳
 二 2. 하는 님이 시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는 님과 또 처 계서서 말씀으로 만물이
 三 3. 지은 바 되었스니 지은 물건이 말씀 업시는 지은 거시 하나도 업는 니라
 四 4. 생명이 말씀에 잇스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두은 디 빛이 되
 五 5. 어두은 거시 썩듯 지 못하더라 하는 님의 보내신 사람이 잇스니 일흔은 요한
 六 6. 이라 더가 와서 증거 하는 거슨 빛을 위하야 증거 하는 거시니 모든 사람
 七 7. 으로 하여곰 그의 인하야 다 밋게 흠이라 요한은 이 빛이 아니오 이
 八 8. 빛을 위하야 증거 하려 온 자라 참 빛이 잇스니 세상에 나리샤 각 사람의 게
 九 9. 다 빛이 되는 거시라 그가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에 계시되 세상이 아지 못하고
 十 10. 그의 썩에 와도 그의 빛이 디 접자 아니 하되 디 접하는 자는 그의 일흔을 밋는
 十一 11. 자라 권세를 주샤 하는 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이는 혈기로 난 것도
 十二 12. 아니 오 영육으로 난 것도 아니 오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 오 하는 님

十三 13. 께로서 난 거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 하야 은혜와 진리가
 十四 14. 그득 할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바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요한이
 十五 15. 이를 위하야 증거 하야 불너 글으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十六 16. 이가 나보다 앞선 거슨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 말미아 사람을 그르침
 十七 17. 이라 우리가 다 그 총만 하되셔 밋고 또 은혜 우에 은혜를 잇는 자라 틀 법은
 十八 18.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거시 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十九 19. 온 거시라 본디 하는 님을 본 사람이 업스되 아바지 품 속에 잇는 독생자가
 二十 20. 나타내셨는 니라 ○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二十一 21. 제사장과 레위의 손을 보내여 요한 드려 무려 글으되 네가 누구냐
 二十二 22. 할 때 요한이 안다 하고 숨기지 아니 하니 안다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二十三 23. 아니라 하되 또 무르되 그러면 누구냐 엘니야냐 하니 글으되 아니라
 二十四 24. 무르되 선지자냐 타답하되 그도 아니라 하되 또 무르되 누구냐 우리가
 二十五 25. 우리 보낸 사람의 게 되 답하 게 하라 네가 누구냐 하는냐 하되 글으되 나는
 二十六 26.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또 처 광야에서 웨치는 소리나 글으되 주의 길을

二四 꽃개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바리새 교인의게서 보낸 사람이라 三五 또 무려
 二五 글으되 네가 그리스도도 아니오 엘니야도 아니오 그 선지자도 아니
 二六 어늘 엿지 하야 세례를 주는냐 二六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노 세례를 주거
 二七 니와 할 사람이 너희 가운데 섰스되 너희가 아지 못하도다 이는 나보다
 二八 뒤에 오시는 자라 내가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니 二八 이 일은
 二九 요단강 건너편 벳아나에서 하였스니 二九 요한의 세례 주는 곳이다 ○
 三〇 잇흔날 三〇 요한이 예수가 자기의게 나아 오심을 보고 글으되 세상 죄를
 三一 지고 가는 하느님의 어린양을 보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혼 사람이 내
 三二 뒤에 와도 나보다 앞선 거슨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혼 거시 이 사람을
 三三 마르침이라 三三 나도 아지 못하였스나 내가 와서 물노 세례를 주는 거슨 그를
 三四 이스라엘의게 나타내 고쳐 줌이라 三四 하니 요한이 또 증거 하야 글으되 내가
 三五 보매 성신이 비둘기 모양으로 하늘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릿스나
 三六 나도 아지 못하였스나 나를 보내여 물노 세례를 주라 하였신이 가 나드려 말씀
 三七 하사니 성신이 내려서 위에 머무는 거슨 보면 그가 곧 성신으로 세례

三六 주니라 하니 내가 보고 하느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 하였노라 三六 하니라 ○
 三七 또 잇흔날 요한이 두 데즈와 갓치 섰다가 예수의 든나심을 보고 말하되
 三八 하느님의 어린양을 보라 하니 三八 두 데즈가 그 말을 듯고 곧 예수를 좃거늘
 三九 예수가 몸을 도리켜 좃는 거슬 보시고 무려 글으샤되 무어슬 구하느냐
 四〇 글으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닛가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四〇 예수
 四一 글으샤되와 보라 하시되 너희가 와서 계시되를 보고 그 날 갓치 거하니
 四二 세가 선정 즈 되엿더라 四二 요한의 말을 듯고 예수를 좃는 두 사람 중에 하나
 四三 는 시몬 베드로의 아오 안드레라 四三 먼저 그 형 시몬을 차자 보고 말하되
 四四 우리가 메시야를 맛났다 하니 四四 메시야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四四 다리고
 四五 장차 게바라 四五 하니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 잇흔날
 四六 예수가 갈릴리로 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날으샤되 나를 좃치라 하시니
 四七 빌립은 벳새다 사람이니 四七 안드레와 베드로와 갓치 혼성 사람이라 빌립이
 四八 나다나엘을 차자 보고 날으되 四八 모세의 룰법에 기록한 바와 여러 선지자의

四六 귀룩한 이를 우리가 맛났스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나다나엘이
 四七 그를 보되 나사렛에서 무슨 션한 거시 나갓느냐 하니 빌립이 그를 보되 와 보라
 四八 함더라 예수가 나다나엘이 오는 거슬 보시고 마른 채 그를 사되 이 사람이
 四九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니 간사한 거시 업도다 나다나엘이 그를 보되 엿더께
 五〇 나를 아시는 잇가 예수니 대답하야 그를 사되 빌립이 나를 부르기 전에
 五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잇슬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五二 하느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님 군이로소이다 예수니 대답하야 그를 사되
 五三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五四 일을 보리라 하시코 또 그를 사되 진실노 진실노 너희게 낄노니 하늘이
 五五 열니고 하느님의 스자가 인조 우에 오르락 내려락 하는 거슬 보리라
 五六 하시더라
 五七 사흘 후에 갈릴니가나에 혼인이 잇서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五八 그 데즈들도 혼인에 청하야 갔더니 포도주가 진할 때 예수의 어머니가
 五九 예수더러 낄노라 포도주가 업다 하니 예수니 그를 사되 너인이여 나와

一 무슴 상관이 잇는요 내 새가 아직 나르지 못하였는이다 그 어머니가 모든
 二 하인드러 낄노라 너희게 낄노시는데로 못할라 하시더라 거기서 유대인의
 三 열례를 사라 돌항아리 여섯이 노헛스니 띠 항아리에 물을 부어 채우라 하시되 항아리
 四 지라 예수가 더희드러 낄노라 사되 항아리에 물을 부어 채우라 하시되 항아리
 五 아구까지 채우니 또 그를 사되 썬 썬 찰취 맛흔 사름을 주라 하시되 못썬다
 六 주엇더니 찰취 맛흔 사름이 맛보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스나 어딴서 난지
 七 아지 못하되 물 썬은 하인들은 알더라 찰취 맛흔 사름이 신랑을 불러
 八 말하되 사름마다 문져 요흔 술을 내여 손이 잘 먹은 후에 노흔 술을 내거늘
 九 그디가 지금까지 요흔 술을 두엇다 하시니 이 거슨 예수의 처음이 접이라
 一〇 갈릴니가나에서 행하샤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데즈들이 믿더라 그 후에
 一一 예수가 그 어머니와 형제와 데즈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샤 몇칠
 一二 계시지 못하시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갓가온지라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一三 올라가샤 성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이 파는 사름들과 돈 밧고는 사름
 一四 들이 안즌 거슬 보시고 노흔으로 채씩을 문드샤 모든 소와 양들을 성년

16 에서 내여 쫓치시고 돈 밧고는 사람의 돈을 쫓으시며 상을 업치시고 또
 17 비뚤이 파는 사람을려 낚으샤 디이 물건을 가져가고 내야 바지의 짐으로
 18 장스고는 집을 삼지 말나 하시거늘 데즈들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니 낚넛
 19 스티 쥬의 면을 위하야 근절하거시 나를 삼켜 멸하게 하리라 하였더라
 20 그런코로 유대인이 무려 곁으 디 네가 이 일을 행할진대 무슨 표적으로
 21 우리의게 보이겠는뇨 예수 디 답하야 곁으 샤 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나
 22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니르리라 하시니 유대인이 곁으 디 이 성전은
 23 스십륙년 만에 지엇거늘 내가 삼일 만에 니르거겠는뇨 하더라 이러케
 24 말씀하심은 성전으로 지괴 몸을 비유하심이니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25 후에 데즈들이 이 말씀하신 거슬 생각하고 성경과 밧 예수의 말씀을
 26 밧더라 ○ 유월절을 당할 때에 예수가 예루살렘에 계시니 여러 사람이 그
 27 행하신 이적을 보고 그 일흥을 밧으나 예수는 그 몸을 더히게 의탁지
 28 아니하심은 사람의 속을 아심이러라

3 바리새교인 중에 니코데모라 하는 사람이 잇스니 유대 관원이라 이 사람
 4 이 밤에 와서 예수를 보고 곁으 디 랍비여 우리가 선성책서 하는 님씨로 프러
 5 오신 선성인 줄 아는 이다 하니 님이 흠씩 계시지 아니하시면 선성의 행하시
 6 는 이적을 아모 사람도 하지 못함이니 이다 예수 디 답하야 곁으 샤 디 진실노
 7 진실노 네게 낚으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님 나라를 보지 못
 8 하는 나라 니코데모가 곁으 디 사람이 늙으면 엇더케 나갓습는 잇가 두번
 9 어미 비 속에 드러갓다가 날수 잇습는 잇가 예수 디 답하샤 디 진실노
 10 진실노 네게 낚으노니 물과 성신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는 님 나라에 드러가
 11 지 못하니 육신으로 난 거슨 육신으로 나지 못하니 너는 거슨 나야
 12 하갓다 하는 말을 괴이히 녀이지 말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소리를 드러도
 13 어디셔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지 못하니 성신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
 14 하니라 니코데모가 디 답하야 곁으 디 엇지 이러 할일이 잇갓습는 잇가 예수
 15 디 곁으 샤 디 네가 이스라엘의 선성이 되여 이러 할 일을 아지 못하니 진실노
 16 진실노 네게 낚으노니 우리 아는 거슬 말하코 본 거슬 증거하되 너희가

三四

三五

三六

참되시다 하야 인을 쳇는 나라 하는님의 보내신이는 하는님이 성신을 한량
 업시 주셨스매 하는님의 말씀을 하시니라 아바지가 아들을 사랑하샤
 만물을 다그 손에 주셨스니 아들을 밋는 사람의게는 영성이 잇고 아들을
 밋지 아니하는 사람은 영성을 잇지 못하교 하는님의 진노하심이 그 우에
 잇는 나라

四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예수의 데즈를 삼고 제례를 주는 거시 요한보다 만타 하는 말을 바리새
 교인이 드른 줄을 유가 아시니 예수는 제례를 주신 거시 아니오 데즈들이
 좀이러라 유대를 썬나샤 다시 갈닐니로가 실사 사마리아 가온디로 지나야
 하겠는 지라 사마리아에 잇는 수가라 하는 성에 나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을
 요셉의게 준 싸이 갓갑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잇는 지라 예수가 길을
 가시매 곧하샤 우물 몇해 안즈시니 때가 오정쯤 되엿는 지라 사마리아
 녀인 하나 이 물을 길너 왔거늘 예수 | 글으샤 디 물을 좀 달나 하시니 그
 때에 데즈들은 먹을 거슬 사러 성에 드러갓더라 사마리아 녀인이 글으 디
 그대가 유대인이 되여서 엿지하야 나 사마리아 녀인드려 물을 달나

+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하느냐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예수 |
 디 답하야 글으샤 디 네가 만일 하는님이 주신 것과 또 너드려 물을 좀 달나
 하는이 가 누구인 줄 알앗다면 내가 그의게 구하엿스리니 그가 성슈를 내게
 주엇스리라 하신디 녀인이 글으 디 유여 물을 그릇도 업고 이 우물이 또
 깊흐니 어디서 성슈를 엿겠습는 잇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
 의게 주어 더와 더의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엇스오니 그디가 엿지 야곱
 보다 더크니 잇가 예수 | 디 답하야 글으샤 디 이 물을 먹는 사람마다 다시
 목므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므르지 아니할지니
 나 주는 물이 그 속에서 심이 되여 영성하도록 솟스리라 하신디 녀인이
 글으 디 유여 이런 물을 내게 주샤 목므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여긔와셔
 이 물을 기지 아니하게 하옵쇼셔 예수 | 글으샤 디 네가 가서 남편을 불너
 오라 하신디 녀인이 디 답하야 글으 디 남편이 업는이다 하니 글으샤 디
 네가 남편이 업다 하는 말이 올도다 네가 이전에 남편 다섯이 잇서스나
 시방 잇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하신디 녀인이 글으 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레비하였거니와
 너희 말은 레비하를 곳시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 그리스도 사도 너희 인
 아나를 밋으라 썩어가 너리니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너희가 아버지
 썩 레비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지못하는 거슬 레비하교 우리는 아는
 거슬 레비하노니 구원함이 유대인의게서 낫는지라 썩가 니르려너와
 이제도 그 썩라 아버지 썩음으로 레비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리로 레비
 하리니 아버지 썩이 및치 조그의게 레비하는 사람을 차지시니 니라
 하느님은 신이신교로 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레비할지니라 너희 인이
 글으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신 메시야가 오실줄을 아노니 오시면 모든 거슬
 우리의게 말씀하시리이다 예수가 너희 인드려 낫으샤 되 너드려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더라 이 썩에 데즈들이 도라와셔 예수가 너희 인과 및치 말씀
 하심을 보고 이상히 녀어나 무어슬 구하며 또 엇지하야 너희 인과 말씀하옵
 는 잇가 못는 사람도 업더라 너희 인이 물동의를 낫코 성에 드러가셔 여러

그리스도인가 하니 너희가 성에 나가셔 예수씨로 오더라 그 사이에 데즈
 들이 간청하야 글으되 랍비여 음식을 잡수쇼셔 하니 글으샤 되 내게 먹음을
 랍식이 잇는디 너희가 아지못한다 하시니 데즈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거슬 드렸는가 하되 예수 그리스도 사도 나를 보내신의 뜻을 좇차
 그 일을 온전히 일우는 거시 나의 랍식이라 너희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지나야 곡식 거둘 썩가 니르겟다 하시니 내가 너희게 낫으노니
 눈을 드러 밋출 보라 곡식이 니어 임의 누르렛스니 가히 거둘지라 거두는
 사람이 사도 엇고 곡식을 영성하도록 썩하 썩 썩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및치즐거워할지라 그런즉 속담에 낫으되 흐른 사람이 심으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올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여 전에 슈교하거
 아니한 거슬 거두게 하노니 다른 사람이 슈교하였스매 너희는 그 슈교하
 거슬 밋앗다 하시더라 너희 인이 증거하야 글으되 그 사람이 나의 형호
 예수를 밋는지라 그런교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와서 보고 너희와 및치

二 제시기를 청하니 예수가 거기서 잇흐를 제시매 예수의 말씀을 듯고 밋는
 三 사람이 더 만하^크 그 녀인드려 말하되 우리가 시방 네 말을 인하여 밋는
 四 지나매 예수가 거기서 떠나서 갈닐니로 가시며 천히 증거하기를 선지
 五 자가 교향에서는 능힘을 밋지 못하도 하시고 갈닐니에 이르시니 갈닐니
 六 사름들이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절과 직혈 때에 못치 참여하야 여러 하신
 七 일을 본고로 되접하더라 ○ 예수가 또 갈닐니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노
 八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잇서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
 九 드렸더니 예수가 유대로부터 갈닐니로 오심을 듯고 곧 가서 보이고
 一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못치 주쇼셔 하니 그의 죽게 됨이라 예수
 二 | 그으샤되 이적과 괴스를 보지 못하면 도모지 밋지아니하라 하신되
 三 신하가 그으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쇼셔 하거늘 예수 |
 四 그으샤되 도라가라 아들이 살았다 하신되 그 사름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五

一 살았는이다 하거늘 유인이 무르되 어느 때브러 나았는나 하니 되답하되
 二 어제 미시에 열기가 업서졌다 하노지라 그 아버가 때를 짐작하야 보니
 三 예수께서 말씀하샤되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 때라 그러함으로 그
 四 사름과 인집이다 밋으니 이 거슨 예수가 유대에서 갈닐니로 도라오신
 五 후에 두번째 청하신 이적이러라
 六 그 후에 유대인의 절과가 니르매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 ○
 七 예루살렘에 잇는 양문 것해 혼 못시 잇스니 히브리 말노 벳에스다라 항랑
 八 다숫시 잇는되 그 안에 수흐 병인과 소경과 절뚝발이와 혈기 무른 사름
 九 들이 누엇스니 거기 설흔여 몹히 된 병인이 잇더라 예수가 그 누은 거슬
 一 보시고 병이 오랜줄 아시고 무르샤되 내가 낫고져하느냐 하시니 병인이
 二 되답하되 주여 물이 동흐를 때에 나를 붓드러 못세 드러가게 할 사름이
 三 업스매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름이 묻져 드러가느이다 하거늘 예수 |
 四 그으샤되 내려가서 네 자리를 가지고 거러가라 하시니 그 사름이 곧 나
 五 아서 자리를 가지고 거러가더라 ○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이 병나온

十一 사 례 드려 낄으 디 안식 일 인 디 네가 자리를 가져 가는 거 시 올치 아니 하 니 라
 十二 디 답 하 디 나를 낮 게 하 신 그 사 례 이 자리를 가지 고 거 러 가 라 하 시 더 라
 十三 하 디 또 무 르 디 자리를 가지 고 거 러 가 라 하 던 사 례 이 누구 나 하 되 병 나 온
 十四 사 례 이 그가 누구 신 지 아 지 못 하 니 이는 거 기 사 례 이 만 흠 으 로 예 수 가
 十五 임 의 피 하 심 이 러 라 그 후 에 예 수 가 성 면 에 서 그 사 례 을 맞 나 낄으 사 디
 十六 네 가 나 앓 스 니 다 시 는 죄 를 범 치 말 고 더 큰 중 제 가 발 할 가 념 려 하 라
 十七 하 시 니 그 사 례 이 곳 유 대 인 의 게 가 서 말 하 디 병 낫 게 하 신 사 례 이 예 수 라
 十八 하 니 안 식 일 에 이 러 하 일 을 행 하 심 으 로 유 대 인 들 이 예 수 를 핍 박 하 거 늘
 十九 예 수 가 더 희 게 낄으 사 디 내 아 바 지 썩 서 지 금 사 지 일 을 하 시 매 나 도 또
 二十 일 을 하 다 하 시 니 유 대 인 이 이 를 인 하 야 더 욱 죽 이 고 저 흠 은 안 식 일 만
 二十一 범 할 썩 아 니 라 하 는 님 을 그 아 바 지 라 하 야 저 기 가 하 는 님 과 일 데 라 흠 이
 二十二 러 라 ○ 그 런 고 로 예 수 가 무 리 의 게 낄으 사 디 내 가 진 실 노 진 실 노 너 희 게
 二十三 낄으 노 니 아 들 이 아 바 지 의 행 하 신 일 을 본 외 에 는 아 모 것 도 스 스 로 할 수
 二十四 없 니 아 바 지 의 행 하 시 는 거 슬 아 들 도 또 그 와 같 치 행 하 니 라

二十五 아 바 지 썩 서 아 들 을 스 랑 하 사 그 행 하 시 는 거 슬 다 보 이 시 고 또 그 보 다 더 큰
 二十六 일 을 보 아 사 너 희 로 기 이 히 녀 이 게 하 시 리 라 아 바 지 썩 서 죽 은 사 례 을
 二十七 다 시 살 니 심 곳 처 아 들 도 또 하 고 저 하 는 자 를 살 니 리 라 또 아 바 지 썩 서
 二十八 아 모 사 례 도 심 판 하 지 아 니 하 시 고 심 판 할 일 을 다 아 들 의 게 맞 기 사
 二十九 사 례 으 로 다 아 들 을 공 경 하 기 를 아 바 지 공 경 하 는 것 곳 처 하 게 하 셧 스 니
 三十 아 들 을 공 경 처 아 니 하 는 자 는 아 들 을 보 내 신 아 바 지 를 공 경 처 아 니 하 는 니 라
 三十一 내 가 진 실 노 진 실 노 너 희 게 낄으 노 니 내 말 을 들 고 또 나 보 내 신 이 를 밋 는
 三十二 사 례 은 영 성 을 엇 고 영 죄 하 는 디 니 르 지 아 니 하 리 니 스 망 에 서 나 와 서 성 명
 三十三 으 로 드 러 갖 는 니 라 내 가 진 실 노 진 실 노 너 희 게 낄으 노 니 새 가 니 르 려 니 와
 三十四 이 제 도 그 때 라 죽 은 사 례 이 하 는 님 아 들 의 소 리 를 드 르 리 니 들 는 자 는
 三十五 살 아 니 리 라 아 바 지 썩 서 저 기 속 에 성 명 이 잇 스 매 그 와 같 처 아 들 의 게
 三十六 주 사 그 속 에 도 성 명 이 잇 게 하 시 고 또 인 즈 됨 을 인 하 야 심 판 하 는 권 세 를
 三十七 주 셧 스 니 이 러 하 일 을 기 이 히 녀 이 지 말 나 새 가 니 르 리 니 무 덤 속 에 잇 는
 三十八 사 례 이 다 그 소 리 를 들 고 나 오 디 착 하 일 을 행 하 는 사 례 은 성 명 의 부 활 을

三十一 밧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밧으리라 ○ 내가 아모 것도
 스스로 할수 업고 뜻는대로 심판하노니 내 심판은 공변되리라 이는 내
 三十二 뜻대로 하라는 거시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 의 뜻대로 하라는 거시
 三十三 아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야 증거하면 참 증거가 아니라 나를 위하야
 三十四 증거하는이가 따로 잇스니 나를 위하야 증거하신 거시 참인줄 아노라
 三十五 너희가 전에 사람을 요한의게 보내엿거니와 그가 진리를 위하야 증거
 三十六 하였는니라 내가 증거 밧는 거시 사람의게 밧는 거시 아니오 이 못치 말롱는
 三十七 거슨 너희로 하여곰 구원을 엿게 하려함이로라 요한은 쳐서 밧최는
 三十八 등불이니 너희가 일서 그 빛채 즐거히 잇기를 원하엿거니와 요한의 증거
 三十九 보다 더 큰 증거가 내게 잇스니 아버지 썩셔 내게 주샤 일우게 하신바 곧
 四十 나의 형은 일은 아버지 썩셔 나를 보내신 거슬 나를 위하야 증거하
 四十一 는 거시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 썩셔 임의 나를 위하야 증거하섯거니와
 四十二 너희는 아모 때에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하코 그 형용을 보지 못하엿는지라
 四十三 그 말슴이 너희 마음에 잇지 아니하니 이는 보내신 이를 밧지 아니함이니라

六

三九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슨 그 속에 영성이 잇는줄 아는 거시니 이 성경
 四十 이나를 위하야 증거하는 거시 되니 너희가 내게 와서 성명 엿기를 원하
 四十一 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사람의게 영광을 취치 아니하노라 너희를 아노
 四十二 는님을 사랑하는 거시 너희 마음에 업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일함으로
 四十三 와도 디접지 아니하니 다른 사람이 제 일함으로 오면 디접하리라 너희가
 四十四 서로 영광을 취하코 홀노 하나이신 하나님 썩셔 오는 영광은 구하
 四十五 지 아니하니 엿지 나를 밧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 썩셔 송스 할가 생각지 말나
 四十六 송스 하는자가 하나이 잇스매 곳 모세니 너희가 브라는차라 모세를 밧
 四十七 면도 나를 밧엇스리니 그 쓴 글에 나를 부르섯스나 그 글도 밧지 아
 四十八 니하거든 엿지 내 말을 밧겠느냐 하시더라
 四十九 그 후에 예수가 갈릴니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곳 티베랴 바다라 하
 五十 다 하더라
 五十一 구리가 쓰르논 거슨 병든 사람의게 이적 행하신 거슬 봄이라 예수가
 五十二 산에 오르샤 데즈들과 못치 거의 안드신지라 그 때에 유월절이 갓가오니
 五十三 이는 유대인의 절과라 예수가 눈을 드러 하도흐 무리가 오는 거슬 보시코

六 빌납드려 날으샤되 우리가 어디셔 썩을 사셔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七 하시니 이는 예수가 친히 었더케 할 거슬 아시고 빌납을 시험코져 하야 이
 八 말씀은 중심이라 빌납이 되담하되 이 비량앗치 썩을 사셔 각 사람이 조곰씩
 九 먹어도 부족하리이다 하되 데즈 시몬 베드로의 아오 안드레가 예수씩 었즈
 十 오디 여귀 혼으 회가 잇서 보리 썩 다 솟덩이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졌스나
 十一 이 솟흔 사람의 게 얼마 되겟습는 잇가 예수 글으샤되 이 사람들을 안케
 十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의가 만흔지라 사람이 다 안즈매 수효가 오천 즘
 十三 되더라 예수가 썩을 가지시고 축샤하신 후에 안즌 사람을 눈화주시고
 十四 고기도 썩여려 사람의 먹는데로 주샤 다 비부르매 예수가 데즈드려 날으
 十五 샤되 늙은 부스럭이를 거두고 내여 버리지말나 하시니 보리 썩 다 솟덩이로
 十六 여려시 먹고 늙은 부스럭이를 거두니 열두 광유리에 그득흔지라 여려
 十七 사람이 예수의 힘하신 이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十八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가 너희들이 와서 었지로 즈기를 남군으로 삼으라
 十九 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물러가시더라 날이 저물매 데즈들이

一 바다 가에 내려와셔 비를 두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하더니
 二 썩가 어두었는디 예수는 아직 오시지아니하시고 썩곤 바람이 부러 파도
 三 가 나려나는지라 데즈들이 비를 져어 심여리 즘가다가 예수가 바다를
 四 밟고 점점 비로 갖가히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글으샤되 내니 두려워
 五 말나 농신디 데즈들이 깃버 마자 비에 오르시게 하니 비가 흘연이 가고져
 六 하는 썩에 니르렛더라 잇흔날 바다 건너 편에 섰는 무리가 비 흐척 밧게
 七 다른 비 업습을 보고 썩 예수가 데즈들과 궤치그 비에 오르지아니하시고
 八 데즈들만 간줄 알앗더니 두어 척 적은 비가 디베랴에서 오니 곳 쥬씩셔
 九 축샤하신 후에 여려시 썩 먹던 곳에 갖가온지라 무리가 예수와 데즈들이
 十 여귀 업습을 보고 곳 비들을 두고 예수를 차지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十一 건너 편에서 맛나매 글으되 랍비여 어느 썩에 여귀 오섯는 잇가 하니
 十二 예수 디답하야 글으샤되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께 날으노니 너희가
 十三 나를 찾는 거슨 이적을 본 사들이 아니오 썩을 먹고 비부른 사들이로다
 十四 썩을 량식을 위하야 일하지말고 영성하도록 잇슬 량식을 위하야 흘지어다

이 거슨 인자가 너희의게 줄거시니 더는 아버지 하는님이 인치신자니라
 너희가 무르디 우리가 엇더케 하여야 하는님의 일을 호오릿가 예수
 디 답호야 글으샤디 하는님의 보내신자를 밋는 거시 하는님의 일이니라
 또 무르디 무슴이적을 행호야 우리로 보고 밋게 호며 무슴일을 호시겟
 는잇가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엇스니 성경에 날넛스디 하늘에서
 느린 량식을 주어 먹게 호셧다 호엿는이다 하니 예수 날샤디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게 날노니 하늘에서 느린 량식이 모세가 준 거시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 하는 하늘에서 참 량식으로 너희게 주시니 하는님의
 량식은 하늘에서 느린 량명을 제상 사람의게 주시는 거시라 호신디 너희가
 글으디 주여 호상이 량식으로 우리를 주쇼셔 호거늘 예수 글샤디 내가
 꽃성명의 량식이니 내게 오는 사람은 비곱호지 아니호터이오 나를 밋는
 사람은 영원히 목무르지 아니호리라 전에 내가 너희드려 날을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밋지 아니하는도다 호엿거니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자는
 아버지로 올 거시오 또 내게 오는자를 결단코 내어보리지 아니호리라

내가 하늘노셔 느려온 거슨 내 뜻을 행호라는 거시 아니오 나를 보내신이
 의 뜻을 행호려함이니 내게 주신자는 내가 하나도 일허브리지아니호교
 모조막 날에 다시 살닐터이니 아 거시 나를 보내신이의 뜻이라 아들을
 보고 밋는 사람은 다 영성을 엇을터이니 이 거시 내 아버지의 뜻이라
 또 모조막 날에 내가 다시 살니리라 호시더라 ○ 조리가 하늘노셔 느려온
 량식이라 호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원망호야 글으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지못하는나 제가 지금 엇지호야
 하늘노셔 느려왔다 호는나 하니 예수 디 답호야 글으샤디 너희는 서로
 말호야 원망호지말나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잇설지아니호면 아모
 던지 내게 올수 업스니 오는 사람은 내가 모조막 날에 다시 살니리라
 선지자의 글에 날넛스디 너희가 다 하는님의 무르침을 밋으리라 호엿
 는교로 아버지의 말씀을 듯고 비호는 사람마다 내게로 오리니 이는 누가
 아버지 보앗다 함이 아니오 오직 하는님의게서 온자만 아버지를 보앗다
 함이라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게 날노니 밋는 사람은 영성이 잇는니

내가 곧 성명의 양식이로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그 후에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노셔 내려온 양식이니 사람이므로 하여곰 먹고 죽지
 아니 할게 홀지라 나는 하늘노셔 내려온 성명의 양식이니 사람이 이 양식
 을 먹으면 영생 할리라 내가 줄 양식은 곧 내 살이니 제상 성명을 위하야
 주는 거시로라 하시더라 ○ 이럼으로 유대인이 서로 다도와 골으디 이
 사람이 엇지 능히 제 살을 우리의게 주어 먹게 할겟느냐 하니 예수
 닐으샤디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게 닐으노니 인종의 살을 먹지아니
 하고 인종의 피를 마시지아니 하면 너희 속에 성명이 업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잇고 못막 날에 내가 다시 살닐
 터이니 내 살은 참먹을 거시오 내 피는 참 마실 거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살야게신
 아바지씩셔 나를 보내시매 나도 아바지로 하야 사노니 나를 먹는 사람도
 이 못치나로 하야 살니라 이 거시 하늘노셔 내려온 양식이니 너희 조상이
 먹어도 죽은 것 못지안코 이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니라 하시니라

말씀은 예수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사람을 그르치실 때에 하시니
 이리라 ○ 데즈들이 듣고 여러시 말하디 이 말씀이 어려오니 누가 능히
 참아 드겟느냐 하시더라 예수가 스스로 데즈들이 이 말씀을 원망하는 줄
 아시고 골으샤디 이 말이 너희게 슬흐나 너희들이 인종가 이전 잇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엇더케 할라느냐 살너주시는 이는 신이시니 육신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게 닐은 말이 신이 오또 성명이니 그러나 너희 중에
 밋지아니 하는 사람이 잇느니라 하시심은 예수씩셔 처음부터 밋지아니 하는
 자가 누구며 장차 잡아줄 자가 누구지 아심이라 또 골으샤디 이러함으로
 전에 말하기를 내 아바지씩셔 오게 하야 주지아니 하시면 사람이 내게 물을
 업다 하였노라 하시더라 ○ 이로써 데즈들이 만히 물너가고 다시 쓰르치
 아니하시더라 예수가 열두 데즈드려 닐으샤디 너희도 또 가고져하느냐
 하시디 시몬 베드로가 디답하디 주여 영생하는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릿가 우리가 주씩셔 하는님의 거룩하신 줄이 왕브터 밋고
 아옵는이다 예수 디답하샤디 내가 너희 열두 사람을 택하지아니

11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12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라 그도 열둘 중에 하나이니 장차
 13 예수를 잡아 죽일 사람이라
 14 이후에 예수가 갈릴리로 건너시고 유대로 건너지 아니하려 함은 유대
 15 인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절기가 갓 오니 이는 장막절이라 그런
 16 고로 예수의 동생들이 날으러 가서 데즈들노 하여 고크
 17 당신의 형은 일을 보게 하소서 일함이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못쳐서
 18 일하는 사람이 업스니 이 일을 형이라거든 스스로 제상에 나타나라
 19 함은 그 동생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 가리키사 내는
 20 아적 나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항상 잇는니 세상이 너희를
 21 위워 하지 못하나 나를 위워 하느니 이는 내가 그의 하는 일이 악함을
 22 증거 함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라 나는 아직 절기를 지키러
 23 가지 아니함은 내 과약이 아적 초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24 갈릴리아에 계시라 ○ 그 동생들이 올라간 후에 예수도 절기를 지키러

25 올라가실시 나타내게 가지 아니하시고 그 만히 가지니라 절기를 당할 때
 26 유대인들이 예수를 차자 끌으러 이르되 잇느냐 하고 예수를 인하여 여러
 27 사람 가운데서 변론이 만하 혹은 착한 사람이라고도 하며 혹은 끌으러
 28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고도 하나 바히 의논하는 사람이 업스니
 29 이는 유대인을 두려워 함이라 ○ 절기 가운데 날에 예수가 성전에
 30 오르샤 사람을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괴이히 녀려 끌으러 이 사람이
 31 비호지 아니하였거늘 엿지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 가리키사 티답하야 가리키
 32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오나를 보내신이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33 뜻대로 하라 고하면 이 교훈이 하는 대로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느
 34 알니라 스스로 말하느자는 제 영광만 구하거니와 보내신이의 영광을
 35 구하느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한 거시 업느니라 모세가 너희를
 36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하나도 직히는 사람이 업고 엿지하야 나를
 37 죽이라 하였느냐 하시니 무리가 티답하되 너는 사귀들녘도 다 누가 너를
 38 죽이라 하였느냐 예수 가리키사 티답하야 끌으사 티 내가 한 가지 일
 39 형은 거슬

너희가 다 괴이히 여기는 것도 모세가 너희게 할례를 주었스니 실상은
 모세의게서 난 거시 아니오 조상의게서 난 거시라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의게 할례를 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밧는 거시 모세의 료법을
 어긋지 아니하려 함이니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온전히 밧쳐서 판단하라
 엿지 노여워함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써 판단하라
 하시더라 ○ 예루살렘 사람이 중에서 흠이 말하되 우리가 죽이고져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니냐 시방 드러나게 말하되 너희가 아모 말도 업스니
 엿지 관원들이 이 사람을 참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되로 오시는지
 이 사람이 어되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되로 오시며
 아는 사람이 업스리라 하니 예수가 성전에서 사람을 마르치시며 웨쳐
 이르샤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되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거시 아니로라 오직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아지 못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의게서 나고 또 온 그가 나를 보내심이라 하시
 너희가 예수를 잡고져 하나 손을 드러 잡는 사람이 업스니 이는 그 때

아직 니르지 아니함이라 무리 중에 사람이 만히 밧고 말하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행할 실이 적어 엿지 이 사람의 행할 것보다 더 만하리라
 바리새교인이 무리의 만히 의논하는 거슬 듯고 제스제장으로 더 브러
 관속을 보내여 잡으라 하니 예수 일샤되 내가 잠시 너희와 못
 잇다가 나를 보내신 의게로 도라가겠스니 너희가 나를 차자도 밧지 못
 할터이오 나 잇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 유대인이 서로
 무려 이르되 이 사람이 어되로 가기에 우리가 더를 밧지 못하리오
 헬나 사람 중에 호쳐 사는 유대인의게로 가서 헬나 사람을 마르칠터인가
 제 말이 나를 차자도 밧지 못하리오 나 잇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 거시 엿지 한 말이냐 하시더라 ○ 절과 낫 날은 큰 날이라 예수가
 서서 웨쳐 이르샤되 사람이 목무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사람이
 나를 밧으면 성경에 날음 못치 그 비에서 성수가 강 못치 흐르리라 하시
 이는 밧는 사람의 밧을 성신을 말슴하신 거시니 이 때에 성신이 느리지
 아니함은 예수가 아직 영광을 엿지 못함이라 무리가 이 말슴을 듯고

一 혹은 참으로 선지자라고도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고도 하며 혹은 그리스도가
 二 었지 같닐니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날으시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三 자손이 될터이니 다윗의 고향 벧을내헴 촌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
 四 는나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변론이 되니 그 중에 잡고져 하는
 五 사람이 잇스나 손을 드러 잡지 못하더라 ○ 관속이 도라와서 제사장파
 六 바리새교인을 보니 너희가 무르디 었지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혼디
 七 관속이 대답하되 그 사람 못치 말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업디이다 하니
 八 바리새교인이 그을이 너희도 또 미혹하였느냐 관원이나 바리새교인 중에
 九 밋는이가 잇느냐 이 무리가 룰법을 아지 못하니 저주를 받으리로다 그
 一〇 중에 니코데모는 전에 와서 예수를 본 사람이라 그 사를드려 말하되 우리
 一一 룰법에 사람의 말도 듯지 못하고 그 형은 것도 아지 못하고 문져 죄 주겟
 一二 는나 너희가 그의게 디답하야 그을이 너도 또 같닐니에서 왔느냐 이제
 一三 상고하야 보라 같닐니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리라 하더라 ○ 각각 집으로

八

一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섯다가 알은 아침에 다시 성원으로 드러오시니
 二 백성들이 다 오거늘 안조샤 그르치시더니 혼계집아 음행하다가 잡힌지라
 三 서기관과 바리새교인이 그을고 예수막로 와서 가온다 세우고 말하되
 四 선장이여 이 계집이 음행하다가 당장에 잡혔스나 모세를 룰법에 우리를
 五 명하야 이러흔 계집은 돌로 쳐라 하였는지라 선성은 었더케 말갓갓습는 잇가
 六 함은 예수를 시험하야 송스할 빙거를 었고져 함이러라 예수가 몸을
 七 굽히샤 손가락으로 싸에 글시를 쓰시니 그 사를들이 못가를 마지 아니
 八 하는지라 나러나 그을이 너희 중에 누구던지 죄업는 사람이 문져 돌로
 九 치라 하시고 또 몸을 굽히샤 손가락으로 싸에 글시를 쓰시니 이 말슴을
 一〇 듯고 여룬 브러으희서 지났낫치다 나가고 예수만 계시고 계집은 그져 그
 一一 가온디 섰는지라 예수가 너러나셔 보시고 날으샤 디녀 인하여 너희가 어디
 一二 잇느냐 죄주는 사람이 업느냐 디답하되 주여 업는이다 예수 그을이 사디
 一三 나도 또 죄를 주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말나 하시더라 ○ 예수가
 一四 또 날너 그을이 사디 나는 세상의 밋치니 나를 쓰르는 사를은 어두은 디

十三 형까지 아니 하고 성명의 빛을 엮으리라 하시거늘 바리새 교인들이 이르되
 十四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하는 거슨 참되지 아니 하도다 예수
 十五 디답하시라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되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十六 내가 어딤서 오며 어딤로 갈 거슬 아나 너희는 내가 어딤서 오며 어딤로
 十七 갈 거슬 아지 못함이라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니 나는 아모 사람도
 十八 판단치 아니 하노니 만일 내가 판단하면 내 판단이 참되니 내가 혼자
 十九 잇는 거시 아니 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와 못치 계심이라 또 혼
 二十 너희를 법에 빌렛스되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하였스니 나는 나를
 二十一 위하야 증거하는 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야 증거하시느니라
 二十二 그럼으로 너희가 무르되 네 아버지가 어딤 잇느냐 예수 디답하시되
 二十三 너희가 나를 아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아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엇더면 내
 二十四 아버지도 알았스리라 하시니 이 말씀은 성령에서 마르치실 때에 연보케
 二十五 압해서 하였스나 잡는 사람이 엮는 거슨 새가 나르지 아니 함이러라 ○ 또

三 가는 곳은 너희가 나르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관 곳에 우리
 四 는 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더가 저결하려 함인가 이르되 너희는 아래서 나고
 五 나는 위에서 나스매 너희는 이 세상에 붓고 나는 이 세상에 붓지 아니 하
 六 고로 너희 드러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온 되서 죽으리라 하였스니
 七 내가 내 인줄을 너희가 믿지 아니 하면 너희 죄 가온 되서 죽으리라 하시되
 八 너희가 말하시니 내가 누구냐 예수 이르되 내가 처음부터 너희게 말하
 九 자니라 내가 너희를 말하고 판단할 거시 만히 잇스니 나를 보내신이가
 十 참되시매 내가 보내신이의게 드른 거슬 세상 사람의게 말하노라 하시니
 十一 너희는 아버지를 마르쳐 말씀하신 줄을 쳐듯지 못하더라 예수 가 또 이르
 十二 되 너희는 인지를 듣 후에 내가 내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모 것도
 十三 하지 아니 하고 아버지가 마르쳐신 대로 내가 말하노라 알나라 나를 보내
 十四 신이가 나와 못치 계시니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시느 거슨
 十五 내가 항상 그 깃버하시느 일을 행함이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매 여러
 十六 사람이 믿더라 ○ 예수가 또 임의 밋은 유대인 드러 빌렛스되 너희가 내

삼십칠

도에 흥상잇스면 참내 데즈가 될터이오^{三三} 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노하주리라 너희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조손이라 전보터^{三三} 너의
 종이 되지아니^{三三} 흥엇거늘 엇지 우리를 노하주리라^{三三} 흥느나 예수나^{三三} 대답
 하샤^{三三}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게 낄^{三三} 노니 죄를 범호는 사람은 다 죄의
 종이라^{三五} 좋은 영원히 집에 잇지못호되^{三五} 아들은 영원히 잇느니^{三六} 그런고로
 아들이 너희를 노하주면 너희가 참 노히리라^{三七} 나도 알거니와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손이로되 나를 죽이고져호는^{三八} 거슨 내 도가 네 믿음에 잇슬
 곳이 업슴이로다 내가 말호는^{三八} 거슨 내 아버지의게서 본 거시오 너희가
 흥호는^{三八} 거슨 너희 아버지의게 드른 거시니라^{三九} 대답하야^{三九} 글^{三九} 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흥느^{三九} 예수나^{三九} 샤^{三九} 디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흥호터이^{四〇} 어늘^{四〇} 지금 나를 죽이고져호는도다 나는
 하늘의 아들인지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의 일을 흥호는도다^{四一} 대답하되 우리가
 음관호^{四二} 터져 나지아니^{四二} 흥엇고 아버지가 흥호는^{四二} 터져 나지아니^{四二} 흥엇고

예수나^{四三} 글^{四三} 샤^{四三} 디 흥느^{四三}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면 너희가 나를 사랑호지라 내가
 하늘의 아들이니^{四四} 흥엇거야 내 말을 아지못호는나 내 도를 듯지못호는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의게서 낳스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흥호고
 저호는^{四五} 니라 처음보터^{四五} 더가 살인호자니 진리에 속호지아니^{四五} 흥은^{四五} 더의
 믿음에 진리가 업슴이오^{四五} 거듯 말호는^{四五} 거슨 믿음에서 나오는대로 말호는
 거시니 거듯 말호는^{四五} 자도 되고 거듯 말호는^{四五} 자의 아버도 되엿느니라 내가
 진리를 말호는^{四五} 으로 너희가 나를 밋지아니^{四五} 흥느^{四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나 내가 진리를 말호매 엇지호야 나를 밋지아니^{五六} 흥느^{五六} 나는 너희가
 속호는^{五六} 사름은 하늘의 말씀을 드를터이로되 너희가 듯지아니^{五六} 흥은^{五六} 너희가
 하늘의 말씀을 속호지아니^{五六} 흥은^{五六} 이로다 유대인이^{五六} 대답하야^{五六} 글^{五六} 디 우리 말은^{五六} 네가
 사마리아 사름이오^{五六} 또 샤^{五六} 귀가 들녘다^{五六} 흥는^{五六} 말이 올치아니^{五六} 흥냐^{五六} 예수나^{五六}
 디^{五六} 답하샤^{五六} 디 나는 샤^{五六} 귀 들닌 거시 아니라 다만 내 아버지를 공경호는^{五六} 아어늘
 너희가 나를 욕호는^{五六} 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치아니^{五六} 흥나 구호시고 판단호

시논이가 계시니라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드려 낚으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직히면 죽는 거슬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유대인이 그르디 우리
 지금네가 샴귀들 낚음을 아노라 아브라함도 죽고 여러 선지자도 죽었거늘
 네가 말하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직히면 죽는 거슬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하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거늘 너는 그보다 더 크며 여러 선지자도
 죽었거늘 너는 누구라 하느냐 예수 디 답하샤 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 영화가 헛되려니와 나를 영화롭게 하시논 이는 내 아바지시니
 너희가 말하느바 너희 하느님이시라 너희는 아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내가 아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 못치 거듯 말하느자라 나는 알고 또 그
 말씀을 직히노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거슬 즐거워하다가
 보고 깃버하였는니라 유대인이 그르디 내가 나 이 오십도 못되여 아브라함
 을 보았느냐 예수 글샤 디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드려 낚으노니
 아브라함이 잇기 전에 내가 잇는니라 하시니 너희가 돌을 드리치려 하거늘

九

예수가 길 가실 때에 나면서 눈먼 사람 하나를 보시니 때 즈음이 무려
 글으 디 랍비여 이 사람이 나면서 눈먼 거시니 귀 되닛가 제 되닛가 제 부모의
 죄닛가 예수 디 답하샤 디 이 사람이 죄를 범한 것도 아니오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니오 그의 계시 하느님의 하시는 거슬 드러내고져 하심
 이라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이의 일을 우리가 맛당히 행하거니와
 밤이 오면 사람이 일을 행할 수 업스리니 내가 제상에 잇서서는 곳 제상의
 빛치라 하시더라 말씀을 못초시고 짜에 출을 비앗하 친흠을 니이샤 그의
 눈에 바르시고 낚으샤 디 실노 암 못에 가서 씨스라 하시니 실노 암은 번역
 하면 보낸 뜻이러라 가서 씨고 오매 보더라 리웃 사람과 밋전에 보고
 길인인 줄을 아던 사람들이 글으 디 이는 안져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니 혹은 그 사람이라고도 하며 혹은 말하디 아니라 그 사람 못다 고도
 하거늘 제 말이 내로라 하니 너희가 무르디 엇지 하야 네 눈을 씻느냐
 디 답하 디 예수라 하느 사람이 친흠을 니여 내 눈에 바르고 낚으려 실노 암
 에 가서 씨스라 하시기에 가서 씨섯더니 곳 분다 하니 너희가 글으 디 그

十三 사람이 어디 잇느냐 하니 이르되 글으되 아지 못한다 하더라 ○ 너희가 전에
 十四 눈머렸던 사람을 다리고 바리새 교인의게 가니 예수가 진흙을 너여 눈을
 十五 쓰게 하시니 날은 안식일이니 고로 바리새 교인이 또 엿지하야 보게 되었느냐
 十六 무르니 글으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노라 하니
 十七 바리새 교인 중에 혹은 말 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직히지 아니하니
 十八 하는 님새로 온 사람이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사람이 죄가 잇고셔 엿지
 十九 이러할 이적을 행하겠느냐 하야 피츨변론이 되었더니 또 눈머렸던이 드려
 二十 무르되 그 사람이 네 눈을 쓰게 하였스니 너는 그를 엿드려 사람이라
 二十一 하는냐 되 답하되 천지차라 하니 유대인이 눈머렸다가 보게 된 거슬
 二十二 밋지 아니하다가 그 부모를 불러 무르되 이 사람이 네 아들이냐 하면서
 二十三 눈머렸다 하는자냐 지금은 엿지하야 보느냐 하니 그 부모가 되 답하야
 二十四 글으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오 또 나면서 눈먼 줄도 아나 지금 엿지하야
 二十五 보는지 우리는 아지 못하며 누가 그 눈을 쓰게 하였는지 아지 못하는지라
 二十六

二十七 말하는 거슨 유대인을 무셔워함이니 유대인들이 의론을 임의 명하야
 二十八 누구던지 예수를 그리스도인 줄 안다 하면 회당에 쫓차 내여 보내갓다
 二十九 함이라 이럼으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데가 장성하니 드드려 무려 보라
 三十 하더라 너희가 본리 눈머렸던 사람을 두번재 불러 빌으되 너는 영광을
 三十一 하느 님새로 돌려 보내라 우리는 더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하니
 三十二 되 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아지 못하나 할 가지 아는 거슨 내가
 三十三 이 전에는 눈머렸다 가 지금은 보노라 하니 또 무르되 그 사람이 무슨 일을
 三十四 행하야 네 눈을 쓰게 하였느냐 되 답하되 내가 이제 너희게 빌너도
 三十五 듣지 아니하고 엿지하야 또 듣고 심흐나 너희도 그 데즈가 되라고 그리 하는냐
 三十六 너희가 곳씩 지져 글으되 너는 그 데즈나 우리는 모세의 데즈라 하는 님이
 三十七 모세의게는 말씀 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셔 왔는지
 三十八 아지 못하노라 그가 되 답하야 글으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쓰게
 三十九 하였스되 너희가 어디로 오신지 아지 못하노도다 하는 님이 죄인은 듣지
 四十 아니하시 고 하는 님을 경비 하며 그 뜻을 좃차 행하는 사람은 드르지는 줄을

우리가 아는지라 창세 이후로 나면서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함을 듯지
 못하였스니 이 사람이 하는 님씨로 보러 오지 아니하였스면 아모 일도
 행치 못하리라 너희가 대답하야 글으되 내가 온전히 죄가 온디서 나서
 우리를 무르치느냐 하고 또 쫓차 내여 보내더라 예수 너희가 쫓차
 보냈다 하는 말을 드르셨더니 그 사람을 만나야 글으샤되 내가 하는 님
 아들을 믿느냐 디답하야 글으되 주여 그가 누구신지 믿게 하야 주시옵쇼셔
 예수 글으샤되 내가 전에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느니라 하시니
 글으되 주여 내가 믿는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예수 글으샤되 내가
 심판하려 세상에 내려왔스니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게 하고 보는 사람
 으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 곳치 있는 바리새 교인이 이 말씀을 듯고
 글으되 우리도 눈이 머릿느냐 예수 글으샤되 너희가 눈이 머릿다면
 죄가 업스려니와 사망 말하기를 우리가 본다 하기로 죄가 그져 있는니라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 드러 낼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드러가지아

양의 목자나 문직이가 그를 위하야 문을 열고 양도 그 소리를 듯는니 그
 양의 그 일음을 각각 불너 내는니라 그 양을 다 불너낸 후에 압서 가면
 양이 쓰라오는 거슨 그 소리를 알미오 타인을 쓰르지아나 하고 다라남은
 타인의 소리를 아지 못함이라 하시니 예수가 이 비유로 못 사람의 케
 널으시되 너희게 하신 말씀이 무슴 말인지 아지 못하더라 그런코로
 예수가 또 널으샤되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게 말하노니 내가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적이오 강도니 양이 듣지아나 하였는니라
 내가 곧 문이니 누구던지 나로 말미암아 드러가면 구원을 엿고 드러가며
 나을 제 셀을 엿으리라 도적이 온는 거슨 다름이 아니라 도적 절하고 죽이고
 멸망 식히라 하는 거시오 내가 온는 거슨 양으로 하여곰 생명을 엿고 더 엿어
 풍성하게 하라는 거시라 나는 선한 목자니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야
 목숨을 버리고 삭군은 목자가 아니오 양도 또 제 양이 아니라 일희가 오는
 목숨을 버리고 삭군은 목자가 아니오 양도 또 제 양이 아니라 일희가 오는
 거슬 보면 양을 버리고 다라나리니 일희가 양을 잡고 무리를 헛치리라
 다라나는 거슨 삭군인 삭군이니 양을 도라보지아나 하시니 나는 선한 목자니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거시 야바지 썩셔 나를 아시고 내가
 아바지를 아는 것 같으니 또 내가 양을 위하야 목숨을 버리노라 또 내게
 다른 양이 잇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니라 내가 쇠을 어야 홀터이니
 너희도 내 소리를 듯고 들지 아니하니라 너희도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를 사랑하시는 거슨 내가 목숨을 버렸다가 다시 잇으려 함이라 내 목숨
 을 빼아슬 자롬이 업스나 내가 스스로 버릴지니 나는 버릴 권제도
 잇고 다시 영을 권제도 잇스나 이 거슨 내 아바지의게서 받은 계명이라
 하시더라 ○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인하야 다시 변론하셔 그 중에 여러
 말하되 더 사람이 사귀들니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귀가 엿지 눈먼자의 눈을
 드게 하겠느냐 하더라 ○ 예루살렘에 슈년절이 나르니 세가 겨을이라
 예수가 성전에서 솔노몬 회랑으로 든니 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글으되
 그대가 우리로 의심하게 하기를 언제까지 하랴냐 하더라 그리스도여든

밋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바지의 일홈으로 행하는 일이 나를 위하야
 중거하는 거시어늘 너희가 밋지 아니하는 거슨 내 양이 아님이니 내 양은
 내 소리를 듯느니 나도 더를 알고 더도 나를 쓰르느니라 내가 너희게
 영성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홀터이오 또 내 손에서 빼아슬자가
 업느니라 내게 양을 주신 내 아바지는 만물보다 더 크시니 아바지 손에서
 능히 빼아슬자가 업느니 나와 아바지는 일테니라 하시되 유대인이 다시
 돌을 드러 치려하거늘 예수 글으샤 더 내가 아바지 썩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게 보였거늘 그 중에 무슨 일노 돌노 치려하느냐
 하시니 유대인들이 되답하되 선한 일한 거스로 우리가 너를 돌노 치려하
 니 거시 아니라 참람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여 스스로 하는 님이라 함이로라
 예수 글으샤 더 너희를 법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함을 괴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니 님의 명을 받은 자롬을 신이라
 함섯 거든 함을며 아바지 썩셔 거룩하게 하샤 세상에 보내신자가 말하기를
 내가 하는 님 아들이라 하는 거슬 너희가 엿지 참람하다 하시니 만일 내가

내 아바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시거든 나를 밋지 말녀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밋지 아니하시나 그 일은 밋으라 너희로 하여곰 아바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바지 안에 잇는 줄을 써드라 알게 함이라 하시되 여러
 사람이 또 잡고져 할 때 그 손에 버셔나셔 나가시니라 ○ 다시 요단강
 밋으로 가서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이르러 거기 거하시니
 사물들이 만히 와서 말하되 요한은 이적을 행치 아니하였스나 이 사물을
 무르쳐 말한 거슨 다 참이라 하시니라 거기 사물들이 만히 밋더라

벧아니아 사는 라사르가 병드렸스니 거기 마리아와 그 형 마르다의 사
 촌이라 그 마리아는 향기로온 기름으로 주씩 붓고 머리 더럭으로 주의
 발을 씻기던 사람인디 그 오라비 라사르가 병드렸는고로 그 누의 들이
 예수씩 사물을 보내여 글으되 주여 보시옵쇼셔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
 드렸는이다 하시니 예수가 드르시고 글으샤 되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
 하는님의 영광을 위하야 하느님 아들도 영광을 엿게 함이라 하시더라

十一

드러다 하시니 말을 드르시고 계시던 벧아니아를 다류하시되 그 후에 데
 드려 날으샤 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데즈들이 되 답하되
 근일에 유대인들이 돌노치려하는디 또 그리로 가시려하는 잇가 예수
 되 답하샤 되 낮이 여섯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든다면 너머지 아니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니 후에 또 글으샤 되 우리 친구 라사르가 누어 자
 내가 가서 써우갓다 하시되 데즈들이 글으되 주여 누어 자면 낮갓는이다
 하시더라 예수의 말씀은 죽은 거슬 무르침이나 데즈들은 평안히 잠자는
 말씀으로 하시니 줄 알거늘 예수가 분명히 날으샤 되 라사르가 죽었는니라
 내가 거기 잇지 아니함으로 너희를 위하야 깃버하는 거슨 너희로 하여곰
 밋게 함이라 그러나 그의게로 가자 하시되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동모드러
 말하되 우리도 또 가서 무치 죽자 하시더라 ○ 예수가 와서 보시니 라사르가
 죽어 무덤에 잇는지 임의 나홀이라 벧아니아가 예루살렘에서 갓잡기가 한
 오리 즈음 되매 유대인이 만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와서 그 오라비

죽은 거슬인 약 위로 하디니 마르다가 예수 오셨다 하는 말을 듯고 곳
 나가 마질서 마리아는 집에 안젓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엿조오디 주씨셔
 여의게섯더면내 오라비가 죽지아니 하였슬터이나 나는 이제라도 주씨셔
 하는 님씨 구하시는 거슬 무어시던지 하는 님이 주실 줄을 아는 이다 예수
 곁으샤 디네 오라비가 다시 살니라 마르다가 곁으 디 무즈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는 이다 예수 곁으샤 디 나는 부활이 오 성명
 이니 나를 밋는 사람은 죽어도 살코 살아셔 밋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니 이 거슬 내가 밋는 나 곁으 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는 님의 아드님으로 세상에 강림하 실이 인 줄 밋는 이다 말을 못초고 또
 도라가서 그 만히 그 동성 마리아를 불너 말하 디 선성 님이 오서셔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듯고 급히 니러나 예수께 나아가니
 이 때에 예수가 마을노 드려 오지아니 하시고 마르다를 맛나던 곳에 그져
 세시더라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는 유대인들이 그 급히 니러나 가는

예수 세신 곳에 가서 보이고 그 말 함 해 업디여 곁으 디 주여 여의게섯
 더면내 오라비가 죽지아니 하였겟는 이다 하디라 예수가 그 우는 것파 또
 못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거슬 보시고 모음에 통분하시코 슬피하샤 곁으샤 디
 어디 못엇는 나 곁으 디 주여 와서 보옵쇼셔 하니 예수가 우신디 유대인이
 말하 디 불지어다 더를 이 못치 사랑하는도다 하니 그 중에셔 말하 디 더
 사람이 눈먼자의 눈을 뜨게 하였스니 이 사람도 능히 죽지 안케 못하였겟는 나
 하니 예수가 다시 모음에 통분하야 무덤에 니르시니 무덤이 곁이라 돌노
 막앗거늘 예수 곁으샤 디 돌을 옮겨노하라 하시니 그 죽은 사람의 누의
 마르다가 곁으 디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시매 시방은 내 암재가
 나겟습는 이다 예수 곁으샤 디 내가 밋으면 하는 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아니 하였는 나 하신디 그 사람들 이 돌을 옮겨노하니 예수 가 눈을 드러
 우러러 보시고 곁으샤 디 아버지 내 말을 드르신 거슬 감사 하니 이다 하샤
 내 말을 드르시는 줄을 아옵는 니 이 말씀 함 읊는 거스 돌너 선 사람으로
 하여곰 아버지 씨셔 나를 보내신 거슬 밋게 함이니 이다 말씀을 못초시고

크게 소리를 질너 부르샤되 라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사람이 곳나온지라
 슈죽은 뱀로 동이고 열골은 슈건으로 찢거늘 예수 그리스도 사되 푸러노하
 밋히게 하라 하시더라 ○ 마리아의게 온 유대인들이 히히신 일을 보고 만히
 밋더라 그 중에 었던 사람이 가서 바리새교인들을 보고 예수의 히신 일을
 낱으더라 ○ 제스제장과 바리새교인들이 공회를 모호고 글으되 이 사람이
 이적을 만히 히하시니 우리가 었더케 히겟느냐 만일 그의 히는대로 두면 다
 밋을 거시오 또 로마 사람이 와서 우리 싸와 나라를 빼아스리라 하니
 그 중에 그히대제스장 된 가야바라 하는 사람이 더히 드러 말되 너희들이
 아모 것도 아지못하는도다 흠 사람이 밋성을 위하시 죽어셔 원나라이
 망하지안케 되는 거시 너희게 유익한줄을 생각지아니함이로다 하니
 이 말은 제 믿음으로 함이 아니오 그히에 대제스장이 됴므로 예수씨셔 그
 나라를 위하시 죽으시고 또 그 나라만 위할뿐 아니라 스방에 훗히진 하느님의
 즈너를 합하시 하시니 되게함을 마리 말함이라 이 날브러는 그 사람들을 이
 예수 죽이기를 빼하더라 ○ 그런코로 다시 유대인 가온되 드러나게 된니 지

三

아니하시고 뵈든 갖가온 곳으로 가샤에 브라임이라 하니 성에 나르러
 데즈들과 못치게시더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갖가오매 절기 전에 시골서
 사람이 만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슨 절례를 히히려함이러라 더히가
 예수를 찾다가 성던에서 서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었더하뇨 더가
 절기를 지히러 오지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이는 제스제장과 바리새교인들이
 미리령을 내디 누가 예수 잇는 곳을 알거든 고하시 잡게 하라 함이러라
 유월절 었서 전에 예수가 벳아니라사로 잇는 곳에 니르시니 이는 예수가
 죽은가온되셔 다시 살니신자라 거기셔 예수를 위하시 잔치홀시 마르다가
 일을 보고 라사로도 못치 자리에 참여흔지라 마리아가 지극히 귀흔
 향기로온 기름흔근을 예수발에 붓고 또 제머리털노 씨스니 기름향기가
 집에 그득흔지라 데즈 중에 예수를 잡아줄 가릇 유다가 말하되 이 향기
 로온 기름을 었지셔 삼십량을 밋고 파라 간난흔 사람을 구제하시야니
 하시냐 하시니 이 말은 간난흔 사람을 생각하시 그리하는 거시 아니오
 더는 도적이라 돈 전디를 밋하 너흔 거슬 스스로서 가져감이라 예수

八 글으샤디 만두어 이 기름을 나의 장스 할 날을 위하야 두게 하라 ^八간난호
 九 사름은 너희와 호상 ^九긋치 잇스려니와 나는 너희와 호상 잇지 못하겠다
 十 호시더라 ○ 유대에 허다호 무리가 예수씩셔 여귀 제신줄을 알고 온 거스
 十一 예수 만 위하야 온 거시 아니오 예수가 다시 살나신 라사로를 보라 함
 十二 이라라 제스제장이 서로 의론호고 라사로씩지 잡아 죽이라 호는 거스
 十三 라사로씩셔 유대인이 만히 예수를 밋고 좃침이라 ○ 철귀를 직히려
 十四 온 허다호 무리가 그 잇흔날에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十四}호을 듯교
 十五 종려 나무가 지를 가지고 나가 마자 글으디 호산나로다 ^{十五}주의 일호음으로
 十六 오시는 이는 이스라엘 왕이 시니 북이 잇도다 호더라 예수가 홀어린 라귀
 十七 를 맞나셔 두시니 이는 괴록호 말슴과 호흔지라 ^{十七}닐넛스디 시온 설아
 十八 두려워 말나 너의 왕이 라귀 삼기를 두교 오신다 호엿더라 ^{十八}처음에는
 十九 데즈들이 이 일호을 아지 못호다가 예수가 영화를 엿으신 후에야 성경에
 二十 예수를 그르쳐 괴록호 것파 밋사름들이 예수를 향하야 이긋치 호 거슬

一 살나 실예에긋치 잇던 무리가 증거하니 무리가 예수가 이저 호호심호을
 二 듯교 가서 맛거늘 ^二바리새교인이 서로 말호디 불지어다 너희 호는 일이
 三 쓰디업다 원세상이 더를 좃는다 호더라 ○ 절귀를 당하야 레비호러 올나온
 四 사름중에 헬나 사름 두어시 ^四갈닐니 벳새다 사름 빌넵의게 가서 구하야
 五 글으디 전성이여 우리가 예수를 보고져 호노라 ^五빌넵이 안드레의게 와서
 六 말호디 안드레가 빌넵과긋치 와서 예수씩 엿오니 예수 디 답호야
 七 글으샤디 인츠가 영광을 엿을 썩가 되엿도다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게
 八 닐으노니 밋알 호나 이 썩에 썩려져 죽지 아니호면 그냥 호 알대로 잇교
 九 죽으면 열미가 만히 밋칠터이라 제성명을 앗기는 사름은 일허 버릴터이오
 十 이 세상에서 성명을 앗기 지 아니호는 사름은 영성호도록 보호호리라 사름이
 十一 나를 섬기 라면 나를 쓰르라 나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름도 거귀 잇스리니
 十二 사름이 나를 섬기면 내 아바지씩셔 귀히 녀이실지라 ^{十二}지금 내 마음
 十三 민망하니 무슴 말호호리 오아바지여 나를 구원하야 이 썩을 면호게 하야
 十四 주옵쇼셔 그리호나 내가 이 거슬 위하야 이 썩에 왔는이다 아바지여

三八 아바지의 일흠을 영화롭게 하였삽쇼셔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잇서 그르^{三九}디
 내가 임의 영화롭게 하였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하시라 하시디 것헤 섰던
 무리가 듯고 그르^{四〇}디 우뢰 소리라고도 하며 또 었던 사람은 그르^{四一}디 락스가
 못치 말한다고도 하시 예수^{四二} | 그르^{四三}샤디 이 소리가 나를 위하야 난 거시
 아니오 너희를 위하야 난 거시라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나르러스니 이
 제삼 님군이 쫓겨 나리라 내가 싸에서 들면 사람을 다 잇쓸어 내게 오게
 하겟노라 하시니 이 말씀은 었더케 도라가실 거슬 마르침이라 무리가
 그르^{四四}디 우리는 드르니 룰법에 날넷스디 그리스도가 영원히 산다 하였거늘
 너는 었지하야 인자가 반드시 들리리라 하시니 이 인자가 누구냐 할디
 예수^{四五} | 그르^{四六}샤디 아적 조곰동안 너희중에 빗치 잇스리니 빗치 잇슬 썬에
 핑하야 어두은 거시 너희게 림하지 아니하게 하라 어두은디 핑하는 사람은
 갈바를 아지 못하시니라 너희게 아적 빗치 잇슬 썬에 빗출 밧으라 그리하면
 광명훈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 예수가 이 말씀을 못초시고 썬나가셔

三九 주여 우리 전하는 말을 누가 밧으며 주의 권능이 뉘게 나타났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밧지 못하는 거슨 이사야가 또 날넷스디
 그르^{四〇}디 눈을 멀게 하시고 그르^{四一}디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니 이는 너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쳐듯고 도리키면 내가 곳쳐줄가 두려워함이라
 하였스니 이는 이사야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마르쳐 말한 거시라
 그러나 관원 중에 밧는 사람이 만흐되 바리새 교인을 인하야 안다 하시
 아니하는 거슨 회당에서 쫓겨 날가 두려워함이나 사람의 영화를 하는 님의
 영화보다 더 영화함이라 ○ 예수가 소리를 놓혀 그르^{四二}샤디 나를 밧는
 사람은 나를 밧는 거시 아니오 나를 보내신이를 밧는 거시라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이를 보는 거시니 나는 빗츠로 이 세상에 림하였스매
 나를 밧는 사람은 어두은디 었지안케 하시라 내 말을 듯고 직히지 아니
 하는 사람을 내가 멸죄하지 아니할 거슨 내가 세상을 멸죄하라고 온 거시
 아니오 구원하라고 온이라 나를 브리고 내 말을 듯지 아니하는 자는 멸죄

九

五

三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홀이가 잇스니 곧 나의 호던 말이 모조막 날에 영회하리라 내가 스스로
 말할 거시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바지씨셔 말할 것파 전할 거슬 내게
 명하섯스니 그 때명이 영성인줄 아난고로 내가 전하는 거슬 아바지씨셔
 二 널은신 말씀대로 전하노라 하시더라
 유월절 전에 예수가 세상을 떠나 아바지씨로 도라가실 때가 니르심을
 아시고 세상에 잇는 자의 백성을 사랑하시디 뜻하시디 사랑하시더라 마귀가
 예수를 잡아줄 뜻을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믿음에 임의 두엇더니
 예수가 아바지씨셔 만물을 자귀손에 부치신줄 아시고 또 하는 짐으로써
 오셨다가 하는 님씨로 도라가실줄도 아시고 저녀 잡수시다 가차리에 너
 三 나샤 옷을 벗고 슈건으로 동이시키고 대아에 물을 담아 가지시고 대주의
 발을 씻기시고 그 동이신 슈건으로 씻기시시몬베드로의게 니르니 글은디
 四 주여 내 발을 씻기십는 잇가 하거늘 예수 디답하야 글은샤狄 나의 호는
 五 거슬 내가 아제는 아지못하나 이후에는 알니라 하시니 베드로 글은디
 네 발을 씻으면 내가 나로 더브러 상관이 업는나라 시몬 베드로 글은디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九 자아니하면 내가 나로 더브러 상관이 업는나라 시몬 베드로 글은디
 주여 내 발을 씻기시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쇼셔 예수 글은샤狄 임의
 목욕하자는 발만 써셔도 왼몸이 다 색긋하리라 너희가 색긋하나 다
 二 그러할 거시 아니라 호심은 잡아줄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는고로 다 색긋할
 三 거시 아니라 호심이러라 너희 발을 씻기시고 옷을 넘으시고 다시 안져
 四 글은샤狄 내가 너희게 행할 거슬 너희가 아나냐 너희가 나드려 선형이라
 五 고도 호고 주라고도 하니 너희 말이 올흔지라 내가 참 그러하다 내가 주도
 六 되고 선형도 되여 너희 발을 씻기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니 거시 올도다
 七 내가 본을 너희게 주어 너희도 내가 너희게 행한 것 못하게 흠이라
 八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게 널은노니 종이 상던보다 크지못하고 심부름
 九 하는 사람이 심부름 식히는 사람보다 크지못하니 이 거슬 알고 행하면
 十 복이 잇스리라 내가 너희를 다 마르쳐 말흔 거시 아니라 내가 텅흔차는
 十一 내가 다 아노니 성경에 내 떡을 먹는 사람이 발굽치를 들어 나를 찬다
 十二 하는 말이 응응였도다 시방브터 일우기 전에 문져 너희게 널은리니 이는

일이 일우거든 너희로 하여곰 내가 나인 줄 믿게 함이라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 드러 낼 노니 내가 보낸 사람을 디접하면 나를 디접하는 거시오 나를 디접하면 나를 보내 신이 들 디접하는 거시라 하시더라 ○ 예수 가 이 말을 못 초시고 모음에 민망 하여 증거 하여 글으샤 디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 드러 낼 노니 너희 중 하나 이 나를 잡아 주 겠다 하시니 데즈들이 서로 보며 의심 하여 누구를 말함 하시지 아지 못하더라 자리에 참여한 데즈 하나 이 잇스니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라 예수의 품에 의지 하였거늘 시몬 베드로 가 머리로 뜻을 보이고 말함 디 말함 하시자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 대로 의지 하여 도라 보며 무르디 쥬여 누구요 닛가 예수 디 답하샤 디 내가 먹을 것 한 조각을 썬어 다 가 주는 사람이로다 하시고 곳 한 조각을 썬으셔 다 가 가릇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밝은 후에 사단이 곳 그 속에 드러 간지라 그림으로 예수가 유다 드러 낼 노니 샤 디 세 할 것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리에 참여한 사람이 예수의 말함을 무슴

사라 시는지 후 간난한 자를 구제 하라 하시니 졸노 압지라 유다가 그 때 밧고 곳 나가니 세가 밤이라 ○ 나간 후에 예수 글으샤 디 지금 인즈가 영광을 엮고 하느님이 또 인즈를 인하여 영광을 엮으시도다 하느님의 즈기를 인하여 인즈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쇼즈들 아 아직 도 내가 잠시 너희와 함씩 잇거니와 너희가 나를 차져도 나의 간 곳에 오지 못하리라 말은 이전에 유대인의 계도 말하였거니와 지금 또 너희 드러 낼 노라 새 계명을 너희의 계 주노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 하듯 할 지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이로써 너희가 내 데즈인 줄 알니라 ○ 시몬 베드로 가 글으 디 쥬여 어더로 가시는 잇가 예수 글으샤 디 나의 가는 곳을 내가 지금은 쓰라 오지 못하나 이후에는 쓰라 오리라 베드로 글으 디 쥬여 내가 지금은 엮지 하여 쓰르지 못하겠는 잇가 쥬를 위하여 목숨을 브리 겠는 이다 예수 글으샤 디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브리 겠는 나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 드러 낼 노니 드러 올 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 하시리라 하시더라

너희는 믿음에 근심하지 말나 하는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잇슬 곳이 만흐니 그러치 아니면 너희게 날갯소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야 잇슬 곳을 예비하리라 가서 너희 잇슬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야 나 잇는 곳에 너희도 잇게 하리니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나라 하시니 ^五도마디 글으되 주여 가시는
 곳을 아지 못하거늘 그 길을 엇지 알갓습는 잇가 예수디 글으샤 되 내가 곳
 길이 오진리오 칭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업스리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스리니 이제부터 너희가
 알고 또 보았는 나라 ^八빌립이 글으되 주여 아버지를 보여 주옵쇼셔 그리하면
 우리의게 족하겠습는이다 예수디 글으샤 되 빌립아 내가 너와 이 곳치오래
 잇스되 나를 아지 못하느나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거늘 엇지 하야
 아버지 보이라 하느나 나는 아버지의 안에 잇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
 어 술 내가 밋지 아니하느나 너희 드러 날은 말이 내가 스스로 하느 거시

안에 잇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밋지 아니하겠거든 칭하느
 일을 인하여 나를 밋으라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 드러 날은도나 나를
 밋는 사람은 나의 칭하느 일을 더도 칭홀터이오 또 혼 이보다 큰 것도 칭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도라 감이라 너희가 내 일함으로 무어시던지
 구하면 내가 시형할 거슨 아버지께서 아 들노 말미암아 영화를 엇게
 함이니 내 일함으로 무어시던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형할 거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직히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스니 아버지
 썩서 또 다른 보혜스를 너희게 보내여 영원도록 곳치 잇게 하시리니 이는
 진리의 신이라 세상이 능히 밋지 못하느 거슨 보지도 못하교 아 지도 못함
 이나 너희가 아는 거슨 너희와 곳치 계시고 또 너희 속에 계시실 연고라
 내가 너희를 썩나 외로운 즈식 곳치 버리지 아니하교 너희게로 림하려 나와
 아직 조곰 잇다가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터이로되 너희가 나를 볼
 거시오 내가 살므로 너희도 살나라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잇고 너희가
 내 안에 잇고 내가 너희 안에 잇는 거슬 너희가 알나라 나의 계명이 잇서서

직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느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느 사람은 내 아버지
 께서 사랑하실 터이오 나도 또 사랑하야 내가 그 사람의게 나타나 보이리라
 가^三롯 유다 말교 다른 유다가 글으^二되 주여 우리의게는 나타나 보이시고
 세상 사람의게는 나타나 보이지 아니할 거슨 엇더흐일이 오닛가 예수^三
 되 답하야 글으^二샤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직히리니 내 아버지께
 서도 사랑할 터이오 또 우리도 나와서 도와 흠씩 잇슬 터이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직히지 아니할 터이니 너희가 듣는 거슨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 내가 아직 너희와
 혼가지로 잇서서 이 말노 너희게 닐으노니 보혜스가 곧 성신이라 아버지
 께서 내 일함으로 보내시리니 모든 거스로 너희를 가르쳐 내가 너희게
 닐은 말을 다 기억하게 하시리라 평안함을 너희게 세쳐주노니 나의 평안
 함을 너희게 주는 거슨 이 세상이 주는 것 못치 내가 너희게 주는 거시
 아니라 너희는 믿음에 근심도 말교 두려워하지도 말나 내가 떠나갓다가
 너희게 오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드릿거니와 나를 사랑하였더면 내가

十五

아버지께로 도라갈 거슬 깃버하였스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심
 이라 이제 일이 일우기 전에 닐은 거슨 일이 일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밋게 함이라 이후에는 너희와 말을 만히 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닐군이
 올터이니 내게 아모 상관이 업스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 하는 것파
 아버지께서 명하신대로 좃차 행하는 거슬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내려나서 가자 하시더라
 내가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라 내게 잇는 가지가 과실을
 밋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버혀 버리시고 과실을 밋는 가지는 깃구어
 과실을 더 만히 밋게 하시리라 지금 너희가 내가 전하야 준 말노 다 섹긋
 하였스니 너희도 내 안에 잇스라 나도 너희 안에 잇스리니 가지가 포도
 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절노 과실을 밋출수 업스리니 너희가 내 안에 잇지
 아니하면 또 이 못흐리라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더가 내 안에
 잇고 내가 더 안에 잇는 사람은 과실을 만히 밋치려니와 내게서 쓴 혀지면
 아모 것도 할수 업스리라 사람이 내 안에 잇지 아니하면 가지를 밋게 내여

요한 십사장

삼십삼십오

요한 심오장

삼십삼십륙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버려 모른 것⁷ 오히려 너 사람이 주어다가 불에 던져 살을지라 너희가 내
 안⁸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⁸에 잇스면 원⁸하는 대로 구⁸하라 다 일우게 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만히 밋춤으로 내 아바지를 영화롭게 하고 너희도 내
 데즈가 되리라 아바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⁹ 처내 너희를 사랑하였
 스니 너희가 나의 사랑¹⁰하는 안¹⁰에 잇스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직히면 나의
 사랑¹⁰하는 안¹⁰에 잇기를 내가 아바지의 계명을 직히여 아바지의 사랑¹⁰하는
 안¹¹에 잇는 것¹¹ 처하리라 내가 이 거슬 너희게 넘음은 내 깃뵤이 너희
 안¹²에 잇서 너희 깃뵤을 충만하게 함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¹³하듯 하라 이 거시 나의 계명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야
 목숨을 버리면 이¹⁴에서 더 큰 사랑이 업느니라 너희가 나의 명¹⁴하는 대로
 행하면 곳나의 친구라 이¹⁵ 후에는 너희를 좋아 하지 아니하리니 좋은
 주인¹⁶의 행하는 거슬 아바지¹⁶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바지
 씨 드른 거슬 다 너희게 알게 하였슴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거시 아니오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잇게 하야 내 일¹⁶함으로 아바지께서 무어슬 구¹⁶하던지
 아바지께서 다 너희를 주시게 함이니 내가 이 거스로 너희를 명¹⁷하야
 너희가 서로 사랑¹⁸하게 함이라 계¹⁸상이 너희를 위하¹⁸면 너희를 위하¹⁸가
 전에 나를 먼저 위하¹⁹줄을 알니라 너희가 계¹⁹상에 붙¹⁹히스면 계¹⁹상이 그
 동류를 사랑²⁰하리라 너희가 계²⁰상에 붙²⁰지 아니할뿐더러 내가 택²⁰하야
 계²¹상에서 나오게 하코로 계²¹상이 너희를 위하²¹는니라 내가 이전에 너희
 드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²²하다 한 말을 기억²²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
 하였스즉 또 너희를 핍박하리라 오내 말을 직²³혔스즉 또 너희 말을 직²³힐터이나
 그러나 사람이 내 일²⁴함을 인²⁴하야 이 모든 일²⁴을 너희게 향²⁴하야 할 거스
 나 보내신 이를 아바지²⁵는 연고니라 내가 와서 말²⁵하지 아니하였더면 너희
 가 죄 업²⁶섯스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²⁶할수 업²⁶슬지라 나를 위하²⁶는
 사람은 또 내 아바지를 위하²⁷는 나 내가 너희 중²⁷에서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면 너희가 죄 업²⁸섯스려니와 지금은 너희가 나와
 밋내 아바지를 보고도 또 위하²⁹하였도다 이는 너희를 법²⁹에 너희가 연고

六

엽시 나를 위워 하엿다 호신 말씀을 응호게 함이니라 보혜소는 진리의
 신이니 아버지께로 브러 나오시는 자라 내가 아버지께로 브러 너희께 보내
 리니 니르시면 나를 위호야 증거 할 것 거시오 너희도 또 증거 할 거슨
 처음 브러 나와 함씩 함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희께 이 못치 닐음은 범죄치 안케 함이니 사림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내리라 또 호냐가 니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사림이 생각 할 기를
 스스로 하는 닐을 섬긴다 하시니 이 못치 할 거슨 아버지 와 나를 아지
 못호는 연교라 다만 이 말을 너희께 닐은 거슨 너희로 호여곰 그 썸을
 당호면 내가 너희께 미리 말호는 거슬 괴역호게 호는 거시오 처음에 이 말을
 호지 아니호는 거슨 너희와 못치 잇슴이라 지금 내가 나 보내신이의게로
 갈지라도 너희 중에서 어더로 가는 나 못는 사림이 엽도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믿음에 근심이 그득호엿스나 그러호나 실상으로 말호노니
 내가 떠나는 거시 너희게 유익호리니 떠나지 아니호면 보혜소가 너희게로

심판으로 세상을 척망호리라 죄는 더호가 나를 밋지 아니함으로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으로 심판은 이 세상 닐음이
 심판을 받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여러 가지로 너희께 닐을 거시 잇스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호리라 그러호나 진리의 성신이 니르면 모든 진리
 가 온디로 너희를 인도호리니 그 믿음대로 호를 거시 아니라 듯는 거스로
 말호를 거시오 또 장리 일노 너희께 닐으리라 므릇 아버지께 잇는 거슨 다 내
 스니 내 거슬 가지고 너희께 닐으리라 므릇 아버지께 닐으리라 호엿노라
 거신교로 내가 말호기를 그가 내 거슬 가지고 너희께 닐으리라 호겟다
 조곰 잇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호고 또 조곰 잇다가 다시 나를 보겟다
 호신디 데즈들이 서로 말호야 글으디 우리드려 말호호시기를 조곰 잇다가
 나를 보지 못호고 또 조곰 잇다가 나를 보겟다 하시며 또 이는 아버지께로
 도라갈 연교라 하시니 이 거시 무슴 말호미호고 호고 또 말호디 조곰 잇다
 가라호 말호미 무슴 말호미호고 그 말호미 아지 못호겟다 호거늘 예수가 그
 못고져 함을 아시고 글으샤디 내 말이 조곰 잇다가 나를 보지 못호고 또

삼십삼십구

조곰 있다 가 다시 나를 보겠 다 함으로 서로 못느나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 두려워 닐으노니 너희는 통곡하고 슬퍼하려 나와 세상은 즐거워하겠고
 너희는 근심하려 나와 너희 근심이 도로혀 즐거움이 되리니 너희 히산
 하게 되매 근심하는 거슨 그 색가 니름이 오으희를 나흐면 과로움을 다시
 생각지 아니하는 거슨 사람이 세상에 남을 즐거워함이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믿음의 즐거움이라 또 너희
 즐거움을 빼아슬 사람이 없슬터이니 그 때에 너희가 나드려 무를 거시
 업스리라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너희게 닐으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무어슬
 구하던지 내 일함으로 그 거슬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일함으로
 아모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스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니 너희 즐거움이
 충만하라 ○ 이전에 비유로 이 거슬 너희게 닐었거니와 색가 니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게 닐으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밝히 마르쳐 닐으리라
 그때에 너희가 내 일함으로 구하리니 나는 너희를 위하야 아버지께

음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천히 너희를 사랑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도라가노라 하시니
 대저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교 아모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아지못하시는지 업는줄 알고 또 사람이 주께 무려불
 일이 업는줄 아노니 이로써 우리가 하는 넘씨로써 나오심을 믿습는이다
 하니 예수 궤를 샐이 제는 너희가 믿는나 불지어다 색가 니를 거시니
 곳 지금이라 너희가 다향혀져 각각 제 곳으로 도라가고 나를 혼자 두나
 내가 혼자 잇는 거시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리라 이 거슬
 너희게 닐음은 나를 힘입어 평안함을 얻게 함이라 세상에 잇슬제 너희가
 환란을 밧으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엿노라 하시더라
 예수가 이 말씀을 못초시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글으샤되 아버지여
 색가 니르릿스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샤 아들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쇼셔 아버지께서 만유에 권세를 아들의게 주셨스오니 이는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의게 아들노 영성을 주게 하심이로소이다

영성은 곳 이 거시니 홀노 하나이신 참하는님을 아옵고 또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니이다 아바지씩셔 내게 맞기신 일을 내가 일우워
 아바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스오니 아바지여 창세 전에 아바지여
 흠씩 내게 있던 영화화로써 지금도 아바지와 흠씩 나를 영화롭게 하옵쇼셔
 아바지씩셔 세상에셔 내게 주신 사람의게 내가 아바지의 일흐음을 나타내
 었스오니 본티 아바지씩 속흔자라 내게 주셨스매 너희가 아바지의 말씀을
 직히였고 아바지씩셔 내게 주신 거시 다 아바지씩로 온 거신줄 지금도
 너희가 아옵느니 아바지씩셔 내게 주신 말씀을 너희게 주었스오매 너희가
 밧아 내가 아바지씩로 브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알았스오며 아바지씩셔 나를
 보내신 것도 밧았스옵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야 비옵느니 세상을 위하야
 비옵는 거시 아니오라 내게 주신 사람을 위하야 비옵느이다 너희가 아바지
 씨 속흔 사람이로소이다 내 거스 다 아바지의 거시오 아바지의 거스 내
 거시오니 너희를 인하야 영화를 잇느이다 지금 나는 세상에 더 잇지 아니
 할겟스오나 너희는 세상에 잇스옵고 나는 아바지씩로 가옵느니 거룩하신

아바지여 내게 주신 사람을 아바지의 일흐음으로 보전하샤 하나이 되기를
 우리가 하나이 됨 및 처 하게 하옵쇼셔 내가 너희와 및 처 잇슬 때에
 아바지씩셔 주신 사람을 아바지의 일흐음으로 보전하와 직히었스오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였스오나 오직 멸망 할 즈식만 일흔 거스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바지씩로 가겟스오니 세상에셔 이 말을
 하옵는 거스 너희로 하여곰 내 즐거움을 잇어 그 믿음에 참만하게 함이
 니이다 내가 아바지의 말씀을 너희게 주었스오매 세상이 뒤워흔 거스
 너희가 세상에 붓지 아니함이 내가 세상에 붓지 아니함 및 함이니 아바지씩셔
 너희를 세상에 떠나게 하심을 내가 비옵는 거시 아니오라 보전하샤 악흔티
 짜지지 아니하게 하옵시기를 비옵느이다 너희가 세상에 붓지 아니흔 거시
 내가 세상에 붓지 아니함 및 함이니이다 너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쇼셔
 아바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바지씩셔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및 처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였고 또 너희를 위하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노니 이는 너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잇게 함이니이다 내가 이 사람을

만 위하야 비옵는 거시 아니옵고 또 너희 말을 듣고 나를 밋는 사람도
 위하야 비옵는 거시 너희로 하여곰 다 하나이 되게 하샤 아바지씩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바지 안에 있는 것 같치 너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하샤 세상이
 아바지씩셔 나를 보내신 거슬 밋게 함옵쇼셔 아바지씩셔 내게 주신 영화를
 내가 너희게 주어 하나이 되게 하기를 아바지와 나와 하나이 된 것 같
 하오니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아바지씩셔 내 안에 계시니 너희로 하여곰 다
 온전함을 일우어 하나이 되게 하야 세상이 아바지씩셔 나를 보내신 줄
 알게 함옵고 또 아바지씩셔 너희 사랑하기를 날 사랑하신 것 같흔 줄
 알게 함옵쇼셔 아바지여 내게 주신 사랑도 나 있는 곳에 나와 갓치 잇기를
 원하오니 이는 너희로 하여곰 아바지씩셔 내게 주신 영화를 보게 하려 함
 이니이다 창세 전부터 아바지씩셔 나를 사랑하신 거시 소이다 의로 오신
 아바지여 세상이 아바지를 아지 못하여도 나는 아바지를 아옵고 너희도
 아바지씩셔 나를 보내신 줄 알았습는이다 내가 아바지의 일함을 너희게
 알게 함엇거 나와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너희 안에

六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게 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가 이 말씀을 못초시고 데즈와 갓치 나가샤 것으론이라 하신 서너를
 건너가시니 거기 과원이 잇는디 데즈들과 갓치 드러가시더라 예수가
 거긔셔 데즈들과 갓금 모히시니 예수를 잡아줄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스흔 썬와 밋제스제장과 바리새교인의게서 온 관속을 엿어
 등과 화와 병의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가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샤 곧 샤틀니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디답호되 나 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가 곧 샤틀니 내로라 하신디 그를 잡아줄 유다도 너희와 갓치 섰더라
 예수가 너희드려 내로라 하시니 너희가 못물너나서 싸에 엮디는지라
 다시 무려 곧 샤틀니 누구를 찾느냐 하신디 디답호되 나 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가 곧 샤틀니 너희드려 내로라 하엿스니 나를 차지라거든 이 사람들을은
 가는 거슬 용납하라 하시니 이 거슨 전에 말씀하시기를 아바지씩셔 내게
 주신 사랑을 응하나도 일치 아니 하엿습는이다 하심을 응하게 함이러라
 시몬 베드로가 환도가 잇는지라 배여 대제스장의 종을 쳐서 올흔 편귀를

11 ¹¹ 싹그니 그 종의 일홈은 말교라 예수가 베드로드려 빌으샤되 칼을 집에
 12 ¹² 뉘지라 아바지씩셔 주신 잔을 내가 엇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
 13 ¹³ 때에 군스 때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관속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몬져
 14 ¹⁴ 안나스의 게로 쓰을고 가니 안나스는 이 허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
 15 ¹⁵ 가야바는 이 전에 유대인과 의론하야 빌으되 혼 사람이 빅성을 위하야
 16 ¹⁶ 죽는 거시 유익하다 하던차러라 ○ 시몬 베드로가 예수를 쓰르고 또 다른
 17 ¹⁷ 데즈 하나 이 쓰르니 이 데즈는 본리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18 ¹⁸ 못치 대제사장의 아문에 드러가고 베드로는 문 밧게 섰더니 대제사장과
 19 ¹⁹ 아는 그 다른 데즈가 나가셔 문 직히는 계집드려 말하고 베드로를 다리고
 20 ²⁰ 드러왔더니 문 직히는 계집이 베드로드려 부르되 너도 이 사람의 데즈가
 21 ²¹ 아니냐 하니 되 답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여러 종과 관속들이 거괴 서서
 22 ²² 치위 솟불을 피우고 불을 쬐이니 베드로가 못치 서서 불을 쬐이더라 ○
 23 ²³ 대제사장이 예수드려 그 데즈 삼으신 것과 및 마르친 거슬 무르니 예수
 24 ²⁴ 대답하되 내가 배상을 향하야 묵혀 말하였는지라 유대인들이 다 모혀

25 ²⁵ 잇는 회당과 성전에서 호상 마르치고 은밀하게 말하되 아니하였거늘
 26 ²⁶ 엇지 하야 나드려 못느냐 내 말을 드른 사람의 게 무슴 말을 하였나 무러
 27 ²⁷ 보라 너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냐 이 말슴을 하시며 께해 섰는 관속
 28 ²⁸ 하나 이 손으로 예수를 쳐골으되 네가 대제사장의 게 이 못치 되 답하느냐
 29 ²⁹ 하니 예수 | 골으샤되 내 말이 올치 아니하면 네가 그 올치 아니흔 거슬
 30 ³⁰ 증거하려니와 올흔디 엇지 하야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31 ³¹ 결박하야 대제사장 가야바의 게 보내니라 ○ 때에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32 ³² 쬐이더니 엇던 사람이 무르되 너도 그 데즈냐 하니 베드로가 그리치 아니
 33 ³³ 하다 하야 골으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의 게
 34 ³⁴ 귀를 싹기던 사람의 일가라 골으되 네가 그 사람과 못치 파원에 잇던 거슬
 35 ³⁵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베드로가 또 그리치 아니하다 홀제 둥이 곳
 36 ³⁶ 울더라 ○ 너희가 예수를 쓰을고 가야바의 게로 말미암아 공당에 니르니
 37 ³⁷ 새벽이라 너희는 공당에 드러가 지 아니하는 거슨 몸을 더러이지 아니하고
 38 ³⁸ 유월절 잔치를 먹고저함이러라 그럼으로 빌나도가 밧게 나가서 너희드려

무르되 너희가 무슴 일노 이 사람을 송스호는나 호니 ^{三十一}되답호야 ^{三十二}골으되
 이 사람이 악호를 거슬 핑치아니호였더면 각하의게 잡아 오지아니호였겟
 노라 호거늘 ^{三十三}빌나도 ^{三十四}골으되 너희가 다려다가 너희 법대로 처판호라
 유대인이 ^{三十五}골으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논거시 가처아니호는이다 호니 ^{三十六}이거슨
 예수의 엇더케 죽을 거슬 ^{三十七}그치신 말씀을 응호게 흠이러라 ^{三十八}이러흠으로
 빌나도가 다시 공당에 드러가서 예수를 불너 ^{三十九}골으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호니 ^{四十}예수 ^{四十一}되답호샤되 이 말호는거시 스스로 호는거시요 다른 사람이
 너를 ^{四十二}그쳐 말호더호 빌나도 ^{四十三}골으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제스제장이 너를 내게 잡아 보내엿스니 내가 무슴일을 핑호였느냐 ^{四十四}예수
 되답호샤되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이 아니라 내 나라이 이 세상 나라이
 더면 내 신하가 싸화 나를 유대인의게 잡히지안케 호리니 이제 내 나라는
 여의 잇지아니호니라 호신되 ^{四十五}빌나도 ^{四十六}골으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 ^{四十七}되답호샤되 나를 왕이라 말호니 내가 이를 위호야 낫스며 또 이를
 위호야 제왕에 임호엿스나 이는 진리를 위호야 증거호려호니로라 ^{四十八}진리의

^{四十九}부호는 사람은 다 내 말을 드르리라 호신되 ^{五十}빌나도 ^{五十一}골으되 진리가 무어
 시냐 호더라 ^{五十二}말을 못초고 다시 나가서 유대인드려 ^{五十三}닐으되 내가 보기에는
 죄가 호나도 업도다 ^{五十四}너희들의게 전례가 잇서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게 호
 사름을 노하주느니 너희가 나드려 유대인의 왕을 노하달나호는나 호니
^{五十五}더희가 또 소리질너 ^{五十六}골으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호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빌나도가 곳 예수를 잡아내여 채찍으로 찌리더라 ^{五十七}군스가 가시를 여거
 면류관을 문드려 머리에 씌우고 또 ^{五十八}홍포를 ^{五十九}닙히고 ^{六十}압해 ^{六十一}와셔 ^{六十二}골으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호냐 호며 손으로 찌리더라 ^{六十三}빌나도가 다시 밧게나가
 말호되 보아라 내가 다리고 너희게 나아온 거슨나 보기에 죄 호나도
 업슴을 알게 흠이라 호더라 ^{六十四}예수가 가시 면류관을 쓰고 ^{六十五}홍포를 ^{六十六}닙고
 나오시니 빌나도가 ^{六十七}더희드려 말호되 이 사름을 보아라 호니 ^{六十八}제스제장과
 관속들이 보고 소리질너 ^{六十九}골으되 십자가에 못박게 호쇼셔 십자가에 못박게
 호쇼셔 호는지라 ^{七十}빌나도 ^{七十一}골으되 너희가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박으라

나 보기에는 죄가 없다 하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도 법이 잇스니
 그 법대로 하면 더가 당연히 죽을 거슨 제가 하는 님 아들이라 함이라 하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야 다시 공영에 드러가서 예수더러
 무르디 네가 어더셔 왔느냐 하니 예수 대답하되 나는 지라 빌라도가
 또 무려 글으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노홀 권제도 잇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제도 잇는 줄 아지 못하느냐 예수 글으샤되 우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면 나를 해할 권제가 업섯스리니 그런코로 나를 잡아준
 사람은 죄가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노호려 하니
 유대인들이 소리질너 글으되 이 사람을 노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
 조창 왕이라 하는 사람은 가이사를 더덕함이라 하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곳예수를 선을고 나와서 혼 곳에 니르니 일함은 박석이라 히브리
 말은 가바다니 거기서 재판하는 자리에 앉혔더라 때는 유월절 중에
 예비하는 날이니 오정쯤 되여 빌라도가 유대인 드려 날으되 너희 왕을
 보라 하니 너희가 소리질너 글으되 업시 하자 업시 하자 십자가에 못박자

하니 빌라도 글으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아 주라 하니 제스제장이
 글으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넘군이 업는이다 하니 빌라도가 곳
 예수를 더회개내여 주어 십자가에 못박게 하더라 ○ 너희가 예수를 맞흔
 지라 예수가 조과의 십자가를 지시고 흘려라 하는 곳에 나르시니 히브리
 말은 골고다라 더회개가 거과셔 십자가에 못박을식 또 두 사람을 혼가지로
 못박으니 좌우편에 하나씩 잇고 예수는 가운데 잇더라 빌라도가 명패를
 써서 십자가 우에 붙치니 그 글에 글으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하였는지라 유대인이 만히 이 명패를 너는 거슨 예수 못박힌 곳이 성에서
 갓가을 썩더라 그 패에 히브리와 로마와 헬나 글노 씌이러라 유대
 제스제장이 빌라도더러 날으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조창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 대답하되 내가 쓸대로 임의 썼다 하더라 ○
 군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 옷을 취할식 네 깃에는 화 군스가 각각
 하나씩 엇고 또 속 옷을 취할식 이 속 옷은 호지 아니하고 우에서 브러
 아래서 지 통으로 썼는지라 군스들이 서로 말하되 썼지 말고 제비 씌어

누가 었나 보자 하니 이 거슨 성경에 빌넷스디

더희가 내 것 옷은 눈호고 속 옷은 제비 썸는다

ㅎ는 거슬 응ㅎ게 ㅎ엿스니 군스들의 ㅎ는 일 이 이 ㄷ더라 예수의 십즈가

꺃헤 그 모친과 이 모와 글노바의 안히 마리아와 막달나 마리아가 셋는 지라

예수가 그 모친과 사랑ㅎ는 데즈가 꺃헤 셋는 거슬 보시고 그 모친씩

말슴ㅎ샤디 녀인이여 보쇼셔 더가 아들이 니이다 ㅎ시고 또 그 데즈드러

닐으샤디 보라 네 어머니라 ㅎ신디 그 때 브더 그 데즈가 제 집에 되시더라

이 후에 예수씩셔 일이 다 일운 줄 아시고 또 성경으로 응ㅎ게 ㅎ려ㅎ샤

글으샤디 내가 목므르다 ㅎ시니 거괴 초가 그 득히 담긴 그릇이 잇는 지라

사름이 ㅎ응에 초를 못쳐 우슬 초에 미여 입에 대니 예수가 초를 밧으시고

글으샤디 다 일우엿다 ㅎ시고 곳머리를 속이 시고 운명ㅎ시니라 이 날은

예비ㅎ는 날이라 유대인이 안식일에 시례를 십즈가에 두지아니 ㅎ려ㅎ음은

이 안식일이 큰 날이 됨이라 그런코로 빌나도드러 그 드리를 썸거 시례를

또 다른 사름의 드리를 썸고 예수씩 니르러는 입의 죽은 거슬 보고 드리를

씩지아니 ㅎ고 군스 ㅎ나 이 창으로 녀 구레를 썸르니 피와 물이 곳나오는

지라 이 거슬 분쟈가 증거하니 그 증거가 참이라 더가 즈괴의 말은 거시

참인 줄 알고 너희로 ㅎ여 곱밧게 ㅎ음이니 이 일이 일운 거슨 성경에 빌은바

그 썸을 ㅎ나도 썸지아니 ㅎ리라 ㅎ는 거슬 응ㅎ게 ㅎ음이 오 성경에 또

닐넷스디 더희가 그 썸쟈를 브라 보리라 ㅎ엿더라 이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데즈나 유대인을 두려워ㅎ는 고로 은회ㅎ더니 빌나도드러

예수의 시례를 가져가니라 또 처음에 예수씩 밤에 나와 왔던 니코데모가 몰약과

시례를 가져가니라 또 처음에 예수씩 밤에 나와 왔던 니코데모가 몰약과

철항 비근 즘 가지고 와서 유대인의 장례ㅎ는 법대로 예수의 시례를

가져다가 가는 퇴에 그 향지료를 너허 싸더라 예수가 십즈가에 못박히신

곳에 동산이 잇고 동산 안에 새 무덤이 잇스니 아직 사름이 못치지아니 ㅎ

곳이라 이 날은 유대인의 예비ㅎ는 날이 오 또 무덤이 갓가 온코로 예수를

거괴 두니라

三三 三二 三一 三〇 二九 二八 二七 二六 二五 二四 二三 二二 二一 二〇 一九 一八 一七 一六 一五 一四 一三 一二 一一 一〇 〇九 〇八 〇七 〇六 〇五 〇四 〇三 〇二 〇一

三三 三二 三一 三〇 二九 二八 二七 二六 二五 二四 二三 二二 二一 二〇 一九 一八 一七 一六 一五 一四 一三 一二 一一 一〇 〇九 〇八 〇七 〇六 〇五 〇四 〇三 〇二 〇一

두

1 날해 중 첫 날 채 북기 전에 막달나 마리아가 일찍이 무덤에 와서 돌이
 2 무덤에서 옮겨 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다른
 3 데즈의게 달녀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내여다가 어찌 두었는지
 4 아지못하겠다 하니 베드로가 그 다른 데즈와 못치 나가서 무덤으로
 5 가려야 돌이 못치 다름질할는지 그 다른 데즈가 베드로보다 더 셨나
 6 다라나서 묻져 무덤에 나르러 굽흐려 드러다보니 가는 뵈가 잇는지라
 7 드러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또 쓰라와서 무덤에 드러가 보니
 8 가는 뵈가 잇고 또 머리 찢던 슈건이 잇는디 가는 뵈와 못치 잇지 아니하고
 9 싸로기켜 잇더라 그 때에 무덤에 묻져 왔던 그 다른 데즈가 또 드러가
 10 보고 밋은지라 두 데즈가 성경에 죽은 가온되서 받드시 다시 살어나리라
 11 하신 말씀을 아직 아지못하고 제 짐으로 도라가니라 ○ 마리아는 무덤
 12 밖에서 서 울더니 울 때에 굽흐려 무덤 속을 드러다보니 두련스가 흰
 13 옷을 입고 예수 시례 누엿던 곳에 안젧는디 하나는 머리에 잇고 하나는

14 내 주를 가져다가 어는 곳에 두었는지 아지못함이니 다 하고 몸을 도리켜
 15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 신줄 아지못하더라 예수 - 고클 - 샤틀 - 녀인 아
 16 었지야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동산 직이인 줄도 알고
 17 고클 - 디 당신이 옮겨 갔거든 나 드러 어는 곳에 두었다닐 - 면 곳 가져가리라
 18 하니 예수 - 고클 - 샤틀 -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몸을 도리켜 히브리
 19 말로 닐 - 디 랍오니여 하니 이는 션성님이라 홀이라 예수 - 닐 - 샤틀
 20 나를 먼저 말나 내가 아직 아바지씨로 올라가지 못하였스니 너는 가서
 21 내 동성들을 보고 닐 - 디 내가 내 아바지씨로 올라가리니 이는 너희
 22 마리아가 곳 가서 데즈들 드러 닐 - 고클 - 디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23 쥬씩셔 하신 말씀을 전하더라 ○ 이 날은 날해 중 첫 날이라 저녁 때에
 24 데즈들이 유대인을 두려워야 모힌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가 니르샤
 25 가온되 서서 고클 - 샤틀 -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하시고 데즈들의게 손과
 26 녀구레를 보이시니 데즈들이 주를 보고 깃버하는지라 예수가 또 고클 - 샤틀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아바지씨셔 나를 보내신 것 ^三 또 처 나도 ^三 또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를 향하샤 ^三 귀운을 불며 ^三 글으샤 ^三 디
 너희는 성신을 밧으라 너희가 ^三 뉘 ^三 죄던지 ^三 사하면 ^三 사하여질 ^三 거시오 ^三 뉘
 죄던지 ^三 당하면 ^三 당하여 ^三 지리라 ^三 ○ 열두 ^三 데즈 ^三 중에 ^三 디 두모라 ^三 하는 ^三 도마가
 예수 오실 때에 ^三 업섯는 ^三 지라 ^三 다른 ^三 데즈들이 ^三 닐으디 ^三 우리가 ^三 주를 ^三 보았노라
 하니 ^三 도마가 ^三 글으디 ^三 내가 ^三 그 ^三 손에 ^三 못 ^三 자욱을 ^三 보지 ^三 못하며 ^三 손가락으로 ^三 그
 자욱을 ^三 묻지 ^三 못하며 ^三 손으로 ^三 그 ^三 넓구레를 ^三 묻져 ^三 보지 ^三 못하면 ^三 밋지 ^三 아니
 하겔노라 하시더라 ○ 여드레를 ^三 지나셔 ^三 데즈들이 ^三 다시 ^三 방안에 ^三 모혔슬 때에
 도마도 ^三 못치 ^三 있더니 ^三 문이 ^三 닫혔는 ^三 지라 ^三 예수가 ^三 나르러 ^三 가온 ^三 디 서셔 ^三 글으샤 ^三 디
 너희가 ^三 평안할 ^三 지어 ^三 다 ^三 하시고 ^三 곳 ^三 도마 ^三 드려 ^三 닐으샤 ^三 디 ^三 내 ^三 손가락을 ^三 내 ^三 밧어
 내 ^三 손으로 ^三 묻져 ^三 보코 ^三 내 ^三 손을 ^三 내 ^三 밧어 ^三 내 ^三 넓구레를 ^三 묻져 ^三 보코 ^三 의 ^三 심 ^三 처 ^三 말 ^三 고
 밋으라 하시니 ^三 도마가 ^三 글으디 ^三 나의 ^三 주시며 ^三 나의 ^三 하는 ^三 닐이 ^三 시니 ^三 이 ^三 다 ^三 하시거늘
 예수 ^三 | ^三 글으샤 ^三 디 ^三 너는 ^三 나를 ^三 본 ^三 고 ^三 밋으 ^三 나 ^三 보지 ^三 못 ^三 하고 ^三 밋는 ^三 사람은 ^三 복이
 잇스리라 하시니라 ○ 예수가 ^三 데즈 ^三 앉혀 ^三 서 ^三 다른 ^三 이 ^三 제 ^三 을 ^三 만히 ^三 행호신

三

거술이 ^三 침에는 ^三 다 ^三 기록 ^三 자 ^三 못 ^三 하였스나 ^三 오직 ^三 기록 ^三 한 ^三 이 ^三 거 ^三 손 ^三 너 ^三 희 ^三 로 ^三 하 ^三 여 ^三 품
 예수 ^三 씨셔 ^三 그 ^三 리 ^三 스 ^三 도 ^三 시 ^三 며 ^三 하 ^三 는 ^三 닐 ^三 아 ^三 들 ^三 이 ^三 심 ^三 을 ^三 밋 ^三 게 ^三 함 ^三 이 ^三 오 ^三 또 ^三 너 ^三 희 ^三 가 ^三 밋 ^三 고
 그 ^三 일 ^三 흠 ^三 을 ^三 힘 ^三 닐 ^三 어 ^三 성 ^三 명 ^三 을 ^三 엇 ^三 게 ^三 함 ^三 이 ^三 나 ^三 라
 그 ^三 후 ^三 에 ^三 예 ^三 수 ^三 가 ^三 디 ^三 베 ^三 라 ^三 바 ^三 다 ^三 에 ^三 서 ^三 또 ^三 데 ^三 즈 ^三 의 ^三 게 ^三 나 ^三 타 ^三 내 ^三 션 ^三 스 ^三 니 ^三 나 ^三 타 ^三 내 ^三 션
 일 ^三 이 ^三 이 ^三 러 ^三 하시 ^三 라 ^三 시 ^三 몬 ^三 베 ^三 드 ^三 로 ^三 와 ^三 디 ^三 두 ^三 모 ^三 라 ^三 하는 ^三 도 ^三 마 ^三 와 ^三 같 ^三 닐 ^三 나 ^三 가 ^三 나 ^三 사 ^三 람
 나 ^三 다 ^三 나 ^三 엘 ^三 과 ^三 세 ^三 베 ^三 대 ^三 의 ^三 두 ^三 아 ^三 들 ^三 과 ^三 또 ^三 다른 ^三 데 ^三 즈 ^三 들 ^三 이 ^三 또 ^三 처 ^三 있 ^三 더 ^三 니 ^三 시 ^三 몬
 베 ^三 드 ^三 로 ^三 가 ^三 글으 ^三 디 ^三 나는 ^三 물 ^三 고 ^三 기 ^三 잡 ^三 으 ^三 러 ^三 가 ^三 겠 ^三 노 ^三 라 ^三 하시 ^三 거 ^三 늘 ^三 더 ^三 희 ^三 가 ^三 글으 ^三 디
 우리 ^三 도 ^三 또 ^三 처 ^三 가 ^三 겠 ^三 다 ^三 하고 ^三 나 ^三 가 ^三 셔 ^三 비 ^三 에 ^三 올 ^三 낫 ^三 스 ^三 나 ^三 이 ^三 밤 ^三 에 ^三 아 ^三 모 ^三 겠 ^三 도
 잡 ^三 지 ^三 못 ^三 하였 ^三 더 ^三 니 ^三 날 ^三 이 ^三 붉 ^三 아 ^三 갈 ^三 때 ^三 에 ^三 예 ^三 수 ^三 가 ^三 언 ^三 덕 ^三 에 ^三 섰 ^三 스 ^三 나 ^三 데 ^三 즈 ^三 들 ^三 이 ^三 예 ^三 수 ^三 신 ^三 출
 아 ^三 지 ^三 못 ^三 하시 ^三 거 ^三 늘 ^三 예 ^三 수 ^三 | ^三 닐으 ^三 샤 ^三 디 ^三 쇼 ^三 즈 ^三 야 ^三 너 ^三 희 ^三 가 ^三 먹 ^三 을 ^三 거 ^三 시 ^三 잇 ^三 는 ^三 나 ^三 디 ^三 답 ^三 하시 ^三 디
 업 ^三 는 ^三 이 ^三 다 ^三 하시 ^三 거 ^三 늘 ^三 글으 ^三 샤 ^三 디 ^三 그 ^三 물 ^三 을 ^三 비 ^三 을 ^三 현 ^三 에 ^三 던 ^三 지 ^三 면 ^三 엇 ^三 으 ^三 리 ^三 라 ^三 하시 ^三 디
 못 ^三 던 ^三 졌 ^三 더 ^三 니 ^三 고 ^三 기 ^三 가 ^三 만 ^三 하 ^三 그 ^三 물 ^三 을 ^三 들 ^三 수 ^三 업 ^三 는 ^三 지 ^三 라 ^三 예 ^三 수 ^三 의 ^三 스 ^三 랑 ^三 하시 ^三 는 ^三 데 ^三 즈 ^三 가
 베 ^三 드 ^三 로 ^三 드 ^三 러 ^三 닐으 ^三 디 ^三 주 ^三 시 ^三 라 ^三 하시 ^三 때 ^三 에 ^三 시 ^三 몬 ^三 베 ^三 드 ^三 로 ^三 가 ^三 옷 ^三 을 ^三 벗 ^三 고 ^三 잇 ^三 다 ^三 가
 주 ^三 라 ^三 하시 ^三 는 ^三 말 ^三 을 ^三 듯 ^三 고 ^三 곳 ^三 옷 ^三 을 ^三 닐 ^三 고 ^三 밧 ^三 후 ^三 에 ^三 바 ^三 다 ^三 로 ^三 뛰 ^三 여 ^三 느 ^三 러 ^三 가 ^三 는 ^三 지 ^三 라

八 다른 데 즈들이 언덕에서 샹거가 불과 한 오십말쯤 되매 적은 비를 두르고
 九 그물에 마득흔 고기를 썬을고니 르러 언덕에 올라 보니 숯불을 피엿는듯
 十 성션과 썬이 그 위에 노혔더라 예수 궀 샤디 지금 잡은 물고기기를
 十一 좀 가져오라 호신티서몬 베드로가 곳가져 그물을 썬을어 언덕에 올라니
 十二 그물에 마득흔 큰 고기가 일박수헌세 마리라 이 곳치 만흐나 그물이 썬여
 十三 저지아니 호엿더라 예수 궀 샤디 너희는 와서 죠반을 먹으라 호시니
 十四 데 즈들이 유신티졸 아는고로 누구냐 감히 못지 못하더라 예수 가 오서 썬을
 十五 가져다가 너희게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곳치 호시니라 예수 가 죽은 가온
 十六 되셔 다시 사신티 후에 이 거서 세번재 데 즈의게 나타내신 거시라 ○ 죠반
 十七 먹기를 다 할 때 예수가 시몬 베드로로 드러 낚으샤디 요나의 아들 시몬아
 十八 네가 이 사를들보다 나를 더 사랑호는나 호시니 대답호디 유여 그러호외다
 十九 주를 사랑호는 줄 유씩셔 아시니이다 호니 궀 샤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二十 호시고 또 두번재 궀 샤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호는나

三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호는나 호시니 세번 말씀호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
 四 호는나 호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호야 궀 디 유여 아지 못호심이 업스온즉
 五 내가 주를 사랑호는 줄을 유씩셔 아시니이다 호니 예수 궀 샤디 내
 六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노 진실노 네게 낚으노니 어려셔는 네 손으로
 七 썬을 묵고 임의로 든넛거니와 늑으면 네 손을 퍼리니 늑이 너를 묵거
 八 원치아니 호는 곳으로 잡아가리라 이 말씀을 호심은 베드로가 엿더케 죽어
 九 하느님을 영화롭게 할 거슬 마르치심이라 말슴을 못초시고 베드로로 드러
 十 낚으샤디 나를 쓰르라 호시니 베드로가 몸을 도리켜 보매 예수의 사랑
 十一 호시는 데 즈가 쓰르르는데 이전에서 녀 먹을 때에 예수 품에 의지호야 주를
 十二 잡아줄 사람이 누구오닛가 못던 사람이러라 베드로가 보고 예수 썬 못지와
 十三 궀 디 유여 이 사람은 엿더케 되겟습는 잇가 호니 예수 궀 샤디 내가
 十四 을 썬지 더를 머물너 잇게 호고져 호나 네게 무슨 상관이 잇겟는나 너는
 十五 나를 쓰르라 호시더라 이 말슴이 형제들의게 호혀져 낚으기를 이 데 즈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니 예수의 말씀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심이 아니라
 다만 내가 올 때까지 ^{二四}더를 머물러 있게 하고져하나 네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심이러라 ○ 이 일을 증거하야 기록한 사람이 데즈라 또 유리
 도 그 증거가 참인줄 아노라 ○ 예수의 다른 형적이 또 만흐니 다 낮낮치
 기록하려하면 내 생각건대 기록할 책을 둘 곳이 이 세상이라도 부족
 할리라 아멘

수도 행전

데오빌노여 내가 묻져 기록한 글에 예수께서 처음부터 승려하신 날까지
 행하신 모든 일과 그 큰 처심을 그 존지라 ^{二五}행하신 수도의게 임의 성신으로
 명하시고 해^三빛으신 후에 여러 증거로 수도의게 천히 사심을 나타내사
 스십일을 너희게 보이사 하느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四수도와 ^五곳
 모히사 너희의게 분부하야 글으샤 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바지의
 허락하신 거슬 기다리라 그 거슨 너희가 임의 내게 드렸느니라 ^五요한은
 물노 제례를 베프렀스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신으로 제례를 밧으
 리라 ^六하셨느니라 ○ 수도들이 모혔을 때에 예수께서 글으샤 디 유씩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 잇가 하니 글으샤 디 어느 날이나
 어느 때나 아바지씩셔 ^七조과의 권제로 영하신 거신디 너희의 알거시
 아니오 성신이 너희게 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잇고 또 예루살렘과 원
 유대와 사마리아와 싸웠는지 나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九이 말씀을

1 못초시고 승려하시는지라 데즈들이 보매 구름이 접하야 보이지 아니하시
 2 더라 올나 가실 때에 데즈가 저세히 하늘을 쳐다보니 두 사람이 흰옷을
 3 입고 곁헤서서 ¹¹글으되 갈닐니 사를들아 엿지하야 서서 하늘을 쳐다보니
 4 이 예수를 너희 가운데서 하느노 올녀가섯스니 하늘노 올녀가심을 본대로
 5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 데즈들이 감람산이라 하는 산으로 브러 예루살렘에
 6 도라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갓가와셔 안식일에 가기 알므즌 길이라
 7 나르러 너희 류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8 밋 빌립과 도마와 밋 바돌로매와 마태와 밋 알배오의 아들 야고보와
 9 예열이라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오 유다가 다 거기 잇서 ¹⁴야고보와
 10 예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오들노 더브러 ¹⁵모음을 ¹⁶모치 하야 힘써
 11 흥상기도하더라 ○ 그 때에 무리의 수가 한 일백이십 명이나 되는지라
 12 베드로가 그 형데 가온되 니러서서 ¹⁷글으되 형데들아 성신이 다윗의 입을
 13 의탁하샤 예수 잡는 사람을 지로흔 유다를 ¹⁸므르쳐 미리 말씀하신 성령이
 14 응하였스니 맛당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가 온대 참예하야 이 직분을

1 맛한자라나 이 사람이 불의의 갑스로 ¹⁹밧출사교 후에 몸이 군두막 정하야
 2 비가 터져 창조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다
 3 아는고로 방언에 그 밧출닐으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밧치라 ²⁰시편에
 4 기록하였스되
 5 그 집이 망하야 거할 사람이 업스리라
 6 하였고 또 ²¹닐넛스되
 7 그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엿으리로다
 8 하였스니 ²²이러함으로 요한의 제례로 브러 우리 가운데서 승려하신 날까지
 9 주 예수 씨셔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²³흥상 함씨 든니던 사람 중에
 10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브러 예수의 부활함을 증거 할 사람이 되게 함이
 11 맛당하다 하거늘 ²⁴데희가 두 사람을 택하니 하나는 요셉이라 일함을 바사바
 12 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자요 둘재는 맛티아라 ²⁵데희가 기도하야
 13 ²⁶글으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바
 14 되여 ²⁷스도의 직분 맛을자를 보이시옵쇼셔 유다는 이 직분을 브리옵고

제 곳으로 갖는 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맛디아를 엮으니 더가 열흔 스도와
반렬을 흠씩 한다

오순절 날이 임의 니르매 데즈들이 다 못치흔 곳에 모혔더니 홀연히
하늘노브터 소리 잇서 크고 급흔 바람 못치 더희 안즌 윈 집에 막 득흔며

불 못흔 혀가 갈나진 거시 더희게 보여 각 사람 우에 림흔야 잇더니
데즈들이 다 성신에 충만함을 엮어 다른 나라 방언을 말흔니 성신이 말흔게

항신대로 못치라 ○ 그 때에 경건흔 유대인이 텨하 각 국으로 브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여러 사람이 모혀 데즈들이 각

사람의 방언대로 말흔는 거슬 듯고 분분히 놀나며 다 괴이히 녀여 날으되
불지어 다 이 말흔는 사람이 다 같닐니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그 말흔는

거슬 드르니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을 말흔는 거시 엇집이뇨 우리는
바대 사람과 예대 사람과 엘남 사람과 또 메소보다미아와 유대와

사람 곳 유대인과 혹 유대교에 드러온 사람과 그레게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라 하는 님의 큰 권능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말흔음을

듯는다 하고 다 놀나며 또 못치 못치야 서로 무러 글으되 이 엇진 일이냐
항치 또 희롱흔는 사람이 잇서 글으되 새 술이 취하엿다 하더라 ○ 베드로가

열흔 스도와 못치 서서 소리를 높혀 글으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게 알게 하거시니 내 말을 드르라 새가 스시초니 너희

싱각과 못치 이 사람이 취흔 거시 아니라 이는 곳 선지자 요엘의 말흔
거시니 날넷스되

너희는 님이 글으샤되 말제에 내가 내 성신을 만인의게 부어 주리니
너희 즈녀들이 장리 일을 말흔를 거시오 너희 젊은 이는 이상함을 보고

너희 늙은 이는 심을 꾸리니 그 때에 내가 성신으로 내 남종과 녀종의게
부어 주리니 장리 일을 말흔를 거시오 내가 하늘 우에 괴스와 싸아래
이적을 피와 불과 연기로 나타내여 혀가 어두어 지고 들이 피빗 못치
변함이 주의 날이 니르기 전에 잇스리니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 누구던지

쥬의 일홈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잇으리라

호엿스니라 호고 또 글으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드르라 하는 니씨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이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게 호심이
너희 압혜져 증거가 되엿스니 너희도 아는 거시라 그가 하는 니씨의 영호신
뜻과 머리 아신대로 잡혔거늘 너희가 법업는 자의 손을 비러 못박아 죽인
거슬 하니 니씨서 살니사 스망의 결박을 푸러 주섯스니 이는 죽은 디 능히
미이지 못함이라 다윗이 더를 푸러 글으디

쥬씨서 호상 내 압혜 계신 거슬 보니 내 올흔 편에 계셔 나로 호여곰
육적이 지안케 호시는 고로 내 맘이 깃버 입으로 찬미 호고 또 호내
육신이 무덤에서 도 버라는 거시 잇슴은 쥬씨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 호샤 쥬의 거룩한 자로 썩는 디 나르지안케 호시고 쥬씨서
내게 성명 길을 알게 호섯고 또 그 압혜져 기쁨이 충만하게 호시리로 다
호엿스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의 일노 맛당히 복게 호고 하니 다윗이

하나님이 임의 명세 호샤 그 오른 중에 호 사름을 세우샤 그 위에 안게
호리라 호심을 알고 이 거슬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 호심을 말 호디
더를 음부에 버리지안코 몸을 썩는 디 나르지안케 호시리라 호엿스니
이 예수를 하는 니씨가 살니심을 우리가 다 증거 호노니 하는 니씨가 올흔 손으로
예수를 놓히시매 허락 호신 성신을 아바지씨 밧아셔 우리의게 부어 주섯
스니 너희 보고 듣는 거시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 호엿스나 오직
천히 말 호야 글으디

쥬씨서 내 쥬의게 낼 호샤 디 내 올흔 편에 안져셔 내가 너의 원슈로
너의 발등상 문들기를 기도리라

호엿스니 그런즉 이스라엘 원집이 영영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는 니씨가 임의 쥬와 그리스도가 되게 호섯스니라 호더라
여러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맘에 찌르는 것 호야 베드로와 다른 수도드려
무러 글으디 형제들아 우리가 엇지 호고 호거늘 베드로가 글으디 너희가
회기 호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일홈으로 세례를 밧고 죄 사함을 잇으리라

수도 삼장

삼십륙십팔

그리하면 주신 성신을 받으리나 이 허락하신 것은 너희와 너희 조손과
 모든 면히 사람들을 위하야 혼 거시니 곳 주 우리 하는님이 열마던지
 부르시는 사람이라 하고 또 여러 말도 증거하며 권하야 글으되 너희가
 이 사특한 세상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세례를
 받았으며 이 날에 데즈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니라 ^{四三}홍상 수도의 ^{四四}그림을
 밧아서로 교접하며 떡을 썰어 먹으며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 ^{四五}사람마다
 두려워하는지라 또 수도들이 괴스와 이적을 만히 행하니 ^{四六}밧는 사람이 다
 혼 곳에 잇서 물건이 잇고 업음을 서로 동용하고 또 ^{四七}던장과 가산을 팔아
 각 사람의 업는대로는 화 주고 날마다 믿음을 ^{四八}못치하야 성면에 모히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깃뵈과 정성으로 떡을 썰어 먹고 하는님을 찬미하고 여러
^{四九}벽성의 사랑함을 넘으니 주께서 구원할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신시초 기도할 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면에 올라갈식 나면서 ^{五〇}안흔방이
 된사람을 날마다 메여다가 성면 문에 두니 문 일흔은 ^{五一}미문이라 성면에

三九

四〇

四一

四二

四三

四四

四五

四六

四七



함을 보고 구원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더 올라가 ^{五二}주목하야 ^{五三}말하되
 보라 하니 그 사람이 보고 무엇엇기를 ^{五四}말라거늘 베드로가 ^{五五}글으되 ^{五六}은과
 금은내게 업거니와 내게 잇는 거스로내게 주노니 ^{五七}곳나사렛에수 그리스도의
 일흔으로든니라 하고 올흔 손을 잡아 이르거니 말과 발목 뼈가 ^{五八}곳함을
 었은지라 ^{五九}뛰여 서서 든니며 두 사람을 ^{六〇}싸라 성면에 드러가 ^{六一}것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는님을 찬미하니 ^{六二}모든 벽성이 ^{六三}그든니는 것과 밧하는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리성면 ^{六四}미문에 안져 구원하던 ^{六五}사람인줄 알고 그 맛난
 일을 괴이히 녀여 놀나더라 ○ ^{六六}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六七}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벽성이 크게 괴이히 녀여 달녀 ^{六八}나아가 솔노문 ^{六九}형랑에 모히거늘 베드로가
 이 거슬 보고 벽성의게 ^{七〇}말하되 이 ^{七一}스라엘 ^{七二}사람들이 이 일을 왜 괴이히
 녀이느냐 우리 권능과 ^{七三}거룩함으로 이 ^{七四}사람을 든니게 ^{七五}흔것처럼 었지 우리를
 주목하야 보느냐 ^{七六}아브라함 ^{七七}과 이삭 ^{七八}과 야곱의 하는 ^{七九}님 ^{八〇}곳우리 조상의 하는님이
 그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八一}하섯거늘 너희가 ^{八二}잡아주매 ^{八三}빌나도는 ^{八四}노하
 주기로 ^{八五}죽였스되 너희가 ^{八六}그압해서 ^{八七}브렸스니 ^{八八}너희가 ^{八九}거룩하고 의로운

四〇

四一

四二

四三

四四

四五

四六

四七

四八

四九

五〇

五一

五二

五三

五四

十五 자는 버리고 도로혀 살인호 사람을 노하 주기를 구하고 성명의 주를
 죽인 자라 하는님이 죽은가온디셔 살니셨스니 우리가 이 거슬 증거하는
 十六 자가 되었노라 그 일홈을 밋는고로 그 일홈이 너희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스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밋음이 이 사람을 너희 모든 사람
 十七 압헤셔 완전히 낮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가 아지못하여셔
 十八 그리흔줄을 알고 너희 관장도 또한 그리흔 자라 하는님이 모든 선지자의
 十九 입을 의탁하여 그의 그리스도가 해 밝으실 거슬 미리 알게 하였더니
 너희 죄 업시움을 밝으라 이 못치면 평안히 폐이는 날이 슈압흐로
 二十 말미암아 니를 거시오 또 주셔셔 너희를 위하여 영하신 그리스도를 보내
 三 시리니 곳 예수라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하늘이 맛당히 예수를 영접하
 三 리니 하는님이 세상 처음부터 기록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三 때라 모세가 말하디 주하는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온디셔 나
 三 又 온 선지자 가온디셔 세울 거시니 너희가 무어서던지 그 모든 말씀은



三 거시라 누구던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빌성 중에셔 다
 三 멸망시키리라 하였스니 또한 삼우엘 때부터 음으로 말하 모든 선지자가
 三 다 이 때를 무르친 거시라 너희가 선지자의 손을 오또 하는님이 너희
 三 조상으로 더브러 세우신 언약을 밝을 손을이라 아브라함의게 낳으시기를
 三 싸우에 모든 족속이 너의 손을 힘입어 복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아들
 三 예수를 세워 복주시라고 너희게 몬져 보내샤 너희로 하여곰도리켜 각각
 三 그 악함을 버리게 하였느니라
 三 스도들이 빌성의게 말하 때에 제스제장과 성년 맞흔 자와 사두기교인이
 三 니르러 빌성을 무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가온디셔 부활하는도 전함을
 三 슬허하여 잡으매 날이 임의 저문고로 가도아 낫는날을 기다리나 말씀을
 三 듣는 사람 중에 밋는 자가 만흐니 사나희 수가 거의 오천이나 되더라
 三 五 낫는 날에 유스와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혔는디 제스장
 三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제스장의 족속이 다 참여하여
 三 스도들을 가온디 세우고 무르타 너희가 무슴 권제와 뒤일홈으로 이 일을

수도 스장

삼십칠십이

八 行方였느냐 베드로가 성신이 충만하여 고령이던 비성의 유스와 장로들이
 九 만일 오늘날 병인의게 행할 착한 일을 인하여 우리의게 못기를 엮지 낮게
 十 하였느냐 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비성들의게 알게 하리나 나사렛 예수
 十一 그리스도의 일홈으로 사람이 나아서 너희 압해 완전히 섰는지라 이
 十二 예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자인디 하는님이 죽은가 온디셔 살니셨스니
 十三 곳 너희 장인들의 버린 돌인디 임의 집 모퉁이에 머리 돌이 되었는지라
 十四 련하 인간에 다른 일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엮지 못하리나 이
 十五 빛게 다른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엮을수 업느니라 하더라 ○ 여러 사람이
 十六 베드로와 요한이 굿세게 말함을 보고 그 본디 불학 무식한 비성으로
 十七 알았다가 괴이히 녀이고 또 그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온
 十八 사람이 굿치 섰는 거슬 보고 무슴 말노 힐난할수가 업는지라 명하여
 十九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고령이던 이 사람들을 엮지 처치할고
 二十 다 회가 유명한 이적 행함을 예루살렘에 사는 비성의게 나타내었스나

一 이 후에는 이 일홈으로 아모 사람의게도 말하지 말게 하라 하고
 二 불너 경계하여 다시 예수의 일홈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르치지도 말라
 三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고령이던 하느님 압해서 너희 말듯는 거시
 四 하느님 말씀듯는 것보다 올흔가 결단하라 우리가 보고 드른 거슬 말하지
 五 아니할수 업다 하니 유스들이 스도를 다시 공갈하여 노코 비성을 무서워
 六 형벌할 핑계를 엮지 못하는 거슨 비성들이 그 행한 일을 보고 다 하느님 색로
 七 영화를 돌너 보낸이니 스십여 세 된 사람의 병나온 이적을 봄이러라 ○
 八 스도가 임의 노히매 그 동류의게 가서 제스 제장과 장로의 말을 다 고하니
 九 너희가 듯고 굿치 하는님께 소리를 높혀 고령이던 대주지여 련디와 바다와
 十 그가 온디 만물을 지으신이시니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샤
 十一 성신으로 말씀하샤 디
 十二 이방이 엮지하야 소란하며 족속들이 엮지하야 헛된 일을 경영하느뇨
 十三 세상 님군들이 나타나고 제후들이 모혀 주와 밋그 그리스도를 거스린다
 十四 하시더니 해롯왕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비성이 과연

이성에 모혀하는님이 기름부으신 거룩한 아들 예수를 거스려 하는^{三八}님의 권능과 뜻대로 미리 덩하신 거슬 일우엇스오니 주께서^{二九}는 더희의 공갈함을 감동야 보옵시고 또^{三〇} 종으로 하여곰 아조 곳세게 하는^{三〇}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三〇} 펴서 병을 나게 하옵시고 이적과 괴스를 거룩한 아들 예수의 일흠으로^{三一} 행하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매 모힌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신이 충만하여^{三二} 곳세게 하는^{三二}님 말씀을 전하더라 밋는 무리가^{三三} 한 믿음과 한 뜻이 되어 온갖 물건이 잇고^{三三} 업슴을 서로 동용하고 제 저물을 조곰이라도 제 거시라 하는^{三三}이가 업더라 수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三三}엇어 그중에 꺾절한 사람이 업스니^{三五} 밋과 집 잇는자는 팔아 그^{三五}판물건의 갑슬 가져다가 수도발압해 두매^{三五} 더희가 각 사람의 쓰는대로^{三五}는 화주더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잇스니^{三五} 일흠은 요셉이라 수도들이^{三五} 날궤려 바나바라 하니^{三五} 번역하면 권위자라^{三五} 밋치 잇스매 팔아^{三五} 갑슬 가지고 수도발압해

아나니아라 하는^{三六}사람이 잇스니 그^{三六}안희 삼비라로 더^{三六}브러 단장을^{三六}팔아 그^{三六}갑슬 밋아^{三六}얼마를^{三六}금초매 그^{三六}안희도 아는지라^{三六}얼마를 가져다가 수도발압해 두니^{三六} 베드로가^{三六} 글으되 아나니아야^{三六}엇지하여사단이네^{三六} 믿음에 그득하여^{三六}네가 성신을 속이고^{三六}쌍갑얼마를^{三六}금초앗느냐^{三六}쌍이 그대로 잇슬 때에는^{三五}네쌍이 아니며^{三五}판 후에^{三五}네 임의로^{三五}할수가 업더냐^{三五}엇지이러케 믿음에^{三五}싱각하였느냐^{三五}사람을 속인 거시^{三五}아니오 하는^{三五}님을 속임이로다 아나니아^{三五}가 이 말을^{三五}듯고^{三五}곳업더져^{三五}혼이^{三五}떠나니^{三五}이 일을^{三五}듯는^{三五}사람이다 크게^{三五}두려워하는^{三五}지라^{三五}젊은^{三五}사람들이^{三五}니라^{三五}시신을^{三五}싸져^{三五}매고^{三五}나가 장사하니라^{三五}○^{三五}흔시반^{三五}증^{三五}되여^{三五}그^{三五}안희가^{三五}그^{三五}행한^{三五}일을^{三五}아지^{三五}못하고^{三五}드러오니 베드로가^{三五} 글으되^{三五}네^{三五}쌍^{三五}판^{三五}갑^{三五}시^{三五}이^{三五}것^{三五}뿐이나^{三五}말하라^{三五}하니^{三五} 글으되^{三五}네^{三五}이^{三五}뿐이로라^{三五}흔디^{三五}베드로가^{三五} 글으되^{三五}너희가^{三五}엇지^{三五}함씩^{三五}쌍하여^{三五}주의^{三五}성신을 시험하려^{三五}하니^{三五}네^{三五}지아비를^{三五}장사하고^{三五}오는^{三五}사람의^{三五}말이^{三五}문압해^{三五}니르^{三五}릿스니 또^{三五}너를^{三五}메여^{三五}나가^{三五}리라^{三五}흔디^{三五}곳^{三五}베드로의^{三五}말^{三五}압해^{三五}업더져^{三五}혼이^{三五}떠나는지라 젊은^{三五}사람들이^{三五}드러와^{三五}죽은^{三五}거슬^{三五}보고^{三五}메여다가^{三五}그^{三五}지아비^{三五}것^{三五}해^{三五}장사하니

^{十二}원 희종과 무릇듯는 사름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 ^{十三}수도들이 손으로
^{十三}만간에서 이적과 괴스를 만히 행홀식 밋는 사름이 다 ^{十四}모음을 ^{十五}못치하야
^{十四}솔노몬히랑에 모히고 그 ^{十五}늬아지는 감히 상종하는 사름이 업스나 ^{十六}빅성이
^{十五}칭송하니 사름이 밋고 ^{十六}쥬씨로 더 만히 도라가매 ^{十七}남녀가 심히 만흔지라
^{十六}병든 사름을 메고 ^{十七}거리에 나가 ^{十八}평상과 ^{十九}보료우에 ^{二十}누이고 ^{二十一}베드로가 ^{二十二}지날
^{十七}때에 후그 그림즈가 ^{十八}뉘게던지 ^{十九}덤힐가 ^{二十}브라고 ^{二十一}예루살렘 ^{二十二}근읍 사름들이
^{十八}모혀 병든 사름과 ^{十九}더러온 귀신의게 괴로움 밋는 사름을 ^{二十}다리고 ^{二十一}와셔 ^{二十二}다
^{十九}나음을 엇더라 ○ ^{二十}대제사장과 그 ^{二十一}못치 잇는 사름은 ^{二十二}사두기교인이니 ^{二十三}다
^{二十}모음에 ^{二十一}의괴가 ^{二十二}그득하야 ^{二十三}다 ^{二十四}니러나셔 ^{二十五}수도를 ^{二十六}손으로 ^{二十七}잡아다가 ^{二十八}욕에
^{二十一}가도앗더니 ^{二十二}쥬의 ^{二十三}스자가 ^{二十四}밤에 ^{二十五}욕 문을 열고 ^{二十六}신을어내여 ^{二十七}글으디 ^{二十八}가셔
^{二十二}성연에 서셔 ^{二十三}이 ^{二十四}성명의 ^{二十五}말숨을 ^{二十六}다 ^{二十七}빅성의게 ^{二十八}말하랴하매 ^{二十九}수도들이 ^{三十}듯고
^{二十三}재벽에 ^{二十四}성연에 ^{二十五}드러가셔 ^{二十六}그르치더니 ^{二十七}대제사장과 그 ^{二十八}못치 잇는 사름들이
^{二十四}와셔 ^{二十五}공회와 ^{二十六}이스라엘 ^{二十七}족속의 ^{二十八}로회를 ^{二十九}다 ^{三十}모호고 ^{三十一}사름을 ^{三十二}욕에 ^{三十三}보내여

^{三十三}말하야 ^{三十四}글으디 ^{三十五}우리가 ^{三十六}욕에 ^{三十七}가셔 ^{三十八}보니 ^{三十九}곳에 ^{四十}잠기고 ^{四十一}적현사름이 ^{四十二}문에 ^{四十三}섯스되
^{三十四}문을 열매 ^{三十五}그 ^{三十六}안에 ^{三十七}한 ^{三十八}사름도 ^{三十九}업더라 ^{四十}하니 ^{四十一}성연 ^{四十二}맛흔자와 ^{四十三}제스제장이
^{三十五}이 ^{三十六}말을 ^{三十七}듯고 ^{三十八}머뭇머뭇하야 ^{三十九}이 ^{四十}일이 ^{四十一}엇지 ^{四十二}될년지 ^{四十三}아지 ^{四十四}못하더니 ^{四十五}사름이
^{三十六}하니 ^{三十七}성연 ^{三十八}맛흔자가 ^{三十九}관속들과 ^{四十}그치 ^{四十一}가셔 ^{四十二}수도 ^{四十三}를 ^{四十四}잡아 ^{四十五}왓스나 ^{四十六}역지로
^{三十七}못함은 ^{三十八}빅성이 ^{三十九}들이 ^{四十}돌노 ^{四十一}철가 ^{四十二}두려워함이 ^{四十三}라 ^{四十四}잡아 ^{四十五}다가 ^{四十六}공회 ^{四十七}압해 ^{四十八}세우니
^{三十八}대제사장이 ^{三十九}무려 ^{四十}글으디 ^{四十一}우리가 ^{四十二}이 ^{四十三}일 ^{四十四}힘으로 ^{四十五}사름을 ^{四十六}그르치 ^{四十七}말나고
^{三十九}엄히 ^{四十}분부하되 ^{四十一}너희가 ^{四十二}너희 ^{四十三}교를 ^{四十四}예루살렘에 ^{四十五}그득하게 ^{四十六}하니 ^{四十七}이 ^{四十八}사름의
^{四十}피를 ^{四十一}우리의 ^{四十二}게로 ^{四十三}돌려 ^{四十四}보내고 ^{四十五}저함이 ^{四十六}로다 ^{四十七}하니 ^{四十八}베드로와 ^{四十九}수도들이 ^{五十}답하야
^{四十一}글으디 ^{四十二}하나 ^{四十三}님을 ^{四十四}순종하는 ^{四十五}거시 ^{四十六}사름을 ^{四十七}순종하는 ^{四十八}것보다 ^{四十九}맛당히 ^{五十}홀
^{四十二}거시 ^{四十三}니라 ^{四十四}너희가 ^{四十五}나무에 ^{四十六}달아 ^{四十七}죽인 ^{四十八}예수를 ^{四十九}우리 ^{五十}조상의 ^{五十一}하는 ^{五十二}님이 ^{五十三}살니 ^{五十四}시고
^{四十三}그를 ^{四十四}을 ^{四十五}흔 ^{四十六}손으로 ^{四十七}놉히 ^{四十八}샤 ^{四十九}님 ^{五十}군도 ^{五十一}삼고 ^{五十二}구 ^{五十三}쥬도 ^{五十四}삼아 ^{五十五}이스라엘 ^{五十六}노 ^{五十七}하야 ^{五十八}곰
^{四十四}희기 ^{四十五}게 ^{四十六}하야 ^{四十七}죄를 ^{四十八}샤 ^{四十九}하야 ^{五十}주 ^{五十一}고 ^{五十二}저 ^{五十三}하시니 ^{五十四}우리가 ^{五十五}이 ^{五十六}일을 ^{五十七}증거 ^{五十八}하고 ^{五十九}하는 ^{六十}님이
^{四十五}또 ^{四十六}순종하는 ^{四十七}사름의 ^{四十八}게 ^{四十九}주 ^{五十}신 ^{五十一}성 ^{五十二}신 ^{五十三}도 ^{五十四}증거 ^{五十五}하시니 ^{五十六}라 ^{五十七}하더라 ○ ^{五十八}너희가 ^{五十九}이

三六 三五 三六 三七 三八 三九 四〇 四一 四二 四三 四四 四五 四六 四七 四八 四九 五〇 五一 五二 五三 五四 五五 五六 五七 五八 五九 六〇 六一 六二 六三 六四 六五 六六 六七 六八 六九 七〇 七一 七二 七三 七四 七五 七六 七七 七八 七九 八〇 八一 八二 八三 八四 八五 八六 八七 八八 八九 九〇 九一 九二 九三 九四 九五 九六 九七 九八 九九 一〇〇

말을 듯고 크게 노하야 수도 죽이기를 썬홀시 바리시 교인 가 말니 엘이 교법스가 되여 모든 빅성의게 돕힘이 되니라 공회 중에 니러나 명하야 수도를 잠간 밧게 나가게 하고 말하디 이스라엘 사름들아 삼갈지어다 이 사름을 엇더케 처치하랴나 이 전에 드다가 니러나 스스로 자랑할 때 와히가 되엿고 그 후에 호적 올닐 때에 갈닐니 유다가 니러나 빅성을 썬여 좃게 하다가 그 도 또 망홀 죽 좃던 사름이 다희히 졌스매 이제 내가 너희게 말하노니 이 사름을 상과 말고 그만두라 그 좃과 일이 사름의게로셔 낫스면 문히 질 거시오 만일 하느님 씨로셔 낫스면 너희가 능히 문히 터리지 못하교 도로혀 하느님을 디덕 할가 하노라 하니 너희가 그 말을 올케 녀여 수도를 불너 드려 사리고 닐으디 예수의 일홈으로 그르치지 말나 하고 노흐니 수도들이 공회 압해서 셔나 예수의 일홈으로 욱 밧는 거슬 하느님이 할당 하녀 이 심으로 너희가 깃버하야 날마다 성면에 잇던 지 집애 잇던 지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그 때에 예수가 더 만하진 자라 행나를 좃고 유대인 수도가 저희 과부의게 밧치자 아니 함으로 히브리 사름을 원망하디 열두 수도가 모든 데즈를 불너 닐으디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공회를 일삼는 거시 맛당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신과 지혜가 충만하야 칭찬 듯는 사름 닐 곱을 락하라 우리는 이 일을 더히게 맞기교 또 기도하교 말씀 전하기 만 힘쓰리라 하니 원 무리가 이 말을 깃버하야 스테반을 락하니 그는 독실히 밧고 성신이 충만호 사름이 오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나아온 안디옥 사름 니골나를 락하야 수도 압해 세우니 수도가 기도하교 손을 그 우에 안찰하니라 ○ 하느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야 예루살렘에 잇는 데즈의 수가 더 심히 만하지고 허다호 제스장의 무리도 밧고 복종하더라 ○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을 만히 밧아 큰 괴스와 이적을 민간에 행홀시 때에 리버디노라 하는 회당과 밧구레네와 알렉산드리아와 길니기아와 아시아도 각 회당 사름들이 니러나 스테반으로 더 브러 변론홀시 스테반이 지혜와 성신으로

수도 룽장

삼십칠십구

말씀을 그 무리가 능히 당치 못하야 사람을 퇴물 주어 말 식히 글으되
 우리가 드르니 이 사람이 모세와 밋하는 님을 휘방하는 말을 한다 하고
 또 비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 식혀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중증인을 세우니 그가 글으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불법 휘방하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드르니 그 말에 이나 사렛 예수가 이 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의게 전하야 준 료법을 곳치겟다 하더라 하거늘 공회중에
 앉은 자들이 다 스데반을 저세히 보니 그 얼굴이 텅스의 얼굴과 못더라
 대제사장 이 글으되 과연 이러한 일이 잇는나 스데반이 글으되 부형들이여
 드르쇼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메소보다 미아에 잇고 하란에 거하기 전에
 영화로 오신 하느님이 그의게 보여 글으샤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짜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짜를 떠나
 하란에서 거하다가 아비가 죽으매 하느님이 거기셔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겨셨는나라 그러나 여기셔는 유업을 주시지 아니하시매 곳



업이 잇게 하셨는디 그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이 업는지라 하느님이 이
 못치 말씀하시되 그 저손이 다른 짜에 손 노릇하시니 그 짜 사람이 종을
 삼아 스비년 동안을 괴롭게 하시라 하시고 또 글으샤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죄를 당하시니 후에 너희가 장차 나와서 이 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의게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하
 여드래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코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나흐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식기 하야 애굽에 팔앗더니 하느님이 흠씩게서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샤 애굽왕 바로 압해서 은종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애굽 총리 대신을 삼아 종실을 맛껏더니 그 때에 애굽과 가나안
 원짜에 흉년 드러 큰 환란이 잇슬시 우리 조상이 량식이 업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잇단 말을 듯고 문져 우리 조상을 보내고 또 지쳐 보내매
 요셉이 형제로 하여금 동성인 줄 알게 하고 또 요셉의 족속을 바로의게
 알게 하고 요셉이 보내여 그 부친 야곱과 원 족속 닐흔다섯 사람을
 청하엿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죽고 우리 조상들도 거기셔 죽으매

十六 음겨 세겜 외에 장스 하엿스니 이 되는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조손의게
 十七 갑술 은으로 주고 산 싸이라 하는님이 아브라함의게 허락 하신 싸가
 十八 갓가오매 이스라엘 비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야 만하였더니 새 님군이
 十九 애굽왕 위에 오르매 요셉을 아지못하고 우리 족속을 속이고 조상을
 二十 괴롭게 하야 그어린 은혜를 내여 브러 살지못하게 하라 호시 그 때에
 二十一 모세가 낫는디 하는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온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들을
 二十二 기르더니 탈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길너 제 아들을 삼으며 모세가
 二十三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비화 그 말과 형스가 능하더니 나이 스십이
 二十四 되어가매 믿음에 생각이나서 그 형데 이스라엘 조손을 가블시 호 사람
 二十五 원동한 일 당함을 보고 모호하야 늘닌 사람을 위하야 원수를 갹하 애굽
 二十六 사람을 쳐죽였스니 생각간대 형데들이 하는님씩셔 그 손으로 구원하심을
 二十七 세드를듯하나 형데들이 세드지못하느니라 잇흔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호
 二十八 때에 와서 화목 식히라 하야 골오디 니회는 형데라 잇지 서로 해하느나

二十九 법관을 삼아 우리를 다스리게 하더니 내가 어제 애굽 사람 죽임과 못치
 三十 또 나를 죽이라느나 하니 모세가 이 말을 듯고 도주하야 미디안에서
 三十一 손노릇하며 아드들을 나하더니 스십년이 차매 띠스가 시내산 광야 가서
 三十二 덤불 불뿔가온디셔 모세의게 보이거늘 모세가 보고 괴이히 녀여 압호로
 三十三 나아가 조세히 보라하니 주의 소리 들녀 골오샤디 나는 네 조상의
 三十四 하는님이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는님이라 하신디 모세가 무셔워
 三十五 쉰며 감히 보지못하니 주이 골오샤디 네 발에 신을 버스라 네 섰는 싸는
 三十六 거룩한 싸이니라 내 비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명녕히 보고
 三十七 단식하는 소리를 임의 듯고 내가 구원하라고 느려왔노니 시방 너를
 三十八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섯느니라 비성이 일족 모세를 슬허 브리며 말하디
 三十九 누가 너로 유스와 법관을 삼앗스나 하엿스나 하는님씩셔 가시 덤불가온디셔
 四十 보이던 띠스를 의탁하야 이 모세를 보내야 유스를 삼고 속량하는자를
 四十一 삼으섯스니 이 사람이 비성을 인도하야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히와
 四十二 광야에서 스십년을 괴스와 이적을 행하섯느니라 또 호 일족 이스라엘

三六 즈손의게 말하되 하는님이 너희 형제 가온디셔 나와 갓흔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하던자가 곳이 모세라 광야 교회에 잇서 시내산에서 말하던
 三九 려스와 흠씩 잇스며 우리 조상과 갓치 잇섯고 또 성명의 도를 밧아 우리를
 주던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이 모세의게 복종치아니하교져하야
 四〇 막으며 그 믿음으로로 하여 굽으로 향하야 아론드려닐으되 우리를 위하야
 四一 우상을 만든러 우리를 인도하게 하라 애굽싸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는
 四二 어디로 간지 아지 못한다 하교 그 때에 사람들이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四三 만든러 그 압해 제스하교 저희 손으로 만든 거슬 깃버하더니 하는님이
 더 사람들을 도라보시지아니하샤 그 하늘의 별 섬김을 브려두신거시
 선지자의 책에 기록한대로 되었스니 닐넛스되

이스라엘 족속들아 스십년을 광야에서 었지하야 짐승을 잡아 제물을
 삼아 내게 드렸느냐 물독의 장막과 귀신 레판의 별 형상을 가지교
 四四 온넛도다 이 거손 너희가 절하고져하야 만든 우상이니 이 너희로

四五 하신지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의게 증거하시느 장막이 잇섯스니 이 거손
 모세의게 말씀하신 하는님이 영하샤 보이신 모본대로 만든게 하신거시라
 四六 우리 조상이 그 장막을 밧아 가지교 여호수아로 더브러 이 방싸에 드러가매
 하는님이 그 싸 사람을 우리 조상 압해셔 쫓치시니 이 장막이 다윗
 四七 때까지 나른지라 다윗이 하는님 압해셔 은혜를 밧아 야곱의 하는님을
 四八 위하야 제실 집을 짓게 하야 달나 하더니 솔로몬이 성당을 지엿스나
 四九 그러하나 지금히 높으신이는 손으로 지은 연애 계시지아니하시느니
 선지자의 말에 닐넛스되

五〇 주셔셔 글으샤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싸는 나의 발등상이니 네가
 五一 었더흔 집을 지여 나를 거하게 하며 무슴 싸으로 나의 실 곳을
 五二 하랴느냐 이 거시 다 내 손으로 지은 거시 아냐
 五三 하엿느니라 목이 곳교 믿음과 귀로 할례를 밧지 못흔 사람들을 아 향상 성신을
 五四 거스리니 너희 조상이 행한 것 갓치 너희도 행하느도다 선지자 중에
 五五 누구던지 너희 조상이 꺾박지아니하엿느냐 올흔 사람이 오시리라 예언할

五三 사람을 너희 조상이 죽였고 이제 너희가 또 그 올흔 사람들을 잡아 주어
 五二 죽였스니 너희가 단스의 전훈 룰법을 밧아도 직히 지아니 하였다 하더라 ○
 五二 못사람이 이 말을 듯고 믿음에 쥘너 니를 갈고 향하거늘 스데반이 성신의
 五二 충만하야 하늘을 우러러 지체히 보매 하느님의 영화와 밧예 수씩셔 그
 五二 을 올흔 편에 서신 거시 보이느니라 말하디 불지어 다 내가 보니 하늘이
 五二 열니고 인지가 하느님을 올흔 편에 서섯다 하디 너희가 소리를 자르며 귀를
 五二 막고 믿음을 꺾치하야 달녀 드러 성밧게 내치고 돌노 철시 증인이 옷을
 五二 버셔 사울이라 하는 젊은이 밧압해 두니라 무리가 돌노 스데반을 치니
 五二 스데반이 부르지져 글으디 주여 수여 내 영혼을 밧으시옵쇼셔 하고 무릅을
 五二 깔고 크게 불너 글으디 주여 이 죄를 더 사람의게 돌녀 보내지 마옵쇼셔
 五二 말을 못초고 자니라

五二 사울이 그 죽는 거슬 보고 또 맛당히 녀이더라 ○ 그 날에 예루살넴에 잇는
 五二 교회가 크게 핍박을 맞나 스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자으로

八

五二 교회를 잔멸하시 각 집애 드러가 남녀를 잡아 옥에 가도니라 ○ 그 후히 전
 五二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두루 전하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애 느려가
 五二 그리스도를 빌립의게 전파하니 무리가 그 말도 듯고 히흔 이적도 보고
 五二 일심으로 빌립의 말을 좃는지라 여러 사람의게 붓혔던 더러운 귀신이
 五二 크게 소리를 자르며 나가고 또 여러 풍증 들닌 사람과 안존방이 가나으니
 五二 성종이 크게 깃버하더라 ○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본리 성안에서 요술을
 五二 행하야 사마리아 백성을 놀내며 제 몸을 크게 자랑하니 느진 사람브러
 五二 돕흔 사람까지 다 복종하야 글으디 이 사람은 하느님의 권능이니 크다
 五二 하리로다 하더라 오래 요술노 백성을 놀내매 너희가 다 복종하더니
 五二 빌립이 하느님 나라 복음과 밧예 예수 그리스도의 일흔 전훈을 밧고 남녀가
 五二 다 세례를 밧으니 시몬이 또 밧고 세례를 밧은 후에 빌립과 꺾치 둔니며
 五二 그 행하는 이적과 권능을 보고 놀나더라 ○ 예루살넴에 잇는 스도들이
 五二 사마리아도 하느님 말씀을 밧았다 함을 듯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니
 五二 두 사람이 느려가서 무리를 위하야 성신 밧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올

九 사름도 성신 느리심을 맞지 못하고 오직 주 예수 의 일심으로 세례만 받음을
 八 썩이러니 스도가 손으로 무리의게 안찰할 때 즉시 성신을 받는지라 시몬이
 七 스도의 손을 안찰함으로 성신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골으디 이 권능을
 六 내게 주어 누구던지 내 손으로 안찰하는 사람도 성신을 받게 할야 주쇼셔
 五 하니 베드로로 골으디 네 생각에 하는님이 주신 것을 돈 주고 사갓다 하니
 四 은파 네가 옳치 망할 지어 다 하는님 압혀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三 도에는 참예 처도 못할 거시오 받을 것도 업느니라 그런고로 이 네 악함을
 二 회기 하고 주색과 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할야 주시리라 나 보기에는
 一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한야 불의에 미인바 되었도다 시몬이 디답하야
 二 골으디 나를 위하야 주색과 도하야 말흔 거시 내게 립히 지말게 하쇼셔
 三 하더라 〇 두 스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야 크게 칭고 예루살렘으로
 四 도라갈시 사마리아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더라 〇 주의 스자가 빌립드려
 五 빌립도 길으디 나려나서 남으로 향하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노
 六

九 간다게의 모든 국교를 총찰하야 큰 권세가 있는 나사라 레 빌립하러 예루살렘에
 八 왔다가 도라갈시 병거를 두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니 성신이
 七 빌립드려 빌립 사디 병거 압호로 갖가히 가라하시거늘 빌립이 급히 가서
 六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듯고 말하디 너는 무슨 책을 읽는뇨
 五 디답하디 크게 쳐주는 사람이 업스니 엇지 능히 알니오 하고 빌립을
 四 청하야 병거에 올라 옳치 안프라 하니 너는 성경 귀절은 이 거시니 빌립스디
 三 사람의게 신을님이여 양이 죽을 때에 나아가는 것 옳도다 그 입을
 二 열지아나 흠이여 어린 양이 털 째는 사람 압혀셔 소리 업는 것 옳도다
 一 그 질 때에 공의 업시 국문할 때 성명이 싸에서 멸하엿스니 누가 그
 二 세디를 기록하리오
 三 하엿거늘 너시 가 빌립드려 부르디 청컨대 못노나 선지자가 이 말흔 거시
 四 누구를 크게 칭이뇨 저기를 가르침이뇨 타인을 크게 칭이뇨 빌립이 입을
 五 열어 이 성경에서 브터 예수를 크게 복음을 전하니 가다가 물잇는 곳에
 六 니르러 너시 가 말하디 볼지어다 물이 잇스니 세례를 받아도 관계치 아니하뇨
 七

삼십팔십삼구

九

三七 빌립이 글으되 네가 믿음은 온전히 하야 믿으면 가하니라 디답하야 글으되
 三六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님아 들인 줄 믿노라 하니 명하야 병거를 머믈고
 三五 빌립과 너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갈 식
 三四 주의 신이 빌립을 잇살어 간지라 너시가 다시 보지 못하고 혼연히 길을
 三三 가더라 빌립이 아소도에 이르러 여러 성을 지나 든니며 복음을 전하고
 三二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三一 사울이 여전히 성내여 주의 데즈들을 공갈하며 죽이고져하야 대제사장에게
 三〇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붓치는 공문을 구하야 가지고 만일 그 도를
 二九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 오리라 하고 사울이
 二八 히가야 다메섹에 갔가히 가더니 혼연히 하늘로셔 붉은 빛치 두루
 二七 빛최는 지라 싸에 엎더져 드르매 소리 잇서 글으샤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二六 었지 나를 핍박하는나 하시거늘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잇가
 二五 글으샤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아니라 성으로 드러가라 히가
 二四

二三 만듯고 사람은 보지 못하더라 사울이 이르나 눈은 쳐도 보지 못하니 사람이
 二二 손으로 신을고 다메섹으로 가서 사울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二一 전폐하니라 ○ 그 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데즈가 잇더니 주께서
 二〇 이상한 가온디 불너 글으샤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디답하되 주여 내가
 一九 여긔 잇는이다 하니 주이 글으샤되 너러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一八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차즈라 더가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라
 一七 하는 사람이 드러와서 손으로 그 우에 안찰하야 다시 보게 하는 거슬
 一六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 디답하되 주여 내가 여러 사람의 말을
 一五 듯스오니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를 대단히 괴롭게 하였다
 一四 하더니 이제 여긔서 제스제장의게 잇은 권세가 잇서 주의 일흠 부르는
 一三 사람을 다 잡는다 하시이다 하시거늘 주이 글으샤되 갈지어다 그 사람은
 一二 나의 썬 그릇이 되어 내 일흠을 이방 사람과 남군과 이스라엘 조손 압해
 一一 전할 거시니 그 사람이 내 일흠을 위하야 해를 열마나 밋아야 할 거슬
 一〇 내가 보이라 하시니 아나니아 가려나 그 집에 가서 손을 사울 우에

안찰하여 글으되 형제 사울아 네가 올새에 길에서 보이시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여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신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죽시 사울의 눈에 비늘 곳흔 거시 버셔지며 다시 보니 내려서 제례를 밧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 사울이 다메섹에 잇는 데즈와 곳치 잇스지 두어 날에 드디여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느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나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일홈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고 또 여기 와서 너희를 잡아 제사장에게 인도어 가고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다메섹에 잇는 유대인의 말을 색거 예수를 그리스도라 설명하더라 ○ 만흔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썩하더니 그 계교를 사울이 안지라 너희가 밤낮으로 성문까지 직혀서 죽이고져하거늘 데즈들이 밤에 광유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 들어 느리우니라 ○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데즈들을 사고고져하니 다 두려워 그 예조 됨을 밧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다리고 가서 수도들을

예수의 일홈으로 굿제게 전도하던 거슬 다 말하니라 사울이 데즈들과 못치 잇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썩 주 예수의 일홈으로 굿제게 도를 전하야 헬나를 죽는 유대인들과 못치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기를 썩하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다리고 느려가서 다소로 보내더라 ○ 그새에 원 유대와 같닐니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덕을 세우며 주를 두려워하야 행하며 성신의 위로함을 얻어 사람의 수가 더 만하지더라 ○ 그새에 베드로가 스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루다에 잇는 성도의게로 상우에 느려가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맞나매 바람병으로 상우에 누은지 팔년이라 베드로가 글으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낮게 하시니 내려나 상을 슈습하라 하니 곳나리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보고 주석로 도라가더라 ○ 읍바에 다비다라 하는 녀도가 잇스니 번역하면 도르가라 본리 착흔 일을 만히 행하야 빙성을 구제하더니 그새에 병드러 죽으매 시례를 써서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읍바에

三九

지체말고 오라고 근청하엿더니 베드로가 니러나 두 사람과 꺾치 가서

임의 니르매 더희가 다리고 다락에 올라가는지라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것헤서서 울며 도르가가 살았슬때 지은 속옷과 것옷을 다 내여 보이

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여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몸을 도리켜

시례를 향하여 글으되 다비다야 니러나라 하니 그 과부가 곧 눈을 썩

베드로를 보코 니러나 안는지라 베드로가 손으로 붓드러 니르키고 여러

성도와 과부를 불러 드려 다시 산 거슬 보이니 원읍바 사람이 알고 만히

주를 밋는지라 베드로가 읍바에 여러 날 잇서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류하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잇스니 잇달니 영문이라 하는 영문의

빅부장이라 그 사람이 경건하여 원집으로 더브러 하는님을 두려위하며

빅성을 만히 구제하고 하는님씩 흥상 기도하더니 황로는 신시초 즘 되여

이상은 가온되 불히 보매 하는님의 스자가 드러와 글으되 고넬료야 하니



네 기도함과 구제함이 하는님 압해 상달하여 괴여 하시니 바다가 되엿스니

네가 지금 사람을 읍바에 보내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바다가에

사는 피장이 시몬의 집에 우거하엿다 하고 텨스가 물너 가거늘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피신군스가 온되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읍바로 보내니라 ○ 잇흔날 더희가 흥하여 성에 갖가히 가더니

씨가 오정이나 된지라 베드로가 기도하고 집웅에 올라갈척 시장하여

먹고저하거늘 집사람이 찬을 갖출때에 비몽스몽간에 보니 하늘이 열니며

흔 그릇이 그 압해느러오되 그형상이 큰보즈고 네 귀를 띠여 싸에

드리우니 그안에 싸에 잇는 각척 네 발 가진 짐승과 버리지와 공웅에

는새가 잇는되 쏜소리가 잇스되 베드로야 니러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 글으되 주여 가치아니하시이다 무론 속되고 섹곳지아니흔

물건을 내가 도모지 먹지아니하엿습니이다 하되 쏜두번 소리 잇스되

하는님씩 섹곳이 하시거슬네가 속되다 하지말나 이긋치 세번 하고

그 그릇을 곳하늘노 올녀가느니라 ○ 베드로가 본바 이상흔 거서 무습

十七 十六 十五 十四 十三 十二 十一 十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맛춤 고넬료의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을 차자
문밖에 서서 불너 부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였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본바 이상한 것을 생각하더니 성신씩셔 더드려 말씀하시되 세
사람이 너를 차지니 내려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곧 처가라 내가 보내었느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글으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슴 일노 왔느냐 너희가 대답하되 빅부장 고넬료는 의인이라 또
하느님을 두려워할 때 유대 원 나라이 칭찬하더니 더가 기록한 연스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야 말을 드르라 하는 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마자 드러 되접하니라 ○ 잇흔날 내려나 곧 갈식 또 읍바 두어 형제가
곳치가더라 잇흔날 가이사라에 드러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갖가온 친구를
모화 기도리더니 맛춤 베드로가 드러올 때에 고넬료가 마자 말 압해
업되여 철하니 베드로가 니르켜 글으되 내려나 나도 사람이라 하고
말하되 너를 보러가려 사름이 모헌 거슬 보고 빌으되 유대인이 이방

알거니와 하느님께서 내게 큰 처사 잇더호 사름이던자 다 속되교
씩곳지 아니능다 하지 말나 호 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호 왔노라 못도니
무슴 일노 나를 불너는뇨 고넬료가 글으되 나 홀연이 맘써서 내 집에서
시간을 직혀 신시초 기도를 하더니 홀연히 호 사름이 빛난 옷을 닮고 내
압해서 서 말하되 고넬료야 네 기도함을 드르시고 네 구제함을 하느님이
괴역하셨스니 사름을 읍바에 보내여 바다가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우거하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호 시기로 내가 곧 너를 청하였더니
오시니 미우도 혼지라 이제 우리가 하느님 압해 잇스니 주씩셔 그 뒤의 개
명하신 거슬 듯고져하노라 베드로가 입을 열어 글으되 내가 참으로
하느님이 모양으로 사름을 취하지 아니호 시고 여러 나라 중 하느님을
공경하야 의를 행하는 사름은 하느님이 깃버하시 드리시는 줄 새드랏도다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을 복음을 전하시 이스라엘 빅성의게 그
말씀을 주셨스니 예수는 만유의 주시니라 이 말씀은 요한이 제례를 베푼
후에 갈닐니에서 시작하야 원 유대에 두루 전한 거슬 너희도 알거니와

^{三八}하는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신과 권능을 기름 부듯 하셨스니 예수께서
^{三九}두루둔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요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다 쫓치시니
^{四〇}이러한 거슨 하는님이 흠뻑 하셨이라 유대인의 싸와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四一}모든 일을 우리가 증거하노니 이를 더히거나 무에 들아 죽인 거슬 하는님이
^{四二}사흘만에 다시 살니샤 사람의게 보여 주셨스니 모든 백성의게 보이신
^{四三}거시 아니오 하는님이 미리 퇴하샤 증거할 우리의게 보이셨스니 죽었다
^{四四}다시 사신 후에 우리가 더와 쫓치 음식을 먹은 사람이라 또 우리를 명하샤
^{四五}도를 백성의게 전파하야 하는님의 작당대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실 자가
^{四六}곳이 사람이 줄노 증거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도 위하야 증거하 말에
^{四七}밋는 사람들이 다 그 일음을 힘납어 죄 사함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四八}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신이 내려 말씀 듯는 사람들의게 림하시니
^{四九}베드로와 쫓치 온 할례 벗은 문도들이 이방 사람의게도 성신을 부어
^{五〇}주심을 보고 놀나니 대개 그 각각 방언을 말하며 하는님을 칭송하여 크다

^一그리스도의 일음으로 세례를 베풀나 하니 여러 사람이 수일 더 류하기를
^二청하더라
^三유대에 잇는 스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을 도 하는님 말씀 밧았다 함을
^四드러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할례 벗은 사람이 헐난하야
^五글으되 네가 할례 밧지 아니한 사람의 집에 드러가 더히와 흠뻑 먹었다
^六하니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 일을 차례로 쫓초아 말명하야 글으되 내가
^七요바성에서 괴도할 때에 비몽스몽간에 이상함을 보니 큰 보초 쫓흔 그릇을
^八네 귀를 미여 하늘로 브터느리워 내 압해사지 드리우거늘 곰곰 생각하다가
^九즈제히 보니 싸에 네 밧 가진 짐승과 들 짐승과 버러지와 곤충에 나는
^{一〇}새가 잇는디 또 드르니 소리 잇서 내게 닐으되 베드로야 니러나 잡아
^{一一}먹으라 하거늘 내가 글으되 주여 가치 아니하니이다 속되고 색긋지 아니한
^{一二}물건은 내 입에 도모지 넋치 아니하였느이다 하니 또 하늘로 브터 두번째
^{一三}소리 잇서 내게 닐으되 하는님이 색긋하게 하신 거슬 내가 속되다 말나

+ 하며 이 곳 처 세 번을 혼 후에 모든 물건을 다시 하느노을녀가더니 곳 세
 + 사람이 내우거 혼집 압해섯스니 가이사랴에서 보내여 내게 온 사람이 라
 + 성신이 나를 명하샤 의심치 말고 곳치가 라 하시매 또 이 형제 여섯 사람이
 + 나와 흠씩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드러가니 그 사람이 우리의게 말하기를
 + 일즉 보니 텨스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읍바에 보내여
 +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나와 네 원 집을 구원 어긌 말슴을 네게
 + 빌으리라 하였다 하거늘 내가 방장 말하되 성신이 너희게 림하시기를
 + 처음 우리의게 림하신 것과 곳치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슴을 생각하니
 + 글으샤 되요한은 물노세례를 배프릿스나 너희는 성신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 하시더니 하느님이 더 사람들을의게 주시기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 밋을 때에 주신 거시나 다름이 업시 하시니 내가 엇더 혼 사람이 판되
 + 하느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거늘 여러 사람이 이 말을 듯고 되 답하지 못하고
 + 하느님 재 영화를 들녀 글으되 하느님께서 이 방 사람의게 회개함을

수도 십일장

三九 환란을 만나 스면으로 호위전 데즈가 각 처로 두루 행하야
 三六 구브로와 안디옥에 니르러 도를 유대인의게만 전하느니라 그 중에
 三五 구브로와 구레네 두어 사람이 안디옥에 니르러 헬나 사람의게 주 예수의
 三三 복음을 전하니 주의 손이 붓드려 도으신되 주다 혼 사람이 밋고 주씩
 三二 도라오는지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듯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三一 보내니 니르러 하느님의 은혜를 보고 깃버하야 못 사람을 다 권하야
 三〇 작덩 혼 믿음으로 주의게 썬나지 말나 하니 바나바는 착 혼 사람이라 독실히
 二九 밋고 성신이 충만하니 주의게 도라오는 사람이 만 혼지라 바나바가 다소에
 二八 가서 사울을 차자 밋나매 안디옥에 다리고 와서 교회에 일년을 모혀
 二七 잇스며 여러 사람을 부르치니 데즈들이 안디옥에서 부르 처음으로 그리스도
 二六 인이라 빌곳더라 ○ 때에 선지자 두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二五 니르니 그 중에 혼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잇서 성신의 감동함을 엇어
 二四 니러나 말하되 텨하가 장차 크게 흉년 들니라 하시니 그 후에 글나우티오
 二三 때에 과연 그러 혼지라 데즈들이 작덩하고 각각 그 힘대로 지물을 거두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구제하라 고 하야 거둔 지물을 바나바와 사울의게
부탁하야 여러 장로의게 보내더라

三

그 때에 헤롯왕이 손을 드러 교회중 두어 사람을 괴롭게 하라 하야 요한의
형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깃버하는 거슬 보고 또

베드로를 잡으라 할시 때가 누룩업는 썩 먹는 날이라 잡으매 옥에 느려

군스 넷씩 네패의게 맞겨 직히고 유월절 지나기를 기다려 빅성 압해

쇠을어 내고져 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가치매 교회가 위하야 근절히 하는 짐씩

빌더니 헤롯이 잡아 내라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스 틸에서

두 쇠사슬에 미여 누어 자는디 직히는자가 문 밧게셔 옥을 직히더니

홀연히 주의 사자가 깃해 서매 옥중에 광치가 쥬요하며 또 베드로의

넙구레를 쳐 세워 글으디 급히 나러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버셔지는지라 현스 글으디 쇠를 씌고 신을 들메라 하거늘 베드로가

고대라 작한자의 곳을 혼돈되 지나고 또 두곤되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나르니 문이 절로 열니는지라 나와 혼거리를 지나 매련스가 곳쳐나는지라

베드로가 서드라 글으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씩서련스를 보내여 나를

구원하샤 헤롯의 손에 버셔나게 하야 유대인의 모든 소원을 일우지 못하게

하심을 알갓다 하야 생각하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혀 기도하는지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디 로데라 하는

게집으희가 나와 뚫다가 베드로의 소리인줄 알고 깃버하야 문을 밧쳐

열지 못하코 드러가 말하디 베드로가 문 밧게 섰더라 하니 너희가 말하디

네가 밧쳤다 하거늘 게집으희가 힘써 말하디 참말이라 하니 너희가 말하디

그러면 그의 련스인가보다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곳치지 아니하니

더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나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흔들며 말을

말나 하며 주씩서 잇살고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코 또 글으디

야고보와 여러 형제의게 이 말을 하라 하코셔나 다른 곳으로 가더라 날이

새매 여러 군스가 베드로가 어디로 간지 아지 못하야 미우 소동하니

하더라 작한자의 곳을 혼돈되 지나고 또 두곤되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나르니 문이 절로 열니는지라 나와 혼거리를 지나 매련스가 곳쳐나는지라

三

十九 해룻이 차자도 보지 못하매 직히던 군사를 심문하고 명하야 죽이라 하니라
 十八 해룻이 유대를 썬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더라 ○ 해룻이 두로와
 일심으로 나야와 왕의 침소 맞은 신하 불나스도의게 친근히 하야 화목하기를
 十七 청하니 해룻이 날을 틈하야 쇼복을 남고 위에 안져 밋성을 효유하디
 十六 밋성들이 크게 부르며 말하디 이 거슨 신의 소리오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十五 하거늘 해룻이 영화를 하느님색로 돌리지 아니하느고로 주의 스자가 곳
 十四 치니 총며어 죽으니라 ○ 하느님의 도가 흥왕하야 더하더라 ○ 바나바와
 十三 사울이 구제하느 일을 못초고 예루살렘으로 보터 도라 올척 마가라 하느
 十二 요한을 다리고 흠씩 오더라 ○ 하느님의 도가 흥왕하야 더하더라 ○ 바나바와
 十一 안디옥 회중에 두어 선지자와 교사가 잇스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느
 十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로마 분봉왕 해룻으로 더브러 동학한 사람
 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신이 곧 사되 바나바와
 八 두사람이 손을 안찰하고 보내더라 ○ 두사람이 성신의 보내심을 받아
 七 칠누기아에 가서 거처보터 썬나 비를 두고 구브로에 이르렀다가 살나미에
 六 잇서 하느님의 말씀을 유대인 각 회당에서 전하시 요한이 슈풍드느자가
 五 되엿더라 섬가온디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혼 박슈를 맛나니 유대에
 四 거죽 선지자인디 그 일흠은 바예수라 그 사람이 감스 서기오 바울노
 三 더브러 사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잇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너
 二 하느님 말씀을 듣고져 하더라 바예수를 쏜엘누마라 하니 번역하면 곳박슈라
 一 두스도를 디덕하야 감스로 하야 곱밋지안케 하교져 하더라 사울의 일흠을 쏜

十二
 十一
 十
 九
 八
 七
 六
 五
 四
 三
 二
 一

十二 두사람이 손을 안찰하고 보내더라 ○ 두사람이 성신의 보내심을 받아
 十一 칠누기아에 가서 거처보터 썬나 비를 두고 구브로에 이르렀다가 살나미에
 十 잇서 하느님의 말씀을 유대인 각 회당에서 전하시 요한이 슈풍드느자가
 九 되엿더라 섬가온디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혼 박슈를 맛나니 유대에
 八 거죽 선지자인디 그 일흠은 바예수라 그 사람이 감스 서기오 바울노
 七 더브러 사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잇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너
 六 하느님 말씀을 듣고져 하더라 바예수를 쏜엘누마라 하니 번역하면 곳박슈라
 五 두스도를 디덕하야 감스로 하야 곱밋지안케 하교져 하더라 사울의 일흠을 쏜
 四 바울이라 하니 성진이 총만하야 주목하야 보묘글을 더네가 흥혈긋치 속입과
 三 모든 간악한 거시 그득하엿스니 마귀의 지식이오 모든 공의의 원슈라 주의
 二 정도를 어즈럽게 흠을 마지아나 하겟스나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징계하느니
 一 네가 판수 되여 잠간히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그 눈이 못감감하야 어두어
 二 사람의게 인도함을 두루 구하니 감스가 그러헌 거슬 보고 밋으며 주의
 三 그르치심을 괴이히 여이다라 ○ 바울과 밋 동행하느 사람이 바보에서 비

14 그리고 밤빌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너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15 도라가고 너희는 버가로브터 지나 비시디아 안티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16 회당에 들어가 앉아서 룬법파 선지자의 글 읽기를 다하니 회당 맞은자들이
 17 사람을 보내어 무려 글 읽히던 형제들아 만일 빅성을 권할 말이 잇거든 말하라
 18 하니 바울이 이르나 손을 흔들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을
 19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아 드르라 이 이스라엘 빅성의 하는님이 우리 조상들을
 20 탄압하여 굵싸에서 손 노릇할 때에 돕혀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21 광야에서 스십년쯤 기르시고 가나안싸닐굽 족속을 멸하고 그 싸를 주어
 22 업이 되게 하신지 스빅오십년이나 된지라 그 후에 스스를 세워 선지자
 23 삼우엘 쎄서지니 르렸더니 그 후에 빅성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는님이
 24 벤야민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스십년 동안 왕으로 주셨다가 폐하시고
 25 다윗을 드러 님군을 삼고 증거하여 글 읽히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26 맛나니 내 무덤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일우게 하리라 하시고 하는님이

27 곳 예수라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하는 제례의 말씀을 이스라엘
 28 모든 빅성의게 전파한지라 요한이 그 직분을 못출 때에 말하되 너희가
 29 나를 누구라 하는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이가 잇스니
 30 그 발에 신 풀기도 내가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스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31 후예와 너희 중 하는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여 이 구원하는이 말씀을
 32 우리의게 주섯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빅성들과 너희 유스들이 그리스도도
 33 하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와오는 선지자의 말도 하지 못하는고로 그 죄를
 34 덮는는 거스로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당연히 죽일 죄를 잡지 못
 35 하였스나 빌나도의게 죽여 달나 하였스니 성경에 더를 기록하
 36 말씀은 다 응하게 한 거시라 후에 나무에서 시테를 내려다가 무덤에
 37 두엇거늘 하는님이 죽은가 온되셔 더를 살니 신지라 갈닐나로브터 예루살렘에
 38 함씩 올라간 사람들의게 여러 날 보이셨스니 너희가 이제 위하여 빅성의게
 39 증거하는지라 우리가 복음으로 너희게 빌으노니 하는님이 여러 조상의게
 40 허락하신 거슬 우리 즈손의게 응하게 하여 예수를 다시 살려 내셨스니

수도 십삼장

스비록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하였스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나했다 하였고
 또 ^삼하느님께서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샤 썩는디 나르지 아니할 거슬
 무르쳐 글으샤되 내가 다윗의 기록하고 변하지 아니하는 은혜로 너희게
 주리라 하시고 또 ^{三五}시편 다른 편에 빌냈스되 주의 기록한자로 썩는디
 나르지 안케하시리라 하였스니 다윗은 당시에 하는님의 뜻을 복종하다가
 누어 자매 ^{三八}조상으로 더 브러 못쳐 썩었스되 하는님이 살리신하는 썩지 아니
 하였스니 ^{三八}그럼으로 형제들이 이 사람을 힘납어 죄 사하는 말씀을 너희게
 전하는 거슬 알나 ^{三九}모세의 룰법을 힘납어 너희가 사하야 의롭다 함심을
 얻지 못한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납어 밋는 자마다 사하야 의롭다 함심을
 얻스니 너희가 맛당히 선지자의 말한 거시 너희게 밋출가 삼가하라 ^{四一}그 말에
 빌냈스되 ^{四二}불지어 다 만홀히 여기는 사람들아 너희가 놀나고 망하리라 내가 너희
 모세를 당하여 온 일을 행할 거시니 비록 사람이 너희게 빌으나 도모지

하였스니라 하더라 ○ 회당에 나가매 사람들이 두 수도의게 청하디 이후
 안식일에 이 말씀을 다시 하라 하더라 ^{四三}모쳤던 사람이 다 호혀 지코 유대인과
 유대교에 드러 경건한 사람들이 만히 바울과 바나바를 좃치니 ^{四四}두 수도가
 더 브러 말하고 권하여 흥상하는님의 은혜 가운데 잇스라 하더라 ○ 그 후
 안식일에 원성중 사람이 거의 다 모혀 하는님 말씀을 듣고져 하니 ^{四五}유대인이
 그 무리를 보고 크게 희고 하야 바울의 말한 거슬 변박하고 ^{四六}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굳게히 말하야 글으디 하는님의 말씀을 맛당히 몬져
 너희게 전할 거시로되 너희가 브리고 영성을 얻는 거슬 합당히 여기지 아니함
 으로 우리가 이방 사람의게로 향하노라 ^{四七}쥬씩서 이 곳치 우리를 명하샤되
 내가 너를 세워 이방 사람의 빛출 삼아 너로 하여곰 구원하기를
 하사 샅갓지 니르리라 ^{四八}이방 사람들을 이 말을 듣고 깃버하야 하는님의 말씀을
 찬송하는지라 영성을 얻기로 미리 영하신자는 다 밋더라 ^{四九}쥬의 말씀이 그
 디방에 두루 퍼지매 ^{五〇}유대인들이 경건하고 귀한 여인과 성안 높은 사람을

수도 십사장

사십삼

서여 충동하야 바울과 바나바를 꺾박하야 그 디경에서 쫓차내니 두 사람이
여러 사람을 향하야 발에 티끌까지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에 이르매
데즈들이 기쁨과 성신이 충만함을 엿엇더라

西

맛춤 이고니온에서 두스도가 죽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나의 허다한 무리가 밋더라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의
모음을 충동하야 여러 형대를 원망하게 하거늘 두스도가 오래 있어서 쥬를
힘넘어 굿제히 말하니 쥬씩서 이적과 괴스를 형하게 하여 주사 친히 은혜
베프는 말씀을 증거하시니 성안 무리가 호호여 유대인을 좃는 자도 있고
두스도를 좃는 자도 있는 지라 이방 사람과 유대인과 그 유스들이 일제히
니러나서 두스도를 룹육하며 돌노치고져하니 스도가 알고 도망하야
루가 오니아에 붙흔 루스드라와 데베 두성과 그 스면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더라 루스드라에 한 사람이 있어서 안젓는디 나면서 안손방이
되여 두 발에 힘이 업서 든디 못하더니 바울의 말하는 거슬 듯거늘

니러나 두 발노 바로 서라 하니 그 사람이 꺾어져 든디는 지라 여러 무리가
바울의 형흔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너 글으디 신이

사람의 모양을 의탁하야 우리 가운데 이르러 오셨다 하야 바나바는 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 말을 잘함으로 허메라 하는 지라 성밖 쓰스 묘의

제스장이 소를 씌우고 화관을 바들고 문압해와서 무리와 함씩 제스하고져

하니 두스도 바나바와 바울이 듯고 옷을 씻고 무리가 온디 뛰여 드러가서

소리 질너 글으디 여러 분이여 엿지 이르흔 일을 하니 우리도 너희와

성정은 갓흔 사람이라 복음을 전하야 주는 거슨 이런 망녕 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도라오라 하니 런디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이시니라 하니 지나간 제디에는 여러 백성을 용납하야
각각 그 도를 좃게 하섯스나 저귀를 위하야 불히 증거하신 거시 업지 아니
하니라 요흔 일을 하사 하늘노셔 비를 내려 풍년을 주사 음식이 넉넉하게
하시코 너희 모음을 기쁘게 하섯다 하니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야
거우 무리를 말녀 저희게 제스를 못하게 하더라 유대인이 안디옥과

이 고니 온에서 와서 여러 무리를 초인하여 돌노 바울을 쳐서 죽은 줄 노
알고 성밧게 섰을 어 내치니라 데즈들이 들녀 설뎌에 바울이 니러나 성에
드러갓다가 잇흔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이 성에서 전하여
여러 사람으로 데즈를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 온과 안디옥으로 도라가서
데즈의 마음을 굿게 하여 흥양 밋으라 권하고 또 말하되 우리가 하는
나라에 드러가 라면 여러 가지 환난을 겪어야 할 거시라 하고 두 수도가
각 회중에서 장로들을 세워 기도하며 금식하고 더회 밋은 주의게 부탁하고
비시되 아로 지나가서 밤빌니아에 이르러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앓달니아로
느려가서 거기서 비 두고 안디옥에 이르니 두 수도의 일운 일노 전에
하는 님씩 더회를 위하여 은혜 빌던 곳이라 니러 회중 사람들을 모아
하는 님이 함께 회중 신 일과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었더케 밋는 문을 여신
거슬 고하고 데즈들과 오치 오래 잇더라

五

바나바가 더회로 더브러 크게 다도와 변론을 사 데즈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회중에 두어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수도와 장로를 보고 이 뜻을
못기로 작던 혼자라 교회가 더회를 전송하니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건너
가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교회와 수도와 장로들이 영접하여 다 크게 기쁘게
함씩 회중 신 일을 말하며 바리새교 중에 밋는 두어 사람이 니러나 말하되
이방 사람을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직히라 명하는 거시 맛당하다
하더라 ○ 수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론하려 모혀 크게 변론한 후에
베드로가 니러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는 님이 전에 너희
가온디셔 나를 택하여 이방 사람들을 노하여 곧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드러 밋게 하신지라 또 마음을 야신 하는 님이 성신으로 이방 사람의
주시기를 우리의게 주신 것과 오치하여 더회를 위하여 증거하시교 더회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여 밋음으로 그 마음을 색곳이 하섯거늘 너희가
엇지 하는 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가 능히 메이 지 못할 명어로

11 데즈의 목에 두라는나 우리가 주 예수 의 은혜로 구원을 얻음은 피초
 12 일반인줄노 밋는다 하더라 ○ 모든 무리가 만만히 잇서 바나바와 바울이
 13 하느님이 저괴를 인양샤 이방 사람들중에서 힘양신이적과 괴스를 고하는
 14 거슬 듯더니 말을 못초매 야고보가 날너글으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드르라
 15 하느님이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을 권고하시고 그중에서 저괴 일홈을 공경할
 16 비성을 싸신 거슬 시므온이 고하였스니 모든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17 합흔지라 그 말에 날넛스되

18 이 후에 내가 도라와셔 다윗의 문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19 퇴락흔 거슬 곳쳐 세우고 그 늑은 사람과 밋내 일홈을 밋드느 모든
 20 이방 사람들을 노주를 찾게 하리라 하섯스니 이는 창세할 때부터 이
 21 거슬 알게 하시느 주의 말씀이라
 22 하였느니라 그러고로 내가 칭가건대 하느님씨로 도라오는 이방 사람들을
 23 요동하게 말 거시오 편지를 붙쳐 우상의 더러운 것과 관음과 목미여 죽인



24 사람들이 잇서 안삭일 마다 회당에서 넘느니라 하더라 ○ 수도와 장로와
 25 교회가 뜻을 결단하고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야 바울과 바나바와 힘씨
 26 안디옥으로 보내려하니 곳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나니 형제들이 돕히는
 27 자라 그 편에 편지를 붙쳐 날으되 수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28 수리아와 길니기아에 잇는 이방형제의 편지하야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29 드른족 우리 가온디셔 두어 사람이 나가셔 말노 너희를 괴롭게 하고
 30 모음을 혹하게 한다 하나 우리가 식헌 거시 아니로라 우리가 모음을 곳쳐
 31 하야 뜻을 결단하고 사람을 택하야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32 힘씨 너희게 보내노라 이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홈을 위하야
 33 성명을 앗기지 아니하는자라 그런고로 유다와 실나를 보내여 이 일을
 34 입으로 너희게 말하게 하노니 성신이 우리와 곳쳐 결단하샤 이 두어
 35 요긴흔 것밖에 다른 짐을 지우지 아니하노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미여
 36 죽인 짐성 먹는 것과 음란흔 일을 금하노니 그대로 직히면 잘 되리라
 37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 너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이르러 무리를

모흔 후에 편지를 주니 ^{三三} 넓고 그 위로 흐른 말을 깃버하더라 ^{三三} 유다와 실나도
 선지자라 여러 말노 형대를 권하야 ^{三三} 갖게 하고 ^{三三} 얼마 있다가 ^{三三} 형대들이
 작별하고 ^{三五} 보내던 사람의게로 도로 보내되 ^{三三} 바울과 바나바는 ^{三三} 안디옥에
 류향며 ^{三五} 여러 형대들과 ^{三三} 처 주의 말씀을 ^{三三} 마르쳐 ^{三三} 전파하더라 ^{三三} ○ ^{三三} 수일 후에
 바울이 ^{三三} 바나바드려 ^{三三} 말하되 ^{三三} 우리가 ^{三三} 주의 말씀을 ^{三三} 전한 각 성으로 ^{三三} 다사가서
 형대들이 ^{三三} 엿더흐가 ^{三三} 보자 ^{三三} 하니 ^{三三} 바나바가 ^{三三} 마가라 ^{三三} 하는 ^{三三} 요한도 ^{三三} 다리고
 가고저 ^{三三} 하되 ^{三三} 바울은 ^{三三} 마가가 ^{三三} 이전에 ^{三三} 밤빌니아에서 ^{三三} 저희를 ^{三三} 쫓나 ^{三三} 혼자 ^{三三} 가지로
 일하려 ^{三三} 가지아니 ^{三三} 흠으로 ^{三三} 다리고 ^{三三} 가는 ^{三三} 거시 ^{三三} 을 ^{三三} 처안타 ^{三三} 하야 ^{三三} 서로 ^{三三} 심히
 다투아 ^{三三} 피츠갈나서 ^{三三} 니 ^{三三} 바나바는 ^{三三} 마가를 ^{三三} 다리고 ^{三三} 비 두고 ^{三三} 구브로로 ^{三三} 가고
 바울은 ^{三三} 실나를 ^{三三} 택하야 ^{三三} 처 ^{三三} 가니 ^{三三} 형대들이 ^{三三} 그를 ^{三三} 위하야 ^{三三} 주씨 ^{三三} 은혜를
 빌거늘 ^{三三} 수리아와 ^{三三} 길니기아로 ^{三三} 다녀 ^{三三} 가며 ^{三三} 여러 ^{三三} 교회를 ^{三三} 갖게 ^{三三} 하더라 ^{三三}
 바울이 ^{三三} 또 ^{三三} 하되 ^{三三} 베와 ^{三三} 루스드라에 ^{三三} 이르매 ^{三三} 거기의 ^{三三} 모데라 ^{三三} 하는 ^{三三} 데즈가 ^{三三} 잇스니
 그 모친은 ^{三三} 밋는 ^{三三} 유대녀 ^{三三} 인이오 ^{三三} 부친은 ^{三三} 헬나 ^{三三} 사람이라 ^{三三} 이 ^{三三} 사람은 ^{三三} 루스드라와

六

그 디경에 ^{三三} 잇는 ^{三三} 위대인 ^{三三} 을 ^{三三} 인하야 ^{三三} 할례를 ^{三三} 행하나 ^{三三} 이는 ^{三三} 그 ^{三三} 사를 ^{三三} 들이 ^{三三} 다 ^{三三} 가
 부친은 ^{三三} 헬나 ^{三三} 사람이 ^{三三} 출 ^{三三} 알미라라 ^{三三} 여러 ^{三三} 성으로 ^{三三} 다녀 ^{三三} 갈 ^{三三} 때 ^{三三} 에 ^{三三} 예루살렘에
 잇는 ^{三三} 스도와 ^{三三} 장로의 ^{三三} 작당은 ^{三三} 명령을 ^{三三} 더회게 ^{三三} 주어 ^{三三} 직히 ^{三三} 가니 ^{三三} 그럼으로
 여러 ^{三三} 교회가 ^{三三} 밋음이 ^{三三} 더 ^{三三} 굿어 ^{三三} 지고 ^{三三} 사람의 ^{三三} 수가 ^{三三} 날 ^{三三} 마다 ^{三三} 더 ^{三三} 하더라 ^{三三} ○ ^{三三} 성선이
 아시아도 ^{三三} 에서 ^{三三} 말숨을 ^{三三} 전하 ^{三三} 지 ^{三三} 말나 ^{三三} 하시거늘 ^{三三} 브루기아와 ^{三三} 갈나디아 ^{三三} 싸으로
 단나가 ^{三三} 무시아 ^{三三} 압해 ^{三三} 니르 ^{三三} 비두니아로 ^{三三} 가고 ^{三三} 저하야 ^{三三} 이 ^{三三} 쓰되 ^{三三} 예수의 ^{三三} 선이
 허락지아니 ^{三三} 하시느니라 ^{三三} 무시아를 ^{三三} 지나 ^{三三} 드로아로 ^{三三} 느려가 ^{三三} 더니 ^{三三} 밤에 ^{三三} 바울이
 이상함을 ^{三三} 보니 ^{三三} 마게도니아 ^{三三} 사람 ^{三三} 하나 ^{三三} 이서 ^{三三} 근절히 ^{三三} 빌어 ^{三三} 그 ^{三三} 등 ^{三三} 되 ^{三三} 마게도니아로
 와서 ^{三三} 우리를 ^{三三} 도오라 ^{三三} 하거늘 ^{三三} 이 ^{三三} 상함을 ^{三三} 본 ^{三三} 후에 ^{三三} 우리가 ^{三三} 곳 ^{三三} 마게도니아로
 가고 ^{三三} 저함을 ^{三三} 하는 ^{三三} 님이 ^{三三} 더 ^{三三} 사를 ^{三三} 들의 ^{三三} 게 ^{三三} 복음을 ^{三三} 전하 ^{三三} 라고 ^{三三} 우리를 ^{三三} 부르 ^{三三} 심을
 알미라라 ^{三三} ○ ^{三三} 드로아를 ^{三三} 쫓나 ^{三三} 비 두고 ^{三三} 바른 ^{三三} 길로 ^{三三} 사모드라 ^{三三} 게로 ^{三三} 가서 ^{三三} 잇흔날
 네 ^{三三} 압볼니로 ^{三三} 가고 ^{三三} 거기의 ^{三三} 빌립보에 ^{三三} 이르니 ^{三三} 빌립보는 ^{三三} 마게도니아 ^{三三} 디경 ^{三三} 첫
 성이니 ^{三三} 또 ^{三三} 로마의 ^{三三} 점령 ^{三三} 할 ^{三三} 싸이라 ^{三三} 이 ^{三三} 성에서 ^{三三} 수일을 ^{三三} 류향 ^{三三} 다 ^{三三} 가 ^{三三} 안식일에
 우리가 ^{三三} 성 ^{三三} 밤 ^{三三} 깨 ^{三三} 나가 ^{三三} 강 ^{三三} 가에 ^{三三} 이르러 ^{三三} 서 ^{三三} 생각 ^{三三} 건대 ^{三三} 거 ^{三三} 기 ^{三三} 기도 ^{三三} 하는 ^{三三} 곳이

수도 십육장

수빈십팔

잇는가 하야 안져서 모헌 녀인의게 말하더니 ^{十四}두야더라 성녀인 하나 이
 잇스니 일홈은 루디아라 즈주장스를 하며 본리 하느님을 공경하는 자인디
^{十五}우리 말을 듯더니 주씩셔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순종하게 하신지라
 더와 그 집사름들이 다 세례를 밧고 우리의게 근구하디 만일 나를 주
 밧는자로 알거든 내집에 드러와 류하라 하교 강권하야 잇게 하더라 ○
^{十六}그 후에 우리가 괴도하는 곳에 갔다가 홀게집종을 만나니 점하는 사귀가
 들너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리하게 하더니 바울과 우리를 좇차와서 소리
 질너 ^{十七}골으디 이 사름은 지극히 높흔 하느님의 종이니 구원하는 도를
 너희게 전한다 하며 이긋쳐 여러 날을 행는지라 바울이 심히 근심하야
^{十八}몸을 도리켜 사귀드려 날으디 예수 그리스도의 일홈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제집의게서 나오라 하니 사귀가 즉시 나오는지라 ○ 종의
^{十九}주인이 리를 브라는 거시 싹히진줄 알고 바울과 실나를 잡아 가지교
 처소에 드러가 유수를 보고 ^{二十}법관의게 신고 가셔 말하디 이 사름이

^{二十一}헌치 아니할 법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나리니 ^{二十二}법관이
^{二十三}옷을 벗기고 곧장으로 치라 하야 곧장으로 천 후에 옥에 가도교
^{二十四}스장의의게 분부하야 착실히 직히라 하니 스장이가 이 령을 밧아 겁흔
^{二十五}옥에 가도교 그 발을 착교에 처왔더니 ^{二十六}밤중 즈 되야 바울과 실나가
 괴도하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갓친 사름이 듯더니 ^{二十七}홀연히 크게 디동하야
 옥터가 울적이며 문이 콧다 열리며 갓친 사름의 미인 거시 다 버셔진지라
^{二十八}스장이가 자다가 쉼여 옥문이 열닌 거슬 보고 갓친 사름이 도망흔줄
 알고 곳 환도를 빼여 ^{二十九}즈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너 골으디
 네 몸을 상하지 말나 우리가 다 여기 잇노라 하니 스장이가 불을 달라고
^{三十}하며 쉼여 드러가 무셔워 쉼며 바울과 실나 압해 업디는지라 ^{三十一}다리고
 나가 ^{三十二}골으디 선성들이 내가 엿더케 하야 구원을 엿으릿가 하거늘
^{三十三}골으디 주예수를 밧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집이 구원을 엿으리라 하교
^{三十四}주의 말을 그 사름과 그 집에 잇는 모든 사름의게 마르치니 그 밤에
 스장이가 두 사름을 다리고 그 상쳐를 씻기고 더와 왼집안이 다 곳 세례를

三三

三五

三七

三六

三九

三九

四一

四一

四一

호

밧고 두 사람을 다리고 집에 올라가서 그 압혀서 음식을 차리고 더와 원
 집이 하느님을 밧으며 크게 깃뻏히더라 ○ 날이 새매 법관이 아전을
 보내여 이 사람을 노흐라 호령스니 옥에서 나가 평안히 가라 호령스니 바울이
 날으되 우리는 로마 사람이라 죄를 덩치아니 호고 사람 압혀서 찌르고 또
 옥에 가도었다가 이제 그 만히 우리를 내여 보내고져 호느냐 가차아니 호다
 더희가 천히 와서 우리를 노흐라 호라 호되 아전이 이 말노 법관의게
 고호니 법관이 로마 사람이라 호는 말을 듯고 두려워 호야 와서 그 구호며
 다리고 나가 성에 썬나기를 청호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드러가서 형제들을 밧나 보고 권면호고 가더라
 더희가 암비불니와 아볼노니아로 든녀가 데살로니가에 니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잇는지라 바울이 제 규모대로 더희가 온되 드러가서 세
 안직일을 지낼식 성경을 가지고 강론호며 썬을 푸러 그리스도가 해를

三三

三五

三七

三六

三九

三九

四一

四一

四一

너희게 전하는 이 예수는 곧 그리스도라 호니 그 중에 었던 사람이 그
 권함을 밧아 바울과 실나를 상중호며 또 경건호 헬나 사람도 큰 무리가
 잇고 귀호녀인들도 적지아니 호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희괴호야 저곳에
 었던 괴악호자들을 불너 썬을 지어 가지고 성 사람을 충동호야 야손의
 집에 달녀 드러 더희를 잡아 내여 빌성의게 주고져 호되 밧나 지못호매
 야손과 두어 형제를 썬을어 고을 관장들 압혀 가서 소리 질너 글으되
 던하를 어즈럽게 호던 사람이 여기도 니르매 또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이 다 가이사 명을 거역호고 말호되 다른 님군 예수라 호는이가
 잇다 호되 다 호니 무리와 고을 관장들이 이 말을 듯고 소동호야 야손과 밧
 그 곳치 잇는 사람들을 의게 보를 밧고 놓는지라 ○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나를 베뢰아로 보내니 두 사람이 니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드러가니 라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귀호지라 그 절호 믿음으로 말슴을
 밧아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호야 이 거시 그러호지 알나 호는고로 그 중에
 밧는 사람이 만코 또 헬나의 귀호 녀인과 사나희가 적지아니 호나

十三 데살노니가에 잇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는님 말씀을 배뢰아에서도
 十四 전하는줄을 알고 실흘 그리로 가서 무리를 격분시켜 충동하는 형제들이
 十五 곳 바울을 내어 보내여 바다까지 가게되 실나와 디모데가 아직 거기
 十六 잇는지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이 다리고 아덴까지 이르니 바울이 실나와
 十七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닐으라 실흘 명을 듯고 썩나니라 ○ 바울이 아덴에서
 十八 회당을 기다리다가 원성에 우상이 그득한 거슬 보고 마음에 분하여
 十九 맛나는 사람과 몇치 변론하니 실흘 었던 에비구 레오와 스토이 고철학사가
 二十 바울과 청론할시 혹은 날으디 이 망녕 되히 말하는 사람이 무슴 말을
 二十一 하고저하는고 하고 혹은 날으디 다른 나라 샤키를 전하는 사람이가 보다
 二十二 가니 이리케 말하는 거슨 바울이 예수와 밋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二十三 붓드러 가지고 아레오바고에 이르러 무려 글으디 너의 말하는 새교를
 二十四 우리도 알거시나 우리가 너의 이상한 말을 듯고 무슴 싹인지 조세히

三 일은 아니하고 새 말 만듯고 전할 사람이 어늘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온디
 四 서서 말하디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모든 일노 귀신 공경하기를 심히
 五 하는도다 내가 두루둔니며 너희의 위하는 거슬 보다 가 었던 단을 맛나니
 六 거의 샹엿스디 아지못하는 신의 단이라 실흘 엿스니 너희가 아지못하고
 七 위하는 거슬 내가 너희게 알게 하리라 텨디와 그 가온디 잇는 만물을
 八 지으신 신께서 텨디의 주인이 되셨스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텨에 계시지
 九 아니실 거시오 실흘 쓰실 거시 부족한 모양으로너여 사람의 손으로 섬길
 十 거시 아니오 우왕 만민의게 성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자시니라
 十一 각나라 백성을 한혈력으로 모든샤 원사에 거하게 하고 너희 텨디를
 十二 명하시고 거하는 디경을 한싹스니 하는님을 차절지니라 후더듬어 엿을
 十三 거시니 우리 각 사람의게 썩나 계시기가 머지아니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十四 힘입어 살며 괴동하며 잇는니 너희 중에 시하는 사람도 후 말하기를
 十五 우리가 하는님의 내신바 되었다 하시니 하는님의 내신바 되었스즉 그 형테를
 十六 사람이 공교히 샹여 모든 금과 은과 돌 및 혼 거스로너일 거시 아니니라

이왕 감감할 때에 는 하느님이 허물치 아니 하섯거니와 이제 는 어더던지
 사름을 다 명하샤 회기 하라 하시고 날을 명하샤 세우신 사름으로 하여곰
 공의대로 려하를 심판하시리니 죽은 가온디셔 다시 살니신 거스로써 만
 빅성의게 밋을 만흔 증거를 주섯느니라 하더라 ○ 무리가 죽은 자가
 부활한다 하는 말을 듣고 혹은 괴롱도 하고 혹은 네 말을 다시 듯고져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여러 사름을 썬나매 두어 사름이 천하야 밋고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녀인과 또 두어 사름이
 함씩 하더라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썬나고 린도에 이르러 아굴나라 하는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본도에서 낫스나 글나우디오가 유대인을 명하야 로마에서 썬나라
 하므로 그 안히 브리스길나와 죽치 이달니 아로브러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 사름의게 가매 엮이 죽거늘 집에 잇서 일을 하니 그 성애는 장막을
 만든 거서더라 안식일 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변론하고 유대사름과 헬나

六

바울이 도의 절제를 밋아 유대인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
 디회가 디덕하야 휘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썬쳐 글으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도라갈 거시오 나는 썬곳하니 이후에는 이방 사름의게로 가리라
 하교 거괴져 썬나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름의 집으로 드러가니 이 사름이
 하느님을 공경하느디 그 집이 회당 녀이라 또 회당 맞은 그리스보가 원
 짐 사름으로 더브러 썬를 밋으며 또 고린도 사름이 만히 그 말을 들으
 밋어 세례를 밋더라 밤에 썬썬이 상흔 가온디 바울의게 보여 글으샤 디
 두려워하지말지어다 입을 봉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씩 잇스매
 아모 사름도 너를 디덕하야 해롬게 할자가 업슬 거시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빅성이 만흔이라 하시더라 일년 여섯 들을 류하며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 가온디셔 큰치더라 ○ 갈니오가 아가이아 감스 되엿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너러나 바울을 디덕하야 재판 자리로 싣을고 와서 말하디 이 사름이
 불법을 어괴여 하느님 공경하는 거슬 사름의게 큰 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져하디니 갈니오가 유대인드려 널으디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十四 十三 十二 十一 十 九 八 七 六

이일이 올치 아니하고 간악한 일이어든 너희 송사를 뜻는 거시 올흔
경위어니와 만일 말과 일홈과 밋 너희 법을 다도와 의론할진대 너희가
스스로 결단하라 나는 이러흔 일은 판단할 믿음의 업노라 하고 재판
자리에셔 뜻차내여 보내니 백성들이 다 회당 맞흔 사람 소스데네를 잡아
지판 자리 압혀서 찌리되 같니 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더라 ○ 이후에
바울이 아직 여러 날 기도하다가 형대를 리별하고 썬나 비 두고 수리아로
갈식 브리스길나와 아굴나도 곳치가 논지라 겐그레아에서 바울이 머리를
썩갓스니 이 거슨 원흔는 밍세가 잇는 연교러라 에베소에 와서 두 사람을
거기셔 리별하고 즈리가 회당에 드러가셔 유대인과 곳치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잇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리별하야 글으되 하느님이
만일 허락하시면 다시 와서 너희를 보리라 하고 곳 비를 두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하류하야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 평안함을 무른
후에 안티우으로 가셔 거기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나드와 브루기아

아볼노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나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만하 성경에
능운 자라 이 사람이 일즉 주의 도를 비화 믿음의 근절하야 예수의 일도
썩지 세히 의론하야 그치나 요한의 세례 만알 사람들이라 회당에서 곳세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나와 아굴나가 뜻고 다려다가 하느님의
도를 더지 세히 푸러 널으되 아볼노가 아가이아로 가고져하니 형제들이
더를 도아 데즈의게 편지하야 되첩하라 하였더니 가매 은혜를 얻어 밋는
사람의게 크게 유조하니 이는 여러 사람 압혀서 힘을 다하야 유대인을
썩거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신종을 가르쳐 보힘이러라
아볼노가 고린도에 잇슬 때에 바울이 웃고 을노 든녀서 에베소에 와서
두어 데즈를 만나 무려 글으되 너희가 밋을 때에 성신을 받았느냐 글으되
아니라 우리는 성신 주심을 뜻지도 못하였노라 하거늘 바울이 글으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되답하되 요한의 세례를 받았노라
하니 바울이 글으되 요한이 회기하는 세례를 베프러 백성의게 말하되 내
후에 오시논이를 밋으라 하였스니 이는 곳 예수라 하거늘 너희가 이 말을

六 뜻고 곳쥬 예수의 일흠으로 제례를 밧으니 바울이 그 우에 손을 안찰하매
 七 성신이 그 우에 림홍샤 각국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런 사름이 합홍야
 八 열두엇 즘 되더라 ○ 바울이 회당에 드러가 석 들 동안을 굿세히 말홍야
 九 하느님 나라의 일을 변론홍야 순종하게 하되 잇던 사름은 믿음의 굿어
 十 순종치안코 무리 압혜셔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곳그 당을 썬나
 十一 데즈들을 썬로 세우고 두란노 셔원에서 날마다 변론홍야 이 곳치 두히
 十二 동안을 할 때 아시아 도에 사는 유대 사름과 헬나 사름이 다 쥬의 말숨을
 十三 듯는지라 하느님이 바울의 손으로 회한홍 능을 형홍게 하시니 심지어
 十四 사름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 슈건이나 핏쥬 슈건이나 가져다가 병든
 十五 사름의게 언즈면 그 병이 썬나고 악귀도 썬물 나가더라 썬에 도라든너며
 十六 요술하는 두어 유대인이 악귀의게 붓들닌 사름을 맛나셔 시험홍야 쥬
 十七 예수의 일흠으로 그 우에 진언홍야 말홍디 우리가 바울의 전파홍는 예수를
 十八 병자 홍야 너를 명홍노니 나가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키와의 아들
 十九 바울도 나가 말거니와 그의 제자 홍야 이고니 몸이 상홍야 별거 밧고 도망홍야 그
 二十 사름의게 썬여울나 악제자 홍야 이고니 몸이 상홍야 별거 밧고 도망홍야 그

一 집에 나가는지라 에베소에 거홍는 유대 사름과 헬나 사름이 다 이 일을
 二 알코 두려워홍며 쥬 예수의 일흠이 크다 홍야 밧은 사름들이 만히 와서
 三 그 죄를 조복홍고 형홍 일을 고하며 썬근본 요술을 형홍던 사름 여러서
 四 회계하니 은 오만 각이나 되더라 이와 곳치 쥬의 말숨이 힘이 잇서
 五 홍왕홍야 이고더라 ○ 이 일을 못초매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이아로
 六 다녀셔 예루살렘에 가기로 썬을 작명홍야 곁으디 내가 거긔 갔다가 후에
 七 로마도 보아야 홍리라 홍고 일흠을 돕는 사름 중에 티모데와 에라스도 그
 八 들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곳치는 아시아에 잠간 잇더라 ○ 그 썬에 이
 九 도로 인홍야 크게 소동홍지라 잇던 은장식 데메드리오라 홍는 사름이
 十 잇스니 아데미의 은 감실을 문드는 자인디 이 장식들 노홍여곰 리 잇숨이
 十一 적지안터라 데메드리오가 그 사름들과 이 업으로 곳치 칭애홍는 사름을

수도 십구장

스빅삼십

모화닐으되 여러 분네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성애로 저물을 엮더니 ^{三六}바울이
 에베소 썬아니라 아시아도를 거의 다도라 든니 며 허다흐 사람을 유인하야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슨 위흐 신들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 뒤들도
 보고 드른 거시라 ^{三七}우리 형애가 천하 여질 썬아니라 큰 녀신 아데미의
 텃각도 경홀히 녀임이 될 거시오 원 아시아도와 밋던하가 위흐는 아데미의
 위엄이 쇼멸할가 흥노라 하니 여러 사람이 이 말을 듯고 크게 성내여 불너
^{三八}골으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원성이 요란하야 바울과 ^{三九}又치
 든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회장으로 달너 드러가느니라 바울이 드러가 빅성을 보고 저하니 데즈들이
^{四〇}말니고 또 바울의 친구 아시아의 두어 돕흔 관장도 사람을 보내여 연회장에
 드러가지 말나 ^{四一}근구하더라 었던 사람은 이 말을 호고 었던 사람은 더
^{四二}말을 하니 모헌 무리가 분란하야 태반이나 었지하야 모헌는지 아지 못하더라
^{四三}우대인들이 알레산더를 여러 사람 가온디셔 잡아내여 압해 세우니

알고 다 일제히 ^{四四}又치 소린 질너 ^{四五}말으되 크다 ^{四六}에베소 사람들이 무리를 안돈
^{四七}호기를 두서 동안이나 하더니 고을 문셔 ^{四八}츠지흐 사람이 무리를 안돈
 식히고 ^{四九}닐으되 에베소 사람들을 아 에베소 성에 큰 아데미와 밋쓰스의게서
^{五〇}셔러진 우상의 텃각 지히는 줄을 누가 아지 못하겟느냐 이일이 그러치안타
^{五一}할수 업스니 너희가 ^{五二}만히 잇서서 무어시던지 경솔히 하지 말나 이 사람이
^{五三}텃각의 물건을 도적하지도 아니 하였고 우리 녀신을 훼방하지도 아니 하엿
^{五四}거늘 너희가 여긔서 잡아와스나 만일 데메드리오와 밋그와 함씩 잇는
^{五五}장석이 님의게 송스 할 거시 잇거든 재판소도 잇고 법관도 잇스니 피츠
^{五六}정소함이 가하려니와 ^{五七}혹 다른 일을 무르려거든 공회에서 결단할지라
^{五八}오늘은 ^{五九}사도 업시 요란할 일노 쓰지름이 우리의게는 리기 쉽고 또 우리가
^{六〇}웬 사도으로 이 무리가 모쳤는지 알월수 업다 하고 그 말을 못초고 무리를
^{六一}호히지게 하더라
 이 지러온 일이 ^{六二}곳치매 바울이 데즈를 불너 권흐 후에 작별하고 썬나
 마게도니아로 갈시그 ^{六三}디경으로 든녀가며 여러 말노 데즈들의게 권하고

헬나에 니르러 거의 석들을 잇다가 비 두고 수리아로 가고져 하더니 유대
 인들이 계교를 써서 해하랴 하거늘 마게도니아로 든녀 도라가가 이를 작덩하야
 아시아도서지 곳치 가는자는 배로아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노니가
 사름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름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도사름
 두기고와 드로비모니 이 사름이 몬져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는지라
 우리가 누룩업는 썩먹는 날 후에 빌립보에서 썩나 비 두고 맞서 만에
 드로아에 가서 날혜를 거의 머물더라 ○ 날혜 중 첫날에 우리가 썩을
 썩라야 모혔더니 바울이 잇흔날 가고져 하야 강론하기를 밤중까지
 지리하게 하매 모힌웃 다락에 등불을 만히 켜더니 유두고라 하는 쇼년이
 창에 걸터 안져 갑히 조을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하매 조름을
 이기지 못하야 삼총 루에서 썩러지거늘 들어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우에 업드려 그 몸을 안고 말송디 썩들지말나 성명이 몸에
 잇다 하고 다시 다락에 올라가 썩을 썩여 먹고 서로 의논하기를 오래 하야

저지안케 밧더라 ○ 우리가 압서 비를 두고 앓소로 가서 거의셔 바울을
 비에 올라고져 하니 이는 바울이 룩로로 가고져 하야 이리케 작덩하야 준
 거시라 바울이 앓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곳비에 올라고 미들내에
 가서 거의셔 썩나 잇흔날 기오 압헤 오고 그 잇흔날 사모에 득달하야
 또 잇흔날 밀네도에 니르니라 바울이 형션하야 에베소로 지나랴 함은
 오래 아시아도에 잇지아니하고 혹 급히 가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넴에
 니르랴 함이라 ○ 바울이 밀네도에서 사름을 에베소로 보내여 교회장로를
 청하니 오매 말송디 아시아도에 드러온 날노브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
 가온타서 엇더케 형흔 거슬 너희가 알거시라 내가 유를 섬기기를 크게
 겸손히 하야 눈물을 흘니고 또 유대인이 모함함으로 란을 맞날지라도
 너희게 무어시던지 유익하면 내가 흔 말도 숨김이 업서 혹 여러 사름
 압헤서나 각집에서나 너희들을 부르쳐 보이며 유대 사름과 헬나 사름의게
 회지하야 하는 님씩 도라와서 우리 유예수 그리스도를 밧으라 권하야
 증거 하엿노라 이제 내 믿음에 놀림을 밧아 예루살넴으로 가랴 함에

三三 더고셔 무슴 일을 맛날년지 아지 못호노라 오직 성신이 각 성에서 내게 보여
 三二 글의 사디 결박과 환란이 너를 기드린다 하시나 내가 내 성명을 조곰도
 三一 귀히 녀이지 안코 내 형을 일과 주 예수씨로 브터 밧은 직분을 다하야
 三〇 하는님의 은혜 베프신 복음을 증거 호고져 호노라 내가 너희 중에서 본리
 二九 왕리 호며 하는님 나라도를 전파 호엿스나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호출
 二八 아노라 그런코로 오늘 너희게 증거 호노나 모든 사람의 피가 내 몸에
 二七 못지 아니 호지라 내가 하는님의 뜻을 다 너희게 전하야 하나도 숨김이
 二六 업섯스나 너희가 너희를 위하야 삼가고 또 원 무리를 위하야 삼가 하는님의
 二五 교회를 먹이라 성신이 그 중에서 너희를 세워 감독을 삼으섯스나 이 교회는
 二四 저의 피로 갑 주고 었으신 거시니라 내가 썩난 후에 악호 일희가 너희 중에
 二三 드러와셔 그 무리를 앗기 지 아니 호출 아노나 또 호 너희 중에 사람이
 二二 나러나셔 반디 호는 말노 데즈를 썩여 좃게 호라 호리니 그런코로 너희가
 二一 빌세여 내가 삼년이나 밤 낮 쉬지 안코 눈물을 흘리며 너희들 권호던
 二〇 거슬 귀하와라 지금 내가 너희를 하는님과 그 은혜 베프신 말씀씨 부린 호나

주

三三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보호 호시고 세우샤 거룩호 무리 가온디 업이 잇게
 三二 하시리라 내가 호,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호 지 아니 호엿고
 三一 이 손으로 나와 밋나로 함씨 잇는 사람의 쓰는 거슬 당함을 너희도 아는
 三〇 거시라 내가 무슴 일이던지 모본을 보엿노니 이 곳치 슈고 하야 약호
 二九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말씀을 귀하와라 빌, 시기를 주는 거시 밧는
 二八 것보다 복이 잇다 호섯느니라 ○ 이 말을 못초고 무릅을 쓸고 여려 사람과
 二七 못치 기도 호시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맛초고 다시 내 얼굴을
 二六 보지 못호리라 함으로 더욱 근심 호고 보내여 비에 오르게 호니라
 二五 우리가 너희를 리별 호고 호, 선하야 고스로 질너가셔 잇호날 로도에 니르러
 二四 거괴셔 브터 바다라로 가셔 베니 게로 건너 가는 비를 맛나 곳 두고 가다가
 二三 구브로를 브, 라 보고 원편으로 지나 수리아에 니르러 두로에서 룩디에
 二二 느리나 거괴셔 비가 짐을 풀나 함이러라 데즈들을 차자 보고 빌헤를
 二一 머물더니 그 데즈들이 성신의 감동음을 밧아 바울을 러 예루살넴을 뵈지 말나
 二〇 호거늘 그 씨를 지나 우리가 썩나 기일을 호, 호시 모든 데즈가 그 안히와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조너로 더브러 성밧사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다 언덕에서 무릅을 깔고
 七 기도하고 서로 작별하매 우리는 비에 오르고 너희들은 집으로 다시
 八 도라가니라 ○ 두로로브러 슈토를 다항하야 돌네마이에 나르러 형제들의게
 九 안부를 못하고 향로를 잇다가 잇흔날 우리가 떠나가이사라에 나르러 복음을
 十 전하는 벨넵의 집에 드러가서 곳치 잇스니 이 사람은 닐콥 집스 중에
 十一 참예흔차러라 그 사람이 썬네서 잇스니 동정녀인디 예언을 하는지라
 十二 거긔셔 여러 날 잇더니 혼션지자야가 보라 하는이가 유대로브러 너려와
 十三 우리의게 니르러 바울의 씨를 가져다가 그의 슈족을 잡아미고 말하거를
 十四 성신이 말씀하사디 예루살넵에 잇는 유대 사람이 이 곳치 이 씨 임자를
 十五 잡아미여 이방 사람의 손에 내여 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듯고 그
 十六 곳사람으로 더브러 바울의게 곤구하디 예루살넵으로 올라가치말나 하니
 十七 바울이 디답하디 너희가 엇지하야 올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나 나는 주
 十八 예수의 일흔을 위하야 결박 밧을 썬아니라 예루살넵에서 죽어도 맛당하디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오나갈식 가이사라 두어 데즈가 곳치 가며 혼 오랜 데즈 구브로 사람
 나손을 다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 사람의 집에 류하러흔이러라 ○
 예루살넵에 나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깃브게 영접하거늘 그 잇흔날 바울이
 우리의 흠씩 드러가서 야고보를 볼식 여러 장로도 다 잇는지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느님이 조긔의 밧은 직분으로 이방 가온디셔 하신일을 낫낫치
 二 고하니 무리가 듯고 하느님씩 영화를 돌녀 보내고 바울드러 닐으디 형님이여
 三 천히 보거니와 유대인 중에 밧는자 수만명이 잇스니 다 열심으로 료법을
 四 좇는차라 네가 이방에 잇는 유대인을 무르쳐서 모세를 비반하고 아들을
 五 할례를 하지말고 또 규모를 직히지말나 흠을 더희가 드렸스니 그러면
 六 엇지할고 너희가 필연 그디가 온거슬 드르리나 우리 말을 좇차 이대로
 七 하라 우리의게 붓흔사람 네서 잇서 밧제하야 원흔이 잇는지라 너희를
 八 다리고 더브러 결례를 행하고 디신갑슬 주어 머리를 삭케 하라이 곳치
 九 하면 전에 드른 거시 헛된줄노 다 알 거시오 또 그디도 료법을 직히

三三 三二 三一 三〇 二九 二八 二七 二六 二五
 형호는 줄도 알 거시오 ^{三五} 주를 밋는 이방 사람의게는 우리가 편지하야
 작당하디 ^{二六}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미여 죽인 짐승과 간음을 금하라 하였노라
 하나 바울이 이 사람을 다리고 잇흔날 ^{二七} 너희와 ^{二八} 또 처결례를 행하고 성년애
 드러가셔 각 사람을 위하야 제스 드릴 썩지 결례의 ^{二九} 과한이 ^{三〇} 초 거슬
 고하더라 ○ ^{三一} 빌해가 ^{三二} 거의 ^{三三} 초매 ^{三四} 아시야 ^{三五} 도로브러 온 ^{三六} 유대인들이 ^{三七} 바울이
 성년에 잇슴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야 ^{三八} 부들고 ^{三九} 소리 질너 ^{四〇} 글으되
 이 스라엘 사람들을 아와셔 ^{四一} 도오라 이 사람이 ^{四二} 각 처에서 ^{四三} 우리 ^{四四} 박성과 ^{四五} 룰법과
 이곳을 ^{四六} 훼방하야 ^{四七} 무리를 ^{四八} 무르치고 ^{四九} 또 ^{五〇} 헐나 ^{五一} 사람을 ^{五二} 다리고 ^{五三} 성년에 ^{五四} 드러가셔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五五} 이 말은 ^{五六} 전에 ^{五七} 에 ^{五八} 베소 ^{五九} 사람 ^{六〇} 드로비모와
 又 처성에 잇슴을 보앗슨즉 ^{六一} 성년에 ^{六二} 다리고 ^{六三} 드러간 줄노 ^{六四} 알미라 ^{六五} 라 ^{六六} 윈성이
 소동하야 ^{六七} 박성들이 ^{六八} 썰나 ^{六九} 와셔 ^{七〇} 모혀 ^{七一} 바울을 ^{七二} 잡아 ^{七三} 신을고 ^{七四} 성년에 ^{七五} 나가나
 성년 문이 ^{七六} 곧 ^{七七} 닳치는 ^{七八} 지라 ^{七九} 너희가 ^{八〇} 죽이고 ^{八一} 저 ^{八二} 할시 ^{八三} 윈 ^{八四} 예루살렘에 ^{八五} 요란호
 소문이 ^{八六} 천부장의 ^{八七} 게 들니 ^{八八} 매 ^{八九} 급히 ^{九〇} 두어 ^{九一} 박부장과 ^{九二} 군수들을 ^{九三} 거느리고 ^{九四} 달려
 三三 三二 三一 三〇 二九 二八 二七 二六 二五
 三三 三二 三一 三〇 二九 二八 二七 二六 二五
 천부장이 ^{三三} 압호로 ^{三二} 나가셔 ^{三一} 바울을 ^{三〇} 잡아 ^{二九} 두 ^{二八} 죄사 ^{二七} 솔노 ^{二六} 결박하라 ^{二五} 하고 ^{二四} 무리
 무슴 일을 하였노나 ^{二三} 무르니 ^{二二} 무리 ^{二一} 가온디셔 ^{二〇} 엇던이는 ^{一九} 소리 ^{一八} 지르며 ^{一七} 이 ^{一六} 말을
 하고 ^{一五} 엇던이는 ^{一四} 더 ^{一三} 말을 ^{一二} 하거늘 ^{一一} 천부장이 ^{一〇} 썰드는 ^九 서터에 ^八 그 ^七 실상을
 아지 못하야 ^六 명하야 ^五 영문으로 ^四 잡아 ^三 가라하니라 ^二 바울이 ^一 충디에 ^〇 니르니
 무리들이 ^{三六} 심히 ^{三五} 욱여 ^{三四} 드는 ^{三三} 지라 ^{三二} 군수가 ^{三一} 바울을 ^{三〇} 들고 ^{二九} 가니 ^{二八} 박성의 ^{二七} 무리가
 뒤에 ^{二六} 쓰라 ^{二五} 가며 ^{二四} 소리 ^{二三} 질너 ^{二二} 글으되 ^{二一} 업지 ^{二〇} 하라 ^{一九} 하더라 ○ ^{一八} 바울을 ^{一七} 다리고 ^{一六} 영문으로
 드러 ^{一五} 가라 ^{一四} 할시 ^{一三} 바울이 ^{一二} 천부장 ^{一一} 드러 ^{一〇} 빌으되 ^九 내가 ^八 당신의 ^七 게 ^六 말씀이 ^五 엇다 ^四 하노
 글으되 ^三 내가 ^二 헐나 ^一 말을 ^〇 아나 ^{三九} 넷적에 ^{三八} 내가 ^{三七} 란리를 ^{三六} 씌우어 ^{三五} 스천 ^{三四} 흉도를
 거느리고 ^{三三} 광야로 ^{三二} 가던 ^{三一} 애 ^{三〇} 굵 ^{二九} 사람이 ^{二八} 아나 ^{二七} 나 ^{二六} 바울이 ^{二五} 글으되 ^{二四} 나는 ^{二三} 유대인이라
 길니 ^{二二} 기 ^{二一} 아 ^{二〇} 다 ^{一九} 소 ^{一八} 에서 ^{一七} 낫스 ^{一六} 니 ^{一五} 쇼 ^{一四} 읍 ^{一三} 박성이 ^{一二} 아 ^{一一} 나 ^{一〇} 라 ^九 청 ^八 권 ^七 대 ^六 박성의 ^五 게 ^四 말하거
 허락하라 하니 ^三 천부장이 ^二 허락하거늘 ^一 바울이 ^〇 충디에 ^{三九} 서서 ^{三八} 박성을 ^{三七} 향하야
 손을 ^{三六} 흔드러 ^{三五} 크게 ^{三四} 중용호 ^{三三} 후에 ^{三二} 히브리 ^{三一} 방언으로 ^{三〇} 말하야 ^{二九} 글으되
 부형들이 ^{二八} 내가 ^{二七} 너희 ^{二六} 압헤서 ^{二五} 발명호는 ^{二四} 말을 ^{二三} 드르라 ^{二二} 하더라 ○ ^{二一} 너희가 ^{二〇} 히브리
 방언으로 ^{一九} 말함을 ^{一八} 듯고 ^{一七} 더욱 ^{一六} 중용호 ^{一五} 지라 ^{一四} 바울바 ^{一三} 글으되 ^{一二} 내가 ^{一一} 유대인이라

三三 三二 三一 三〇 二九 二八 二七 二六 二五
 천부장이 ^{三三} 압호로 ^{三二} 나가셔 ^{三一} 바울을 ^{三〇} 잡아 ^{二九} 두 ^{二八} 죄사 ^{二七} 솔노 ^{二六} 결박하라 ^{二五} 하고 ^{二四} 무리
 무슴 일을 하였노나 ^{二三} 무르니 ^{二二} 무리 ^{二一} 가온디셔 ^{二〇} 엇던이는 ^{一九} 소리 ^{一八} 지르며 ^{一七} 이 ^{一六} 말을
 하고 ^{一五} 엇던이는 ^{一四} 더 ^{一三} 말을 ^{一二} 하거늘 ^{一一} 천부장이 ^{一〇} 썰드는 ^九 서터에 ^八 그 ^七 실상을
 아지 못하야 ^六 명하야 ^五 영문으로 ^四 잡아 ^三 가라하니라 ^二 바울이 ^一 충디에 ^〇 니르니
 무리들이 ^{三六} 심히 ^{三五} 욱여 ^{三四} 드는 ^{三三} 지라 ^{三二} 군수가 ^{三一} 바울을 ^{三〇} 들고 ^{二九} 가니 ^{二八} 박성의 ^{二七} 무리가
 뒤에 ^{二六} 쓰라 ^{二五} 가며 ^{二四} 소리 ^{二三} 질너 ^{二二} 글으되 ^{二一} 업지 ^{二〇} 하라 ^{一九} 하더라 ○ ^{一八} 바울을 ^{一七} 다리고 ^{一六} 영문으로
 드러 ^{一五} 가라 ^{一四} 할시 ^{一三} 바울이 ^{一二} 천부장 ^{一一} 드러 ^{一〇} 빌으되 ^九 내가 ^八 당신의 ^七 게 ^六 말씀이 ^五 엇다 ^四 하노
 글으되 ^三 내가 ^二 헐나 ^一 말을 ^〇 아나 ^{三九} 넷적에 ^{三八} 내가 ^{三七} 란리를 ^{三六} 씌우어 ^{三五} 스천 ^{三四} 흉도를
 거느리고 ^{三三} 광야로 ^{三二} 가던 ^{三一} 애 ^{三〇} 굵 ^{二九} 사람이 ^{二八} 아나 ^{二七} 나 ^{二六} 바울이 ^{二五} 글으되 ^{二四} 나는 ^{二三} 유대인이라
 길니 ^{二二} 기 ^{二一} 아 ^{二〇} 다 ^{一九} 소 ^{一八} 에서 ^{一七} 낫스 ^{一六} 니 ^{一五} 쇼 ^{一四} 읍 ^{一三} 박성이 ^{一二} 아 ^{一一} 나 ^{一〇} 라 ^九 청 ^八 권 ^七 대 ^六 박성의 ^五 게 ^四 말하거
 허락하라 하니 ^三 천부장이 ^二 허락하거늘 ^一 바울이 ^〇 충디에 ^{三九} 서서 ^{三八} 박성을 ^{三七} 향하야
 손을 ^{三六} 흔드러 ^{三五} 크게 ^{三四} 중용호 ^{三三} 후에 ^{三二} 히브리 ^{三一} 방언으로 ^{三〇} 말하야 ^{二九} 글으되
 부형들이 ^{二八} 내가 ^{二七} 너희 ^{二六} 압헤서 ^{二五} 발명호는 ^{二四} 말을 ^{二三} 드르라 ^{二二} 하더라 ○ ^{二一} 너희가 ^{二〇} 히브리
 방언으로 ^{一九} 말함을 ^{一八} 듯고 ^{一七} 더욱 ^{一六} 중용호 ^{一五} 지라 ^{一四} 바울바 ^{一三} 글으되 ^{一二} 내가 ^{一一} 유대인이라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길니기아 다소에서 나셔 이 성에서 자라 가 말니 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의
 룰법의 엄한 교훈을 받아 열심으로 하는 님 섬기기를 오늘 너희 모든 사람
 처럼 하여 이 도를 핏박하여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다 결박하여 옥에
 가도 앓노라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은 내 증인이 되거니와 내가 거괴셔
 형제의게 분치는 편지를 엮어 가지고 다메섹으로 건너며 거괴 잇는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잡아다가 형벌하교져 하여 행하는 길에 다메섹으로 갔가히
 가더니 뼈가 낫 짐 되여 홀연히 하늘 노셔 큰 광치가 두루 내게 빛최매
 내가 싸에 엎더져 드르니 소리 잇서 글으되 사울아 사울아 웨 나를
 핏박하는냐 하시거늘 내가 티답하되 주여 뉘시니 잇가 하니 글으샤되
 나는 나사렛 예수니 내가 핏박하는 자라 하시거늘 나와 및치 잇는 사람이
 빛촌 보면서 도나드려 말하시니 이의 소리는 듯지 못하는지라 내가 글으되
 주여 엇지 하리 잇가 하니 주가 글으샤되 니러나 다메섹으로 드러 가라
 작명하신바 내가 모든 행할 것을 거괴셔 누가 닐으리라 하시거늘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수 업는지라 나와 및치 잇는 사람이 손으로 나를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 十七 十八 十九 二十 二十一 二十二 二十三 二十四 二十五 二十六 二十七 二十八 二十九 三十 三十一 三十二 三十三 三十四 三十五 三十六 三十七 三十八 三十九 四十 四十一 四十二 四十三 四十四 四十五 四十六 四十七 四十八 四十九 五十 五十一 五十二 五十三 五十四 五十五 五十六 五十七 五十八 五十九 六十 六十一 六十二 六十三 六十四 六十五 六十六 六十七 六十八 六十九 七十 七十一 七十二 七十三 七十四 七十五 七十六 七十七 七十八 七十九 八十 八十一 八十二 八十三 八十四 八十五 八十六 八十七 八十八 八十九 九十 九十一 九十二 九十三 九十四 九十五 九十六 九十七 九十八 九十九 一百
 다메섹에 드러가매 야나니 아라하는 자가 잇스니 룰법으로 말하면 영언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눈 북음을 밝으라 하시거늘 즉시 그 사람을
 보았는지라 또 글으되 우리 조상의 하는 님이 너를 세워 너로 하여곰 뜻을
 알게 하샤 의로 오신이를 보고 그 입에서 말씀하시니 거슬듯게 하섯는지라
 네가 보고 드른 거슬 모든 사람 압해셔 그를 위하야 증인이 되리라 엇지
 완완히 하라 니러나 주의 일음을 불너 세례를 받아 너의 죄를 씻스라
 하느니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도라와셔 성년에서 기도할시 비몽스몽간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 사람들이
 네가 나를 무르쳐 증거하는 말을 듯지 아니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밋는 사람들을 가도고 또 각 회당에서 싸리코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의 피를 흘닐 적에 내가 꺽혀서서 깃버하여 그 죽이는 사람의 옷을
 직헌줄 더히도 아난이다 하시니 주께서 나드려 닐샤되 떠나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의게로 보내리라 하시섯다 하시니 너희가 이 말하는 것까지

스도 이십이장

스빅스십일

수도 이십이장

스빅스십이

三〇 듯다가 소리 질너 글으 디 이르호놈은 세상에 업시호자 살너 두지 못호겟다
 三二 호야 씨들며 옷을 벗고 티설을 공중에 놀니는지라 천부장이 명호야
 三三 바울을 영문으로 잡아다가 여러 사람이 무슴 일노 바울을 디호야 씨드나
 三五 알고저호야 채씩으로 싸리며 신문호라 호디 가족 줄노 바울을 디니 바울이
 三六 것헤 섰는 빅부장드려 닐디 로마 사람 된자를 죄를 덩치아니호고
 三七 싸리노 거시 을호나 호니 빅부장이 이 말을 듯고 가서 천부장의게 말호디
 三九 엇지호라 호는 료이는 로마 사람이라 호니 천부장이 곳외셔 바울드려
 四〇 무러 글디 네가 춤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호라 글디 그러호다
 四二 천부장이 글디 나도 돈을 만히 드려 로마에 입적호였노라 바울이
 四三 글디 나는 나면서 로마 사람이로라 호니 신문호라던 사람이 곳 바울을
 四四 씨난지라 천부장도 로마 사람이줄 알고 그 결박호 거슬호 두려워호더라 ○
 四五 잇호날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심스호는 실상을 알고저호야 폴고
 四六 제스 제장과 원 공회를 다 모히라 명호고 바울을 선을어내여 의회 압해

수도 이십삼장

三〇 바울이 공회를 주목호야 보고 글디 형데들아 내가 하노님 압해서 무슴
 三二 일이던지 어진 모임으로 행호야 오늘까지 왔다 호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三三 것헤 섰는 사람드려 그 입을 치라 호니 바울이 글디 분으로 쌈인 담이여
 三四 하노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안져셔 법을 안찰호야 나를 심문호
 三五 하노님들 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호는나 호니 것헤 섰는 사람이 말호디
 三六 하노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욱호는나 바울이 글디 형데들아 나는 그
 三七 사람이 대제사장인줄 아지 못호였노라 닐넛스디 너의 빅성의 유스를
 三九 비방치말나 호섯는니라 호더라 바울이 무리가 반은 사두기 교인이오 반은
 四〇 바리새 교인인줄 알고 공회에서 소리를 높혀 글디 형데들아 나도 바리새
 四二 교인이오 또 바리새 교인의 아들이라 죽은자의 브라는 것과 부활을 인호야
 四三 나를 심문호이라 호니 그 말을 못초매 바리새 교인이 사두기 교인으로
 四四 더브러 서로 다도와 변론호다가 무리가 호호이니 이는 사두기 교인은
 四六 부활도 업고 던스도 업고 신도 업다 호고 바리새 교인은 다 잇다 흠이라
 四八 크게 현화가 니러날시 바리새 교에서 두어 서괴관이 니러나 다도와 글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거시 업도다 혹 신이나 혹 런스가 더드려
말하엿다 하기로 우리게 무슨 상관이니는냐 하야 크게 다도와 변론하느니라
천부장이 바울이 여러 사람의게 쫓겨질가 하야 군스를 명하야 무리가 온디서
배아서가지고 영문으로 드러오라 하더라 ○ 그날 밤에 주셔서 것헤 서서
닐으샤다 안심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위하야 증거 하엿스니 또 아
긋치로 마에셔도 증거 하야 하리라 하시더라 ○ 날이 새매 유대인이 썰를
지어 밍세하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교 마시지도 아니하겟다
하교 모해하랴 하느쟈가 스십명이 더 되느니라 제스장과 장로의게 와서
말하디 우리가 크게 밍세하교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모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하엿스니 이제 너희가 공회로 더브러 그 스실을 더 즈세히 무르랴오로
천부장의게 청하야 내여 달나하라 오기 전에 우리가 예비하엿다가 죽이리라
하더니 바울의 심질이 그 숨어 잇다 하느 말을 듯고 영문에 드러가서
바울의게 고하니 바울이 혼 박부장을 청하야 글으디 이 젊은 사람을

상관을 보라 하며 하느 말의 할 말이 잇다 하더라 하니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너가서 조용히 무르디 내게 할 말이 무어시냐 디답하디 유대인이
언약하교 보는 날에 바울을 다리고 공회에 나르러 그 스실을 더 즈세히
무고져하는 모양으로 영감씩 구할 거시니 영감은 더히 청함을 좃지 마옵쇼셔
스십여인이 숨엇다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하교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밍세하교 말서 예비하교 영감의 허락하시기 만기느니라 하니
천부장이 젊은 사람을 보내며 경계하디 이 일을 내게 고하엿다고 아모
사람의게 닐이지 말나하교 곳 박부장들을 불너 닐으디 보병이 박명과 마병
칠십명과 창군이 박명을 준비하야 밤술시 말에 가이사랴까지 가게하교
또 되고 갈 짐승을 두초와 바울을 뒤워가지고 감스 벨니스의게로 호송하라
하교 천부장이 또 편지를 붙치니 이리케 닐넛스디 글나우티오 루시아는
벨니스 각하에 평안함을 청하노라 이 사람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고져하매
내가 로마 사람인줄 알고 군스를 거느리고 가서 구하야다가 유대인들이

삼

무슨 일도 송스하는지 알고져야 너희 공회로 다리고 내려가서 송스하는 일을 본즉 너희 법을 변론할 썬이니 그 송스에 죽일 죄도 업고 결박할 죄도 업스나 유대인들이 해라라고 썬다 내게 말하기를 곧 각하씩로 보내며 또 송스하는 사람들을도 알외는 썬을 각하 압헤 말하라고 하였노라 하였더라 ○ 보병이 명을 받은대로 밤에 바울을 다리고 안디바에 이르러 잇흔날 마병으로 하여곰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도라가니라 너희가 가이사라에 이르러 편지를 감스의게 드리고 바울을 압헤 세우니 감스가 보고 바울드려 어느 교을 사람이냐 무려 길니기야 사람이줄 알고 곧 디너를 송스하는 사람이 오거든 너를 조처하라 하고 명하야 헤롯 궁에서 직히라 하더라

못에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이제 저해한 자에 대하여는 내가 너를 보내니 동축하시기를 권구하노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열병이 없고 노미라련하여 퍼진 유대인을 다 요란케 하는 자인디 나사렛당의 피슈라 다 성연을 더럽게 하고져하기로 우리가 잡앗스오니 각하씩서 천히 동축하시면 곧 우리가 송스하는 모든 일을 알나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좃차 화답하야 곧 디이 말이 올타하는지라 ○ 감스가 머리로 썬을 보며 바울드려 말하라 하니 바울이 곧 디 각하씩서 이 나라를 다스리신지 여러 히가 되고로 내가 더욱 말하기를 미우 툇습는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레비하려 올라간지 열잇을 받게 못된 거슬 하문하시면 아실지라 너희가 내가 성면에서 아모 사름과 못치 변론함도 보지 못하였고 또 회당에서나 성 중에 서나 여러 사름을 어지럽게 함도 보지 못하였스니 이제 나를 송스하는 일은 너희가 각하 압헤서 증거를 잡을 거시 업습고 오직 혼가지 일이 잇스오니 내가 각하씩 말삼하리이다 너희가 이단지도라 하는 거슨 내가 우리 조상의 하느님을 섬기고 불법과 밋션지자의 괴록할 거슬

스도 이십소장

스빅스십팔

그대로 다 밋으며 ^{十五}또 하는 님 압헤셔 더희와 ^又처 의로운 자와 불의 혼자가
 둘 다 부활함을 브라는 거시라 이 ^{十六}거슬 인하여 힘써 하는 님을 디하나
 사람을 디하나 흥상 흠이 업는 량심을 가지고 여러 희만에 내가 본국을
 구제할 것과 레물을 가지고 와서 ^{十七}드리고 성던에서 결례를 못출 때에
 사람이 모히지도 아니하고 ^又또 요란치도 아니흔 거슬 더희가 보았습고
^九또 아시 아도로 브터 온 두어 ^又유대인이 잇스니 더희가 만일 나를 디하여
 거시 잇스면 여긔 와서 각하 압헤셔 송스할 거시오 ^又또 여긔 잇는 사람들을
 내가 공회 압헤 셋슬 때에 만일을 치아니흔 거슬 보았거든 말라 함을 쇼셔
 내 말을 침잡을 거시 하나 ^又또 내가 전에 더희가 온디 서셔 부르기를
 내가 죽은 사람의 부활을 위하여 ^又오늘 너희게 신문을 당한다 하였는 이다
 하니 벨니스가 이 도를 더즈계히 아는 고로 송스하는 사람을 아직 영지하라
^又콜디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슬퍼 결단하라 하고
^又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직히어 임의 대로 가게 하여 천구가 와서 디접하

重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의문하니 벨니스가 두려워하여 ^又콜디 서방은
 같지어 다 내가 틈이 잇스면 너를 부르리라 하니 벨니스가 바울이 돈을 줄가
 브라는 고로 여러 번 불너 ^又처 말하더라 잇히를 지나셔 보르기 오베스도가
 벨니스의 소임을 디신하니 벨니스가 유대인의 깃버함을 엿겨져야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도입흔 지 삼일 만에 ^又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제스제장과 유대 ^又놀흔 사람들을 바울을 송스할서 ^又근구하되 ^又쳐분을 느리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쇼셔 ^又함은 길에 숨엇다가 죽이고져 함이러라
 베스도 ^又콜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하여 잇스니 ^又또 내가 속히 거기로
 내려가리라 하고 ^又또 콜디 너희 중 권세 잇는 사람은 나와 ^又처 내려가셔
 그 사람이 만일을 치아니흔 일이 잇거든 송스하라 하고 ^又그가 온디서
 팔일이나 십일이나 지나지 못하여 ^又가이사랴로 내려가셔 잇흔 날 재판
 자리에 안고 명하여 바울을 다려오니 ^又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이

八 돌너 서서 수다한 중은 일노 바울을 송스 하되 증거할 일을 잡지 못할지라
 九 바울이 말명하야 글으되 유대인의 룰법이나 성면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十 도모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깃버함을
 十一 엇고져하야 바울드러 부르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내 압해서
 十二 심문을 받으랴나 바울이 글으되 내가 이제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압해
 十三 섰스니 맛당히 여기셔 심문을 받을 거시니라 내가 유대인의 배 불의를
 十四 행한 일이 업는 거슨 각하씩셔도 복히 아시는바라 만일 불의한 일이 잇서
 十五 스죄를 범하였스면 내가 죽기를 스양치 아니할 거시오 만일 나를 송스하는
 十六 이 거시 다 헛된일이면 그 사람의게 누구던지 나를 내여 줄수 업습스이다
 十七 내가 가이사씩 품하겠다 하되 베스도가 공회로 더부러 의문하야 글으되
 十八 네가 가이사의게 품하겠다 하니 가이사의게 가야하겠다 하더라 ○ 수일
 十九 후에 아그립바 왕이 버니게와 율치 가이사랴에 와서 베스도의 평안함을
 二十 못코 여러 날을 잇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노 왕의게 고하야 글으되

一 내가 제스제장파 유대 장로가 송스하야 나드려 그 죄를 당하리라 하
 二 내가 말하되 피고가 원고를 디질하야 피고의 디답을 듯지 아니하고 내여
 三 주는 거시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그런고로 유대인들이 여기 오매 내가
 四 지체하지 아니하고 잇흔날 재판 자리에 안져 명하야 그 사람을 다려 오니
 五 송스하는 사람이 서서 말하는 거시 내가 스스로 헤아렸던 바와 율치 악한
 六 거슨 아니라 드러본즉 더히 도를 위함이 오또흔죽은 예수를 바울이 다시
 七 살았다 말하거슬 변론함이라 내가 이 일을 엇더케 사실할는지 의심이
 八 잇서셔 바울의게 무르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랴나
 九 할즉 바울이 여기 잇다가 황제의 처결하시기를 구하노고로 내가 명하야
 十 가이사의게 보내기를 기드리라 하였노라 하니 아그립바가 베스도드려
 十一 닐으되 나도 또 이 사람의 말을 듯고져하노라 하니 베스도 글으되 리일
 十二 드르시옵쇼셔 하더라 ○ 잇흔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플고
 十三 와셔 송스하는 처소에 드러올시 천부장들과 성 중에 놓흔 사람이 율치
 十四 온지라 베스도가 명하야 바울을 불너드려 말하되 아그립바 던하와 밋

여기 ^{二二}又치 잇는 모든 사를 들아 청컨대 이 사를 보쇼셔 유대의 모든 무리가 예루살렘에서도 송스하였고 또 여기셔도 내압해서 송스하야 크게 소리하디 살녀 두지 못할 사름이라 하나 나는 슬피건대 죽일 죄를 범치 아니하였는지라 그러나 내가 황대의게 품은다 하였스니 그런코로 보내기로 작덩하였노라 이 사를 위하야 황대씩 분명호니 사실을 알월 거시 업스니 던하들 압해 잡아다가 늦코또 특별히 아그립바 던하 압해 내여 세우고 즈세히 사실호 후에 그 일을 알아 알외라 하노니 가돈 사를을 죄목도 배플지 아니하고 보내는 거시 리치에 합당치 아니하다 하더라 아그립바가 바울드려 빌으되 네게 허락하야 말하게 하노라 하니 바울이 손을 드러 발명하디 아그립바 던하야 유대인이 모든 송스하노 일을 오늘 던하 압해서 발명호는 거슬 다형히 녀이 읊는다 더욱 다형호은 거손 던하 죄음서 유대인의 모든 법과 밋 문대를 아심이니 그런코로 내 말을 너그러히 드르시기를 보라 읊는다 내가 어려셔 버터 예루살렘에 잇서 유리 형성 중에서 살전에 었다 호는 거슬 유대인이 다 아나고 하디

도

처음 보더 나를 조세하 알았스니 만일 나를 위하야 증거 하라 하면 빌으기를 내가 우리 지극히 엄호 교를 바들던 바리새 교인이라 할 거시라 이제 여겨 서서 심문 밋는 거손 하느님이 우리 조상의게 허락하신 거슬 브라는 사들이니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근절히 하느님을 밋드려 섬기고 이 허락하신 거슬 엇기를 브라는이다 아그립바 던하야 이르호 브라는 거스로 유대인이 나를 송스하읍는나 하느님이 죽은 사를 다시 살니 심을 던하 씨서 엇지하야 밋지 못할 거시라 하겠습는 잇가 이전에 내 생각에도 나사렛 예수의 일홈을 디덕하야 범스를 행호는 거시 올라하야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호였고 제스제장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 성도를 가도고 또 죽일 때에도 내가 그 일에 가편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야 아모도록 훼방호게 하라 호고 너희를 디하야 심히 격분하야 췌박하야 이방 성셔지 갓더니 그 일노 제스제장의 권세를 빙자하야 그 허락을 밋아 다메섹에 갓습는이다 던하야 췌가 정오나 되여 길에서 보니 하늘노셔 히보다 더 붉은 밋치느려 스면으로 나와 밋又치 가는 사를의게

十四

벧최이니 우리 가 다 싸에 업더 지는 지라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十三

날은 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었지야 나를 핍박하는나 채싣해 송곳을 뒤

十二

발질하기가 어려오니라 하시거늘 내가 티답호디 주여 뒤시니 잇가하니

十一

주씩셔 길은 샤디 나는 너의 핍박하는 예수나 니러나 서라 내가 특별히

十

네게 보여 너로 하인을 삼고 증인을 삼아 나를 본 일과 장춧 내게 보일 일도

九

증거하게 하니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 사람 가온디셔 너를 구원하야

八

더회개 보내여 이방 사람의 눈을 밝게 하야 어두은 거슬 버리고 벧잇는

七

뒤로 도라가 사단의 권세를 썰나셔 하는 님색로 도라가 죄 사함을 엇고

六

나를 밋어 거룩한 무리 가온디셔 괴엄을 엇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립바

五

던하여 그럼으로 하늘에서 보이신 거슬 내가 어그릿치 아니호고 처음에

四

다 예새과 예루살렘과 유대 원사와 이방사지 니르러 사들들의게 말호디

三

회개호고 하는 님색로 도라가셔 회기에 합당흔 일을 행호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二

성면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져 하나 하는 님의 도심을 밋아 내가 오늘까지

一

미리 말씀하야 평안 잇스리라 한 거사 밋고 오라

三

밋으시고 죽은 가온디셔 몬져 다시 살아나샤 벧초로 이 벧성과 이방

三

사람의게 벧최리라 함이니 이다 하더라 ○ 바울이 어긋치 말명호니 베스도가

三

크게 소리하야 골은디 바울아 네가 밋쳤도다 네 만흔 학문이 너를 밋치게

三

호였다 하니 바울이 골은디 베스도 각하여 내가 밋친 사람이 아니오

三

진실호고 정신 초린 말을 하는 이다 던하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던하셔

三

블히 말호노니 내 생각에 하나이라도 아시지 못함이 업습는 이다 이 일은

三

흔편 구석에서 행호던 거시 아니로소이다 아그립바 던하여 선지자를

三

밋으시니 잇가 밋으시느 줄 아는 이다 하니 아그립바가 바울은려 빌너 골은디

三

적은 말노 권하야 나로 하여곰 그리스도인이 되게 호라하는도다 하니

三

바울이 골은디 하는 님색 구호노니 말이 적으나 만호나 던하 혼분 썩

三

아니라 오늘내 말을 들은 사들들도 다 이려케 결박호거슨 말고 그 외에는

三

나와긋치 되기를 원호노라 하더라 ○ 왕과 감스와 버니게와긋치 안즌

三

사들이 다니러나셔 물너가 서로 말호디 이 사람의 호는 거시 죽일 죄도

三

수도 이십륙장

三

스빅오십소

五五四

四五四

수도 이십칠장

스빅오십륙

三

업고 가들 죄도 업다 하니 아그립바가 베스도 드러 닐너 글으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품혔다 아니하였더면 곳 노홀자라 하더라

비득고 이달니아로 가기를 작덩하매 바울과 다른 죄인 두어 사람을

아구사도 영문 빅부장을 올니 오의게 보내여 아시아 해변에 여러 디방으로

가라하느얏으라 못데 노비가 잇거늘 우리가 올나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췌치 hing션하셔 잇흔날 시돈에 대이니 올니 오가 바울을

잘 티접하야 여러 천구의게 가기를 허락하야 공궤함을 밧게하더니

또 더괴셔 hing션하야 가다가 바람이 쏠치 못하야 구브로 히안 아래로 지나

길니기아와 밤빌니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 무라 성에 이르러 거기서

빅부장이 이달니아로 가라하느얏네 산드리아 비를 만나 무리를 오르케하니

비가 가기를 미우 더티하야 여러 날 만에 겨우 니도 마즌 편에 이르러

풍제가 쏠치 못하야 그레데 히안 아래로 말미암아 살몬네 마즌 편으로

가다가 겨우 그레데 히안으로 지나 혼곳에 이르니 일흔은 미행이니

형션하느 거시 비와 저물 만 손상할 것파 및 크게 해로울 션이니

성명도 손상하리라 하되 빅부장이 션장과 션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밧는지라 그 항구에서 겨을을 지내는 거시 현치 아니 혼코로 이 싸를 쟈나

아모도록 뵈니스에 가서 겨을을 지내자 혼는자가 더 만흐니 뵈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혼편은 동북을 향하코 혼편은 동남을 향하엿더라 남풍이

조곰씩 불매 더희가 득의 혼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갖가히하코

hing션하더니 얼마 동안이 아니 되여 섬 가온뒤로서 광풍이 대작하니 그

바람 일흔은 유라굴노니 비가 바람에 불너 것잡을 수 업서 가는대로 두교

쫓겨가다가 가우다 적은 섬 히안 아래로 지나 겨우 겨루를 겨두어 쇠을어
올니고 또 큰 비를 구원하라고 밧창을 업다가 사덩에 걸닐가 두려워
연장을 느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을 티덕하야 심히 의쓰다가
잇흔날 짐을 츠츠 바다에 풀어 버리고 사흘재 되는 날에 비가 온디 그비를

三 풍량이 그대로 잇스매 구원하기를 바라느듯 오음이 다 업서지고 여러 사람이
 二 오래 먹지 못하였는지라 바울이 가온디 서서 말하되 여러 분이여 내 말을
 三 듯고 그례 데에서 쟈나지 아니하였더면 이 손상함과 해를 면하였슬지라
 三 이제 너희를 원하노니 안심하라 혼 사람도 성명은 일치 아니할 거시오 비
 三 만 일흔들 이름이라 나는 하는님의 하인이라 맞드리 섬기더니 이제 밤에 그
 三 스자가 내 것해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말나 네가 필연 가이사 의 압해
 三 설 거시오 또 하는님씩서 비에 못치 가는 사람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스니
 三 그런고로 여러 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하는님을 믿으니 그 내게 말씀하신대로
 三 될줄아나 그러나 혼 섬에 걸니라 하더라 ○ 열나흘재 되는 날 밤에 비가
 三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 더리 쫓겨 가더니 밤중 즈뵈여 비 사람의 짐작에
 三 어느 륭디가 갓가왔다 하고 물은 재더니 이십 길 이 되매 조곰 가다가
 三 다시 재니 열다섯 길이라 여에 붓으 칠가 하야 고물노닷네슬 던지고 날이
 三 새기를 기드러더니 비 사람이 도망하고져 하야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고

三 신하 비를 쟈여 버리고 날이 새여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원하야 먹으라
 三 하야 길으되 너희가 먹지 못하지가 열나흘인고로 먹으라 권하노니 이 거시
 三 너희 성명을 구하는 거시오 머리터럭 하나이라도 쟈러지 아니하리라
 三 하고 이 말을 못초고 쟈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압해쳐 하는님께 축사하고
 三 쟈여 먹기를 시작하매 모든 사람이 다 안심하야 또 혼 먹으니 우리의 비에
 三 잇는 사람을 합흔죽이 비 날흔 여섯이라 비 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三 버려 비를 가브 압해 하였스나 날이 새매 어느 쟈인지 아지 못하더니 보매
 三 포구와 언덕이 잇는지라 비를 드러다 대일수가 잇는가의 론하야 줄을 싣코
 三 닳을 바다에 버리고 처 줄을 늦초고 돛출 들고 바람을 순히 하야 언덕을
 三 바라보며 나아가다가 두물이 합하야 흐르느듯 곳을 당하야 비가 걸녀이 물이
 三 붓혀 쟈러지 아니하더니 고물이 큰 물결에 쟈여져가니 군스들이 죄인들이
 三 해염쳐서 피할가 하야 죽이기를 의론하거늘 빙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랴 하
 三 더희들의 뜻을 막고 명하야 해염치는 사람으로 하여 고품 물에 쟈여 내려

수도 이십칠장

스빅오십구

